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7월 26일(음력 7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588 호

수재민에 희망을…불교계 총출동

사찰피해 불구 지역민 아픔 달래기 발빠른 대응
종단·사찰·복지단체 복구 구슬땀…성금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맨 왼쪽)과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7월 21일 인제군 수해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제/사진=고영배 기자

7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쏟아진 집중호우가 남긴 상처는 컸다. 7월 21일 현재, 전국에서 49명의 인명 피해와 1978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770동의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5만1000여 가구는 전기가 끊겼다가 복구됐으며, 강원도 7만3천여명은 수도물 공급을 받지 못해 비가 그친 7월 21일까지도 비상급수에 의존하고 있다.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등 30여 사찰이 건물 파손, 도로 유실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피해사찰 복구보다는 발빠르게 지역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나서 수해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냈다. 종단-복지재단-사찰이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시스템이 힘을 발휘했다.

대민 지원 '최우선'

가장 기민하게 대민지원에 나선 곳은 피해가 가장 큰 평창에 위치한 월정사. 소속 말사의 피해상황이 전해져 왔지만 월정사는 집중호우가 한창이던 7월 16일부터 사중스님들과 종무원, 단기출가학교 수련생을 총동원해 비상식량 공급, 긴급복구활동에 벌여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월정사부터 시작된 대민지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과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진각복지재단의 발빠른 봉사단 파견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강원도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8일 양양 오색리에서 1차 복구지원활동을 펼친 데 이어 평창군 진부면, 봉평면과 인제군 등지에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8일 KBS에 1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20일 인제군, 양양군, 평창군 등 수해지역을 직접 돌며 구호성금 전달, 수해민 위로, 봉사단 격려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신길·구로·본동·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구로청소년수련관 등은 18일부터 안양천의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서울 양평동 일대에서 복구에 참여했다.

복구현장마다 발길 이어져

천태종과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서울 관문사, 강릉 삼계사, 춘천 삼운사 신도로 구성한 특별재난구조대를 17일부터 평창군 진부면 수해지역으로 급파했다.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은 19일 KBS에 수해복구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수해복구지원단을 조직해 21일부터 평창 방림면 일대에서 대민지원활동을 펼쳤다.

사찰들의 복구참여도 줄을 이었다. 속초 신흥사와 월정사, 양양 낙산사, 대관령 녹유사 등 피해지역 사찰은 인근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은 물론,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와 결합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신흥사는 20일 향성선원, 백담사 무금선원 수좌스님 등 150여명으로 신흥사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인제군에서 복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화재에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낙산사도 18일부터 사찰복구보다 '지역민 희망찾기' 활동을 벌였고, 녹유사는 20일부터 인근지역 수해가정 복구에 참여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봉화 청량사, 복지재단 산하 무량회 등 피해지역의 사찰·단체들은 봉사인력을 파견하고 중장비와 구호성금, 구호품을 모아 피해지역 사찰 또는 종단에 지원했다.

서울 조계사는 21일 평창군에 중장비 3대를 긴급지원한데 이어 23일 250명의 자원봉사인력을 파견 3000만원 상당의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봉은사도 5000만원의 성금을 종단을 통해 전달했고, 19일부터 50명씩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와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원연합회,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등 세 단체는 공동으로 '재해재난 연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50명의 봉사단을 평창지역에 파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선재마을의료회도 20~23일 평창 진부면 일대에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수해복구 대민지원활동에서 사찰과 각 종단 복지재단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봉사인력을 충당하고, 종단은 구호성금과 구호품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측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단-복지재단-사찰이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낸 것이다.

시스템 정착, 마인드 성숙

이번 수해복구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종단별로 수립한 구호시스템의 정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지원과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원 등 앞서 가동했던 구호시스템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조직 정비와 비상연락체계 수립 등을 통해 보강한 결과다.

불교계의 복지·구호 마인드가 한층 성숙된 점도 원활한 대민지원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미 성숙해 있고, 더불어 불자들의 인식도 봉사 또는 후원에 참여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단-복지재단-사찰이 적절한 역할배분을 통해 신속히 재해복구에 참여한데 비해 현장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뤄지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완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수해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조직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복구지원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해 미숙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양성 박차

포교원 등, 9월 서울에 불교교사대학 설립키로

부산에 이어 서울에도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된다.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7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 올 9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는 6개월 동안 기본 32강, 특강 10강 등 총 42강을 주 2회씩 조계사 교육관에서 실시한다. 졸업생들에게는 불교어린이 지도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여기에서는 불교와 교육이론 외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마술, 인형극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법회 회원 모집 및 관리 등 어린이 법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도 공개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입학원서 1통과 반명함판 사진 4매 등을 첨부해 전화(02-739-4967)나 인터넷(www.burec.org), 방문(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신도회관 내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산캠퍼스는 올 8~9월 종이접기 2급 과정을, 9~10월 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진행한다. (051)852-0820

조계종 포교원 이석심 차장은 "부산에 국한됐던 어린이 지도자 양성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나타났듯 포교 취약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등사 사리구 추정 근거없다"

서울지법, 반환소송 1심 판결

7월 2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 1심 판결에서 원고인 현등사가 패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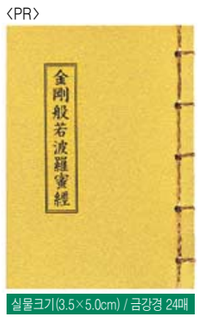
서부지법 민사13부(신성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시대에 세워진 현등사와 지금의 현등사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리구는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돼 있던 것이라 추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항소절차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도반의 향기 17면
섹소폰 연주로 포교 유상호씨
시방세계 9면
용주사 외국인한글학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지족 스님 서울 대흥사 주지
광주 원각사 재가논강 7면
YBA 파키스탄 봉사현장 16면
2007 만해축전 23면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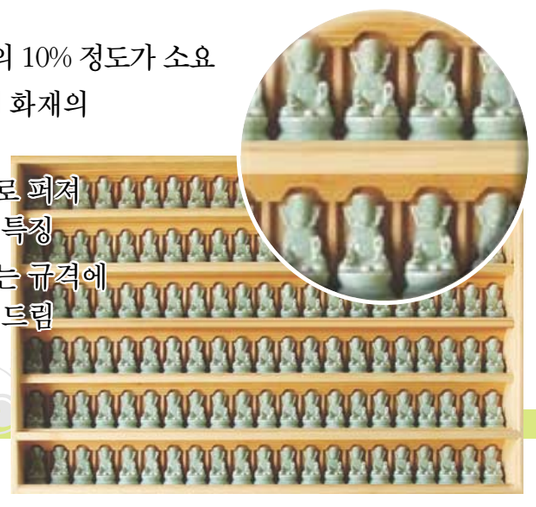
불교계 대표 인터넷 언론 붓다뉴스 대대적 개편

● 더 빠른 뉴스
● 영상뉴스 강화
● 편리한 검색기능
● 사찰·지역·단체 뉴스 강화
7월 21일 새로워진 buddhanews.com에 오세요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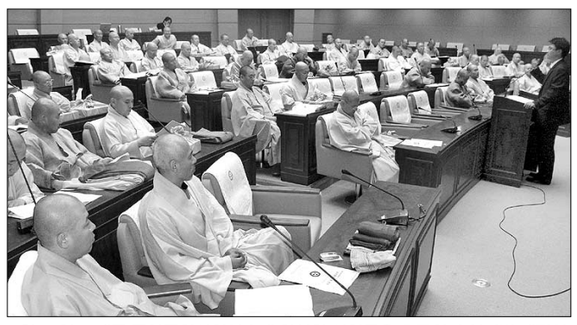

신상품
우란분절(백중)등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무르익나?

“이대론 곤란” 공감 … “어떻게?” 의견 분분

현행 보완 · 선거인단 확대 · 추대제 등 거론
종회의원연수서 “8월 임시종회 상정” 결의



7월 20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연수에 참석한 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법등)가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7월 20일 중앙종회의원 60여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50년 중앙종회 의원연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수에 앞서 참가 스님들은 ‘대표선출 방식과 선거제도’를 주제로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강의와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총무원장 선거법개정을 위해 선거인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 추대-간선-직선제‘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방향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후 연수가 본격 진행되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향적 스님의 사회로 △현행제도 장단점 및 보완 방안 모색(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 위원 광조 스님) △일정승랍 이상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제안(장적 스님)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각 스님) △총무원장 추대제 도입에 대한 제안(민추본 본부장 명진 스님)을 청취하고 종합토론 등을 벌였다.

이날 광조 스님은 “선거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시스템을 유지하고, 향후 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들만 참여하는 선거인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적 스님은 “설문조사에서 선거제도 변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여론이 우세(72%)하고, 종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승랍 20년 이상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며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각 스님도 “총무원장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다면적 평가, 부정선거방지,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여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구성원의 이해가 엇갈리고 선거에 익숙지 않은 종단의 관행을 고려해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보다는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대제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명진 스님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무원장은 선거과정의 논공행상과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며 “파벌과 계파를 초월한 다양한 인재 등용과 화합된 분위기에서 종정에 전념할 수 있는 추대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이 끝난 직후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8월 예정된 임시종회를 통해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뜻임을 밝혔다.

또 종회 연수예산 일부와 위원장 부위원장단 등 중앙종회 의원 각출로 모은 총 1500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추대제 37% · 직선제 36% “팽팽”

본말사 주지 등 2334명 설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어떻게 치러야 할까?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본말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선원 소임자, 교직자로 승랍 20년 안팎의 스님 233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13일까지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추대제(36.7%)와 일정 승랍이상 직선제(35.8%)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추대제와 직선제 외에도 현행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17.6%로 만만치 않았고, 선거인단 확대(3.8%), 선거인단 축소(3.2%)까지 포함하면 ‘추대-직선-현행간선제’에 대한 응답자들이 비율이 엇비슷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인 72.2%는 ‘승가의 위의에 적합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비구 560명, 비구니 452명 등 1012명이 응답했다.

도심사찰 법당 증축 150평까지 가능

조계종 ‘도시공원법 시행령’ 근거 홍보활동

최근 불사(佛事)를 계획하는 서울 등 도심 전통사찰들이 도시공원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조계종 기획실(실장 동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225㎡(약 70평)이내의 경우 45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해, 개정된 공원법에 따라 이들 전통사찰들도 최대 150평까지 법당 증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지에서의 탑 · 불상 · 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과 달리 새로운 대지조성(사실상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조계종 소속 111개 도심사찰의 불사추진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처럼 도시공원법이 개정 · 시행된 것은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로서만 간주되어오던 전통사찰을 ‘사찰보존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공공성을 인정한 결과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7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이 훨씬 용이해졌지만 실제 이에 대한 사찰들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사찰관계 법령에 대해 잘 인지해 역사 · 문화적 거점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국제포교 전담 기구 설치

조계종, ‘국제포교진흥위원회’ 입법예고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1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종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한 국제포교진흥위원회령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종단 차원에서 국제포교와 관련한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국제포교 종책수립 △국제포교 전문가(통역 · 번역) 양성 △인터넷 포교진흥(국제사이트 운영) △해외사찰 지원과 운영 △후원조직관리 및 후원금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외포교 경험과 원력이 있는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해외포교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 위원장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재정은 종단 보조금과 해외포교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 각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교원측은 “현재 국제포교와 관련한 종법령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문성현 · 권영길 대표 등
지관 총무원장 예방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임원단이 7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관 스님은 “노동자들의 주름이 펴질 수 있으려면,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제일 많을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표와 함께 지관 스님을 예방한 권영길 의원대표은 “이번 수해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책임의 무겁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대표, 최순영 의원, 이용대 정책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18일에도 김두관 前 행자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국현안 등을 청취했다.

김 前 장관은 김근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열리우리당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7 · 26 재보궐 선거에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망갈라 삼마라위라 스리랑카 외무장관(18일)과 대만 대표부 천잉추오(陣永綽) 대사(20일)도 신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조용수 기자

인권 지킴이 21명 위촉

종단협, 각 종단 추천 스님 · 교수 등

조계종 비구니 상임감찰 정현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과 교수 등 21명이 불교 인권지킴이로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7월 2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날 각 종단의 인권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

종단협은 이날 △진각종 새 총무부장 회성 정사의 상임이사 선임을 승인하고 △제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예산 및 참가인원 배정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대책 마련 및 지원 △제9차 한중불교수행체험교류사업 진행현황보고 △북녘동포 생활용품 공동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백양사 율원 정식 인가

조계종 교육원은 7월 21일 회의를 열고 고불총림 백양사 율원(율주 혜권)을 정식 인가했다. 이에 따라 백양사 율원은 만암 · 서옹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맥을 계승할 전기를 마련했다.

백양사 율원은 지난 4월 산내암자인 청류암에 개원됐으며, 강원을 졸업한 비구나 선원에서 일정 안거를 거친 비구 가운데 약간 명을 선발, 운영할 예정이다. 공양주를 별도로 두지 않고 편의제품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계율에 담긴 정신을 최대한 생활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경주 불국사 중강 현학, 합천 해인사 강사 현림 스님 교직자 자격을 인정했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지난호 <587호> 1면 죽비를 전달받은 단체장 가운데 ‘박희현 남해군수’를 ‘박희현 해남군수’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종웅)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기고 … 무너지고 … 끊기고 … 묻히고

‘물폭탄’에 강원 사찰 큰 피해

전국을 강타한 ‘물폭탄’은 주로 강원지역 사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통사찰 제25호인 인제 백련정사 요사채가 반파됐고, 전통사찰 제28호인 양양 영혈사 경내 축대와 법면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조계종조도의 국사가 주석했던 양양 진전사 진입로 노반이 침하됐고 사찰 계곡 일부가 유실됐다.

인제 백담사의 경우 한 때 전기와 전화가 끊기기도 했다. 또 매표소에서 사찰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흙더미가 쌓여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양양 낙산사는 관음전 축대가 붕괴되고 의상대로 가는 산책로 주변 경사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포장을 덮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진부 시내에 위치한 평창 월정사 유치원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기습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평창 천태종 진강사 원통보전.

강원지역에 내린 기습 폭우로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에 위치한 천태종 진강사의 원통보전이 산사태로 크게 소실됐다.

100평 남짓한 원통보전은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건물을 덮쳐 원통보전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과 탱화 등이 흙더미에 파묻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찰 경내도 침수되지는 않았다.

또 인제에 위치한 천태종 강화사는 산사태로 해우소가 매몰되고 창고가 주저앉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강화사는 7월 15일 뒷산인 기룡산 계곡 양쪽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17일부터 인제군청에서 계곡을 임시로 막고 창고 앞 주저앉은 부분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임시 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외에도 동해 만리사는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해우소 축대가 무너졌다.

한편 인제 과학화훈련단 호국 응봉사도 8월 15일을 준공 목표로 법당을 건립하던 중 산사태가 나 진입로 일부가 유실됐다.

김주일 · 박봉영 · 남동우 기자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등판 떨어져

400년된 소조불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미륵전안에 봉안된 보살상 등판부위 일부가 괴리되어 떨어져 나갔다(사진).

주지 원행 스님은 “지난 16일 밤, 400년 전 흙으로 조성된 좌보처 법화림(法花林) 보살상 왼쪽 어깨부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며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보살상은 높이 8.79m 크기의 거대한 불상으로 이번에 넓이 1m, 길이 3m 가량의 등판부위 흙이 붕괴됐다. 금산사와 전라북도는 “불두와 정면은 손상이 없어 불행 중 다행으로 원형 보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에 긴급 보수지원을 건의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김미란 학예사는 “미륵전 보살상은 목조형체에 흙으로 살을 붙여 조성한 소조불(塑造佛)로 계속된 장마에 목재부위와 흙 부분이 괴리되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화림 보살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우보처 대묘상(大妙相) 보살상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사 미륵전은 국보 62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법당 내부에 있는 삼존불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시급한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통도사 ‘아미타여래…’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7월 18일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를 보물로 지정하고,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10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보물1472호)는 필치가 섬세하고 유연함이 돋보이며 통도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불화 제작을 주도한 화사 임한(任閑)이 제작한 불화로 이른바 ‘임한파’ 화풍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10점)은 조각수법이 우수하고 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으며 양식적으로 7세기 말 통일신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인 조각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노병철 기자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고국 온 조선왕조실록 국보된다

지난 7월 7일 일본에게 강탈된 지 1세기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7월 19일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를 열어 오대산사고본을 기존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에 덧붙여 국보로 지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대산사고본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경 문화재위원회 분과에서 문화재로 최종 지정된다.

한편 오대산사고를 관리해 오던 월정사는 7월 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를 집중호우로 인해 8월 11일로 연기했다.

노병철 기자

3기 방송위원회 출범

말 많고 탈 많던 3기 방송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다. 방송위원회는 7월 14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희 방송위원(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희 위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동순(KBS감사) 전육(前 중앙방송 사장) 주동황(광운대 교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 변호사,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3기 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연 기자

“사찰 경영기법 도입 불교가치 살리는 일”

실천불교승가회, 사찰경영 첫 세미나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살리는 중요한 활동이다.”(구병진 경영학 박사)

“잘 되는 사찰 20%와 어려운 사찰 80% 비율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

“주지스님의 그대로 계승한 분신, 즉 신도 중 핵심인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이를 조직화하는 것이 신도경영의 핵심이다.”(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7월 2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법보신문 공동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사찰경영 연구 세미나에서 쏟아진 사찰경영에 관한 조언이다.

변화된 사찰운영환경 흐름을 분석하고 사찰경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정웅기 부소장은 “고객이자 자원이기도 한 신도자원이 매우 폭넓게 존재하는 종교단체만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전반적인 사찰경영 혁신 전략 수립이 보다 시급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종교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불교CEO인 주지스님들이 신도들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교육, 조직화를 실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병진 박사는 “서양 자본주의에서의 경영기법 보다는 경전에 제시된 경제 · 경영에 대한 지혜와 기술을 사찰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찰의 경영’을 처음으로 토론장으로 끌어냈다는데 세미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찰경영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고 사찰경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추후 2차, 3차 세미나를 통해 사찰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일본 · 대만 등 선진 사찰의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천안 광덕사 · 안양암 광덕산 보호소송 승소

법원이 천안 광덕산 중턱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의 사찰 경내지 통행을 막아 난개발을 막으려던 광덕사와 안양암의 손을 들어줬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9일 “광덕산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이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1심 판결에 이어, 2심인 대전고등법원도 7일 광덕사와 안양암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을 막으려는 사찰의 경내지 통행방해를 수행환경권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한 것이다.

2004년부터 광덕사, 안양암, 환경단체와 함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을 반대해 온 불교환경연대는 “천안 광덕산이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의 수행환경 수호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현재 광덕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광덕산 자연공원’ 지정을 심의, 검토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국제패트롤 잼버리 기간 대회장에 불교관 운영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순천 청소년수련소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패트롤 잼버리 기간에 불교관이 개설, 운영된다.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송기원)는 대회장에 불교전시관을 설치해 불교관련 미술품 및 불교용품을 전시하는 한편, 상설법당을 마련해 예불과 참선, 108배 등과 단주 및 연꽃등 만들기 등을 통해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또 8월 12일 불교인의 밤, 13일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불교권 1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3개국 10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한명우 기자

복지의료법인 ‘연꽃마을’ 설립

‘파라밀재활병원’ 내년 4월 완공

불교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을 모태로 한 의료법인이 탄생,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대단위 노인요양복지시설이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7월 18일 안성시로부터 ‘의료법인 연꽃마을’ 설립허가를 받고 노인 보건 · 의료복지타운 설립에 뛰어들었다.

연꽃마을 측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마련한 총 7천7백 평 대지에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과 두 개의 병원 부속 요양동을 건립해 ‘안성노인종합복지타운’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전문요양시설 감로당과 실비요양시설 보은당은 완공을 마친 상태다. 특히 불교계 최초의 노인요양병원이 될 ‘파라밀재활병원(가칭)’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평 2천 2백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파라밀재활병원’은 170여 병상을 마련해 임종직전의 환자들을 위한 ‘터미널케어(임종환자보호)’ 서비스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등의 진료과목이 개설되며 불교병원에 걸맞게 법당과 불교호스피스 병동도 마련된다. 이은비 기자

생활속에서 깨닫는 길이 참선에 있다

삼매체험 참선수행 30주년 - 참선 단식 7일간 집중수련

단기간 집중정진으로 참선수행 길을 찾는다 – 화두의심을 지어갈 줄만 알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득력하는 것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다.
화두의심만 바로 시작하면 깨달음안으로 들어가는 심지공부 – 세속의 모든 번민과 욕망 정신적 갈등에서 벗어난다.

금강단식과 참선의 특징과 효과

1. **예비단식 보식이 없다** – 단식 시작전 준비단식이 없고 단식종료후 곧 바로 정상식사가 가능
2. **단식으로 식욕을 해결하면 정신이 손에 잡히듯 분명해진다** – 정신을 모르고 살면 세상에 태어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철이 들기전에 세상을 마치게 된다.
3. 정신적으로 심약한 사람은 의지력 인내심 추진력 자재심이 배양되고 화내고 성냄을 고치고 자신감 신념을 증대한다. 초월적인 능력발휘, 성격전환
4. **금강단식은 일반 단식의 부담을 줄여서 쉽게 할 수 있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없다** – 체질개선 당뇨 고혈압 약 끊고 가능하며 피부질환 등 피부가 강해져서 치료 미용효과 크다. 체중감량은 하루에 0.5kg~1kg가능
5. 단식을 겸한 참선은 화두의심이 집중되어 가볍게 접근된다.
6. 정신과 신체의 개벽이라 할 만큼 변화가능함. 직장 가정 사회생활과 부적응에 대한 해결과 전환이 용이함
7. 통화후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 예약 가부전화요함
8.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기 바람.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상 및 인원 : 고교(사전확인요함)이상 일반인 70명
3. 수련일정(6박7일)
◆ **1차 : 06. 7. 31 ~ 8. 6** ◆ **2차 : 8. 10 ~ 8. 16** ◆ **3차 : 8. 17 ~ 23**
4.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고현고 옆) **064)755-3322**
5.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 자는 혜택이 있음)

즉심즉각 자성불도량 **원명선원**

전국 규모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하자

불교계 자원봉사자 왜 안 느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200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불교계 자원봉사자는 2004년 대비 1만1735명에서 1만5528명으로 증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전체에서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2004년과 마찬가지로 19%에 머물러 증감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불자 자원봉사자 1명당 연평균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33.61시간을 차지해 타종교 봉사자들에 비해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 불자는 1년 동안 평균 37.88시간을 봉사해 전체 종교인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전체 평균시간보다도 월등히 높은 시간이다. '양적으로는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우세'인 셈이다.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이 질적인 우세를 유지하며 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교계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교신도수 대비 자원봉사자들 비율은 아직도 크게 부족하며, 자원봉사활동이 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도시락 반찬 배달, 목욕 · 청소봉사 등 노력봉사에 머무르는 봉사영역을 더 넓히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봉사자, 기독교에 비해 크게 열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불자 수는 2001년 5088명에서 2005년 1만552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은 가톨릭, 개신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원봉사자의 종교별 비율에서 개신교는 매년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불교계는 2003년까지 21%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나마도 2004년부터 28% 증가율을 보인 가톨릭에 추월당했다.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지난 199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설립 당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자원봉사자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2천여 직할봉사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도 2002년부터 매년 4차례 니르바나 자원봉사단 교육을 실시해 지금은 기본교육 수료자가 1천2백여명에 이른다.

사찰 신도회와 전국의 불교대학 출신 자원봉사자들 역시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지역 천수천안 자원봉사단과 영남지역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봉사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재의 수치에 대해 "아직도 모자르다"라고 잘라 말한다.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는 "불교신도 수 대비 자원봉사가능자를 추정하면 560만여 명이 된다"며 "이들이 매월 1회 4시간 활동만 참여해도 연간 67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지원체계 미흡…접근조차 어려워

불자 자원봉사자 한명 한명의 열정에 비해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방법을 모르고,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는다.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인증센터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인증센터에서 관리를 받으면 정부 통계에 불자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반영되고, 봉사자는 상해보상에 무료로 가입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2천여 개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60여 개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충북 · 전북 · 제주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예 없어, 이 지역의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열세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는 "불교 자원봉사 조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친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사찰 봉사단과 복지단체들의 현황을 파악, 원활한 정보교류를 도울 수 있는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버팀목은 스님의 의지다. 불교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찰 스님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지, 복지마인드가 신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은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지스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을 때, 사찰 자원봉사단은 발 빠른 사회봉사를 펼치며 핵심으로 자리 잡는 '힘'을 발휘한다.

지난 7월 19일 청량사 긴급수해복구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직접 수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힘'을 발휘한 케이스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고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76%를 넘었다. 이 같은 처우 역시 자원봉사자들을 단순히 업무보조로 여기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60여 개의 불교자원봉사인증센터를 살펴보면 이중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86%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데 비해 재교육은 36%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차례에 불과한 교육으로는 봉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주지 관심이 신도들 봉사로 이끄는 큰 힘
봉사인증센터 총 2000곳 중 불교계 60여곳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재교육 강화해야

더구나 무료급식봉사나 밑반찬배달봉사와 같은 노력봉사가 아닌, 수지침, 상담 등의 전문 자원봉사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전문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조직관리 · 영역확대가 열쇠

불교자원봉사활동이 탄력을 받기 위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 · 관리하고 진흥사업을 전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미 불교계 내부에는 네트워크를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22개 사찰과 신행단체를 순회하며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올해 11월에 각 사찰 자원봉사단에 공문을 보내 자원봉사협의체를 조직하려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조계종 사찰 뿐 아니라, 범불교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타종단과의 교류와 대외협력을 통한 범불교적 자원봉사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와 구리지역 60여 개 사찰이 모여 자원봉사단을 구성한 천수천안 남양주 · 구리시 지부는 지역 네트워킹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이 의기투합한 덕택이다.

천수천안 자원봉사단 사무총장 도원 스님(성보사 주지)은 "스님들이 사찰에 앉아 법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며 "스님들도 복지가 바로 포교이자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에 성공해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케이스다. 연꽃마을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각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과 실적을 관리하며 연말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한 후 시설 자원봉사자가 매년 2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영역이 노력봉사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영천 은해사는 지난해 사찰 최초로 간병전문인을 양성하고 30여명의 전문간병인을 배출했다.

자원봉사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도 지난해 1월 한국케어복지협회와 서울시로부터 케어복지사 2급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 봉은사가 서울의료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 후원 및 진료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자원봉사 기관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기능교육, 지도자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6년 7월1일 ~ 2006년 8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최봉수교수, 무진장스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육조단경,초발심자경문,한자학원론,어순으로푸는한문해석,주역설문해자, 중국고전(1,2)한국고전(1),불교경전(1),한학연구입문등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랑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일무교수 외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6년 7월15일 ~ 2006년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6년 9월 7일 (목), 다도학과 : 2006년 9월 5일 (화), 불교미술학과 : 2006년 9월 6일 (수)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9월 5일 (화)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 010-6636-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현장 전문가가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절 공간 활용도 포교전략이다

③ 사찰건축과 도심포교 성공의 조건

최첨단 시설 갖춘 도심 사찰 성공 모델 배우길
영상 · 음향 시설 등이 포교의 중요 요소로 부각
다목적 홀, 교육 · 휴게실 등 신도위한 공간 많아야



김정관
(건축사)

한 사람의 불자가 여러 절에 소속된다.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절을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재적 사찰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행의 방법의 특성 때문이다. 초하루 혹은 보름 법회나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의 재일을 통해 대중 법회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경우 개인 기도를 올리는 것이 보통 불자의 신행 방법이다. 결국 개인 기도를 통한 신행이기 때문에 한 절에 대한 소속감이 뚜렷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불교도 이제는 신도교육을 통해 재적 사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신행 생활을 해야만 사찰 운영이나 포교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창출될 수 있다.



최신 시설을 완비한 사찰이 도심 포교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 안국선원 방송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법회 공간의 현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법회 때나 지금의 법회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지금도 법사 자격으로 법회에 참석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는듯 하다.

어떤 절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대웅전에서 난로도 켜지 않고 법회를 보기도 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를 부르는 절은 몇 군데나 있을까?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 · 청년 법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요즘 아이들은 좌식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책상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아이들을 마루바닥에 앉혀 놓고 몇 시간 법회를 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고행을 강요하는 것이다.

화이트보드도 없이 육성만으로 진행하는 건 요즘 첨단기기로 살아가는 젊은이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다. 개신교의 경우 아무리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갖추고 집회를 하고 있다. 목사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각종 자료를 통해 풍부한 내용의 설교를 진행할 수 있다.

절은 어떤가? 부산에서 제법 크다는 절에서도 영상시스템을 갖추고 법회를 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인도성지와 세계적인 불적지를 영상을 통해 보면서 법회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성철 스님을 비롯한 열반하신 큰스님의 법문을 지금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의 법문도 자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절에는 아직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실에서 신도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 앞서가는 절

이런 속에서도 오래 전부터 앞서가는 절이 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와 서울 양재동의 능인선원이다. 두 절은 '한복 스타일'을 벗고 '양복'을 입은 절로서 신도수도 수십 만 명 단위다.

구룡사는 한 건물 안에 소극장과 출판사까지 갖춘 이색적인 절로서 주 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한 최첨단 사찰이다. 또 큰 법당에서 애기 법당, 다목적 홀과 휴게시설, 회의실까지 갖춘 시대에 맞춰가는 절이라 하겠다.

능인선원의 경우는 더 독특하다. 어떻게 20여만 명의 신도를 모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풀 수 있는 비밀은, 현대인의 생활에 맞춘 사찰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상에는 사회 복지관, 지하에는 사찰로 구성된 최첨단 현대식 건축물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면서 불법을 공부하는 내용만 전통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현대생활에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절의 성공 사례는 서울에서 현대식 사찰을 창건하는 좋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현대에 맞는 사찰을 보편화시키는 기폭제는 되지 못한 듯하다. 이 두 사찰은 이런 기능시설들을 통해 신도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신도들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적 신도들의 힘은 두 사찰이 지역 사회나 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도 최근 안국선원이 현대식 사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찰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현대인에 맞는 현대식 사찰은 법회를 정착시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남자 신도를 오게 하고 신도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시대에 맞는 사찰의 형식

필자의 직업이 건축사인 관계로 사찰 설계를 의뢰받으면 필히 신도를 위한 공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신도들의 교육 공간,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위한 소법회실, 다목적 홀, 신도단체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이다. 아직 이러한 공간을 제대로 설치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절을 의뢰받지 못했지만 200~300평이면 다양한 기능이 갖춰진 도시형 사찰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절은 꼭 기와집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아직이 부분에서 스님들의 양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기와집이 아니면 절이 아니라며 설계가 취소된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범어사 설법전의 경우에도 이층 목조부분은 전통사찰이라 기와집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층 부분은 기단으로 해석하여 외관 디자인을 하고 내부를 대형 강당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면 질 높은 법회를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로 바뀐 뒤로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만한 곳이 있을까? 산중에 있는 사찰만 템플스테이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 사찰 어디에서도 신도들을 위한 공간을 갖추기만 한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신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속감이 높은 신도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신도들에게 내 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맞는 새 절이 지어지기를 불보살 전에 발원한다.

'공'으로 한마음

범어사 학인 스님 vs 청년회원 축구대회

"베컴스님, 패스"

범어사(주지 대성) 강원 학인 스님들과 범어사 청년회(회장 이승룡) 회원의 축구대회가 7월 16일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사진). 오전까지 장마비가 내려 수중전으로 펼쳐진 이날 경기는 8:5 학인 스님들의 대승으로 끝났다.

범어사는 학인 스님들의 체력 증진과 청년회와의 교류, 대중화합을 목적으로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중 주지스님의 허락 하에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16일 경기에 앞서 범어사는 14일 남산동 외국어대 운동장에서 범어사 소임 스님들과 학인스님들 간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아 기자



범어사, 가족 템플스테이 열어

부산 범어사는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가족 템플스테이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가족 템플스테이는 우리가족 가훈 만들기, 가족 창작 등 만들기 등 가족 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찾고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한편 범어사는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초 · 중 ·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계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1)508-3122~5

이은아 기자

해동 용궁사 대웅보전 낙성



부산 해동용궁사는 7월 15일 용궁사 대웅보전에서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스님을 법사로 대웅보전 낙성 100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용궁사 대웅전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정진하는 불자님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며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여법한 법당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수심회 자비수관수련법회

자비수관 부산수심회는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을 초청, 자비심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자비수관수련법회를 부산 소림사에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봉행했다.

이번 자비수관수련법회는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며 의식으로 만든 자비손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수행일지 작성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비수관 법회를 주최하고 있는 자비수관 수심회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지회 활동과 인터넷(www.jabisugwan.org)을 통해 자비수관 수행법을 알리고 있으며 올해 5월 개원한 경북 고령 자비선사에서 월 2회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등불사 /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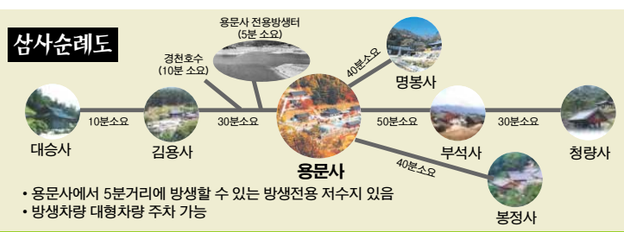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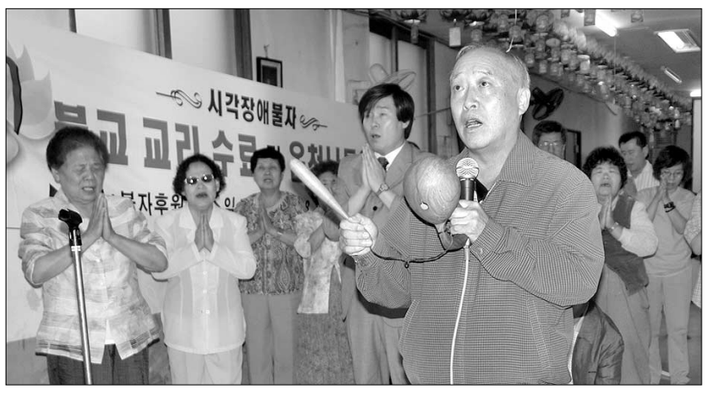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대광맹인불자회원 23명 교리강좌 첫 수료

“체계적으로 배우니 마음 든든~”


대광맹인불자회가 7월 18일, 창립 15주년만에 첫 불교교리강좌 수료식을 봉행했다.

창립 15년만의 기쁨
4개월간 매주 90분씩
대구경북포교사단 도움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이재달)가 7월 18일 창립 15년 만에 ‘가장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14일부터 4개월간 매주 90분씩 이어온 제1회 불교교리강좌 수료식을 거행한 것. 30여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수료식은 조촐했지만 마음만큼은 크고 든든했다. 불교교리강좌를 이끌어 준 4명의 포교사가 함께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리강좌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임용운(77)불자가 수료자 23명을 대표해 이재달 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 회장도, 임용운 불자도 모두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 수료증 하나를 받는데도 자원봉사자가 임용운 불자를 데리고 나와 이 회장이 건네는 수료증에 손을 대어 주고서야 비로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를 수행하는데도 일반인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들이다. 이런 이들이 4개월을 넘는 기간동안 불교교리강좌를 수료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대견한 일이고, 이들을 이끌었던 4명의 포교사들에게도 감회가 남달랐던 시간이었다.

이재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양지 같은 밝음을 주고, 사랑의 샘이 흐르도록 도와주었다”며 포교사와 후원자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불자가 되어 길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전봇대에 부딪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즐기면서 이겨내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창립이후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번번이 강사를 구할 수 없어 뜻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경북포교사단이 어려운 일을 했다. 최문성(탄중)단장을 비롯해 김경도(능도), 김진구(일고), 정휘수(혜덕) 포교사가 시각장애불자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준 것이다. 처음 대광맹인불자회는 ‘과연 불교교리강좌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대광맹인불자회원들의 열정과 포교사들의 원력이 만나 더욱 불을 지폈다.

“오계, 팔정도가 뭔지 배웠습니다. 절을 할 때, 향과 촛불을 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 더 이상 장애자라는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료증을 받은 임용운 불자는 어린아이마냥 좋아했다.

“절하는 법을 배울 때는 법사님이 한 사람 한사람 옆에 붙어서 일일이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손과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었거든요.”

젊을 때는 공무원 생활까지 했다는 김복경(74)불자는 일일이 몸으로 가르쳐준 포교사에게 감사할 뿐이다.

서경인(73) 불자는 어렵게 배운 교리를 잊을까 걱정이다. “녹음테이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강의자료라도 있다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포교사들은 이런 대광맹인불자들의 순수한 열정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서로가 가진 틀을 깨는 것이 어려웠다”는 김경도 포교사는 “장애 비장애의 틀을 벗고 똑같은 불자로 만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문성 단장은 “교양강좌를 이끌면서 장애인들 가운데 포교사가 배출되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참나 찾아 길 떠나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단기출가학교 입교식

14~44세 17명 사연도 각양각색 … 21일간 출가
수행생활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것 발원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다양한 모습의 선남자 17명이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4층 대법당에 들어섰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제3기 단기출가학교 입교생들이다.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 머물면서 삭발염의하고 수행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14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입교생들은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하게 된 사연 또한 각양각색이다.



최연소 입교자인 이윤철(서울 장충중 1년)군은 어머니의 권유로 왔다. 안동에서 요리사로 활동했던 엄상호(38)씨는 늘 출가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온 장경소(30)씨도 출가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부산에서 화교학교를 나온 정홍빈(23)씨는 삶의 변화를 기대해 입교했고, 대구보건대학생인 이승용(20)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쌍둥이 형 이승진씨와 같이 참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비록 정식출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굳은 원력을 세우고 출가학교의 문을 두드린 입교생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려있다.

“스님처럼 생활하는 21일간의 기간이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도록 서로 도와 끝까지 마치기를 바랍니다.”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이 입교식에서 법문을 마치자 입교생들을 산문에 들이기 위한 의식들이 이어졌다. 연비의식에 이어 21일간 입교생들이 사용할 의발이 전해지고, 입교생들의 머리카락을 한줌씩 잘라내는 삭발의식이 거행됐다.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하지요. 이것이 번뇌를 많이 일으키게 하지요.”

우학 스님의 한마디가 스쳐가는 가운데 옥불보전 7층 스님 수행관으로 자리를 옮긴 입교생 한사람 한사람의 무명초가 시원스럽게 잘려나갔다. 입교생의 표정에는 시원함과 확고한 수행결의가 교차한다.

“착잡하네요. 큰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체험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산에서 온 이동원(40)씨가 삭발을 앞두고 속내를 보여줬다. 정홍빈(23)씨는 “긴장되고 떨린다”고 말했다.

머리가 길어 제일 먼저 삭발을 한 장경호(30)씨는 “1년 이상 머리를 길렀는데 의미 있게 깎게 되어 기쁘다”며 만족해했다. 최연소 입교자인 이윤철군은 삭발을 앞두고 눈물까지 떨구었지만 21일간의 수행생활을 마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제 입교 수행자들은 스님들의 수행관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새벽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을 자며 발우공양을 하게 된다. 새벽예불과 대중 울력, 사시불공에 동참하고, 금강경독송, 자비수참, 다라니독경, 초발심자경문 수업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8월에는 감포도량에서 참선실수를 병행하며 삼보일배와 무문관 체험도 할 예정이다.

21일간의 수행생활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하는 마음만이 가득하다.

배지선 기자

경주시장애인복지관 ‘향기나는 집’ 운영

알록달록 꿈 키운다

비누 생산 통한 자립 경제 지원


경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비누를 만들어 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모두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급여를 위해 쓰고 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 2층의 한 작업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색상과 향이 나는 천연비누가 만들어진다. 직업 재활팀이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위해 직종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향기 나는 집’이다.

‘향기 나는 집’이 제작하는 천연미용비누와 아로마 비누는 숯, 황토, 백년초 비누 등 10종류가 넘는다. 모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박세영, 박윤희 선생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는 것. 이들은 비누 케이스까지 한지공예를 활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박세영씨는 “장애자들이라 개량을 하거나 가성소다를 취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지만 그 외의 모든 과정은 장애자들이 한다”며, “속도가 조금 늦지만 하나하나 훈련생들의 정성과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값은 천연비누가 120g당 7~8천원, 아로마비누가 3~4천원으로 시중보다 30% 저렴하다. 현재는 3명의 지체장애자들이 매일 5kg정도의 비누를 만들고 있다.

배지선 기자

전통사찰 인근에 채석장
구미사암련 등 반대 성명

구미시 옥성면 복우산 정상의 채석장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자가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채석장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대둔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구미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우) 등 10여개 기관단체들은 최근 “개인이 영리사업을 위해 공공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그리고 농민들의 생업에 무참한 피해가 초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화재인근 지역이므로 문화재전문위원의 평가는 물론 골재 채취법 제22조 2항에 의거 난개발을 억제한 법취지를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석장개발사업자가 제기한 채석장불허처분소송은 7월 19일 2심 공판까지 끝난 상태며, 9월 6일 마지막 판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배지선 기자

새 회장에 김상달 교수
법륜불자교수회 임원 개편

법륜불자교수회는 7월 15~16일 영천 은해사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제10기 임원단을 선출했다.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 김상달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10기 임원단은 앞으로 젊은 교수들을 영입하고 격월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대구교도소 100여명의 재소자들이 7월 18일 대구교도소 법당 광명사에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와 오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동화사와 대구경북포교사단이 주관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1년간 수료한 수용자들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대한불교선교종 행자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종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모집대상(5名 ~ 7名)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문 의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 한 불 교 선 교 종 총 무 원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김응철 이순교 이호근 박건주 이희재 지현 스님 이중표

호남 최초 재가논강 열린다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8월 11일~9월 22일 매주 금 광주 원각사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재가불자들이 도심사찰에 모여 신행을 점검하는 논강이 열린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대웅전에서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계 등 육바라밀을 소주제로 정해 진행되는 이번 논강은 광주 · 전남 지역의 불자와 신행단체 장들이 직접 논주와 토론자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논주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교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이 나서고, 지역 포교사단, 청년회, 직장 직능 불자회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가불자들을 위해 논강 자리를 마련한 도제 스님은 "스님들을 청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법문에서 벗어나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묻고 풀어가는 법회가 요구된다"며 "재가논강은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참 불자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논강의 총괄 진행을 맡은 이중표 전남대 교수는 "지역 사찰에서 재가논강을 마련한 것은 포교의 현대화라는 의미에서 괄목할만한 일이다"며 "불교가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논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논강 두번째인 '인욕'의 논주를 맡은 이순규(정신의학) 박사도 "육바라밀의 하나인 인욕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嗔心)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삶 속에서 불교적 실천으로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가논강은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가 마련한 생전예수재 법회의 하나로 8월 5일부터 49일동안 논강과 함께 실천수행으로 신행결사에 들어간다.

원각사는 신행결사 기간 동안 참회(매일 500배 하기), 지계(오계 지키기), 선정, 보시(이웃돕기 보시금 모으기), 송경(경전 49독하기), 사경, 만행(삼사순례)을 펼친다.

이번 신행결사는 9월 22일에는 광주천변에서 유등축제를 끝으로 회향한다. 원각사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차훈명상 견차' 지도자과정
7월 26일~8월 16일 총 4회

차훈명상 총본원(원장 선해)은 지도자양성을 위한 견차(見茶)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26일부터 8월16일까지 4회에 걸쳐 차훈명상의 전반적인 개론과 득기, 수련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강좌로 차훈단식 집중수련과 미인차훈법, 통기차훈법 수련이 펼쳐진다.

차훈명상은 전통 우리 차의 훈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몸의 활력을 찾는 수행법이다. (062)375-2773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구례 화엄사가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위해 7월 13일 개설한 불교기초교양대학 입제식 모습.

구례 화엄사 불교교양대학 문열어
50여명 입학 … 9월 10일까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7월 13일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위해 '불교기초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오는 9월 10일(매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강좌에는 구례지역 관공서 직원, 문화해설사, 주민, 신도 등 50여명이 입학했다.

첫 강의에 앞서 주지 종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지역 농민, 주민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법을 배우는 학당이자 지역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강의에서 화엄사 승가대 학감 연광 스님은 "불교는 인연의 종교이며 인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며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보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사 교양대학은 매주 목요일(오후 7시) 화엄사 내 범음료에서 부처님생애, 불교기초교리, 신행생활, 수행 등 재가불자가 알아야할 교리와 수행 등의 강좌를 펼친다.

한편 화엄사는 7월 25일 각황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식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61)782-7600

글 · 사진=이준엽 기자



태고종 합동득도 행자교육
순천 선암사에 개설 … 31명 참가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제30기 합동득도 수계를 위한 행자교육원을 태고총림 선암사에 개설하고 1차 교육에 들어갔다(사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올해 첫 행자교육에는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인 31명이 참가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선암사 부주지 승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행자시절 익힌 습의는 올곧게 정진하는 출가 수행자의 근본이 된다"며 "몸을 조복받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경 열리는 제30기 합동득도 수계는 일반인이 사미(니)계를 받는 마지막 수계식이며,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동방불교대학 교육과정을 마쳐야 출가할 수 있다. 이준엽 기자

'증심사입구역' 역명 변경
'학동 · 증심사입구역'으로

특정종교인들의 역명 변경 요청(본지 586호 7면 기사참조)으로 광주 지하철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역명이 '학동 · 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7월 19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광주지하철역명변경공동대책위원회, 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의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명칭을 '학동 · 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심사입구역'은 2003년 광주 지하철 개통당시 '증심사입구역'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주민과 특정종교인들의 반발로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 후에도 특정종교인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증심사입구역' 삭제를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불교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은 "증심사입구역 명칭은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1200년 전에 창건된 증심사의 역사, 상징성을 고려해 지정되었다"며 "시민들의 결정에 종교인들도 겸허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키로 합의한 역명은 9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정의행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행법)이 올 여름에도 특강을 펼친다. 불교문화대학 정의행(48) 교수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선생경(善生經)>을 강독한다.

여느 때와 다르게 정 교수가 이번 특강에 임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선생경>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불자들과 함께 보고자 별러왔기 때문이다.

"<선생경>은 부처님이 재가불자에게 일러주신 생활윤리이자 실천 지침서입니다. 경을 읽다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하는 거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내에서 한문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그는 불교대학 교수이자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주로 법사로 불린다. 20년 전부터 대불련을 지도했고, 재적사찰인 문빈정사에서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전법활동 가운데 정 법사가 혼신을 다하는 것은 불교의 대사회운동이다. 특히 '통일과 민주화'는 정 법사가 평생을 두고 치열하게 파고드는 화두이다.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통해 '많은 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 법을 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과 실천은 별개가 아닙니다. 만인이 마음 편하고 통일된 나라가 불국토입니다."

정 법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불교연대는 4년 전부터 '북녘어린이와 나누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등산 등산로 입구(문빈정사 앞)에서 펼치고 있는 '북녘어린이 돕기 모금행사'가 그것이다. 정 법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모금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모은 성금으로 그동안 북녘의 어린이들에게 6차에 걸쳐 분유 12톤과 용천역 참사 때 어린이 생필품을 지원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6 · 15민족통일축전에서 정서정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을 만난 정 법사는 8월경 콩우유 제조기를 북녘 유치원에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 법사는 불교연대가 펼치는 △평화통일 △생명인권 △자연보호 △참여불교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창시절 정 법사는 경전 보기를 좋아했다. 혼자서 보는 경전만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 아예 사찰로 들어갔다. 몇 년간 학승을 찾아 경전을 섭렵했다. 경전을 보면서 다가오는 것은 '알았으면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나아가 '생활 속에서 포교하자'는 발원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5 · 18 광주민주항쟁을 맞았다. 당시 친구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분연히 나섰다. 홍보단에 참여했고, 이후 오랜 시간 도피와 수감생활을 겪어야했다.

정 법사는 서울에서의 편한 직장도 권유받았지만 광주를 떠나지 않았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경전을 이야기 했다. 이렇게 정 법사는 줄곧 불교의 대 사회운동과 불교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정 법사는 몇 권의 책을 냈다. 1996년 발간한 '시 꾸러미'는 아직도 청소년 추천도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1991년 발간한 '한국불교통사'는 민중들의 불교를 밝은 세상에 드러내 놓은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법사는 한국불교통사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날의 왕사 국사 선사 위주의 불교사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제아무리 고승이라 할지라도 민중을 억압한 지배자의 편에 서서 복을 빌어주고 사상을 펼쳤다면 우리 민중에게 '고승'일 수 없다."

힘들고, 외롭고, 궂은 자리이지만 불교가 함께해야 할 곳이라면 항상 그곳에 우뚝 서있는 정 법사의 소신이다. 이준엽 기자

'ㅅㅓㄹㅗ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원각사에서는 예수재기간동안, 재가불자들이 평소 신행생활을 함에 있어 접하고 행하는 신행 방법에 대해 **「불자들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1주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각각 소주제를(육바라밀) 정하고 그에 따른 논주(論主)와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재가논강**을 봉행합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논주(論主) :**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규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 : 이중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동참비: 2만원,** 송광사 율원장스님께서 수계하니 많은동참 바랍니다.
- **수행 결사반을 모집합니다**

생전예수재를 지내는 49일 동안 수행과 신행, 참회와 공덕행을 쌓는 결사(結社)모임을 만들고 신행을 혁신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 지키도록 함.

기간 : 생전예수재 기간(49일)
내용 : 매일 사시기도후, 저녁 공양후 각각500배씩(지도법사:주지스님)
사경, 독경은 매주 재가 끝난 후 원각루 2층(지도법사:설몽스님)

■ 생전예수재 안내

불기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는 살아생전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10시**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10시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7.7재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초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9월 4일 월요일 윤달 삼사순례가 있습니다.

장 소 : 무주 안국사 외 2곳
출 발 : 원각사 앞에서 8시
동참비 : 3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

태고종 봉원사 연꽃축제 문화공연 등 8월 8일까지

태고종 봉원사(주지 환우)는 7월 25일부터 8월8일까지 대웅전 앞 특설도량에서 제4회 서울연꽃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생불멸의 자생력과 정화력을 지닌 연꽃을 통해 인간 본성을 발현하여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봉원사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축제 첫날인 7월 25일에는 기념법회에 이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과 김태곤 송춘희 나현 등 불자 가수들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등이 펼쳐졌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연꽃감상 산책로가 조성되며, 만봉 스님의 대형 작품전과 연꽃 전문 사진작가 선암 스님의 사진전, 도예가 김학동의 찻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마련된다.

토 · 일요일에는 연잎차 시음행사, 전통다도시범, 연등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8월5일에는 초등학생 100명, 중 · 고교생 200명, 대학생 이상 성인 50명이 참가하는 그룹별 연꽃그림 그리기와 백일장이 진행된다.

(02)392-3007

김주일 기자

여래종 창종 41주년 옥천 약사사서 기념법회



한국불교 여래종(총무원장 혜안)은 7월 21일 충북 옥천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창종 4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종정 인왕 스님은 "창종을 기념해 창종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에서 비 건립 불사에 전 종도가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진위원장에 승정원장 무공 스님을, 추진위원으로는 총무원장 혜안 스님, 호법원장 법륭 스님, 교육원장 보당 스님을 임명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사이버 포교 반응 좋네

일붕선교 · 미륵 · 법륜종 등 홈페이지 개설
행사안내 · 상담 · 동영상 서비스 제공


미륵종 홈페이지


일붕선교종 홈페이지

"종단의 모든 공지사항 인터넷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종단이라도 산하에는 1백개 이상의 사찰이 등록돼 있다. 그러다보니 종단의 공지사항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런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한결 수월하다. 규모가 큰 종단이야 이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종무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효율성을 알면서도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소종단들은 홈페이지 하나 만들기가 녹록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규모 종단 홈페이지가 종단의 이미지를 알리고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7개 종단 중 조계 · 태고 · 천태 · 진각종 등 4대 종단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15곳. 이중 총화종 일붕선교종 미륵종 법륜종 등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내홍을 겪으며 종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지난 6월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홈페이지에는 종단의 역사와 추구하는 방향, 월별 행사와 법회 일정, 공지사항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산하사찰들도 도권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링크돼 있어 개별적으로 종단 지침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부원장 혜천 스님은 "개설한지 얼마 안됐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면이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외부업체에 맡겨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도 빨리 업데이트 되고, 스님들의 건의 사항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 종무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처음 가입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종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며 전문 인력도 배치해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또한 주요 사찰의 개원법회와 행사 등은 동영상까지 서비스 하고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종도들에게 행사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사결과도 속보형식으로 바로 알려줘 홈페이지가 '제2의 총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판이다. 사이버 포교만큼은 전통종단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법륜종(총무원장 탄공)은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간에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행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홈페이지 활용이 늘면서 종단행사 참가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홍보강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종단 관계자는 말한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종헌종법, 소의경전, 종단사등 종단현황과 산하사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 자료실, 인터넷 사찰기행 등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동종과 법상종도 조만간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군소 종단들은 인력과 재원부족이란 공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종단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이버시대라는 사회적인 추세에 발맞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거나 재정비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많은 불자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민간인 법사 후원체계 마련하자

군법사를 대신해 부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민간인 법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 원력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후원 체계가 절실하다.

민간인 법사는 군법사를 대신해 종교행사를 주관하며 법당 관리 등 법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부대 출입에 제한이 없고 부대 내 포교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제도를 잘 몰라 개인 차원에서 군포교에 나서고 있는 재가법사가 많고 해당 부대 군법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를 중심으로 민

> **대부분 사재 털어 활동**
> **사찰 · 기업 · 단체 등과 결연 활성화해야**

간인 법사 제도를 알리며 군법사들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후원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군법당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재가 법사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 포교에 나서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찰이나 불자 기업, 불교 단체 등과 군법당, 민간인 성직자간의 결연을 통해 종교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자는 것.

조계종 포교사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9개팀, 290여명의 포교사들이 80여곳의 군법당에서 축적된 포교 노하우를 토대로 포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법사가 상주하거나 민간인 포교사가 월 1회 이상 활동하는 군법당은 전체의 70% 수준이다. 나머지 30%는 군법사가 월 1회 법회를 보거나 군종병이 큰스님 법문 등을 틀어주거나 자체적으로 법회를 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두식 기자

■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 · 민간인 법사 활동 현황

법당 명	소 속	평균법회 참석인원	활동 포교사	법회 지원일
호국 백일사	101여단	200명	이재욱, 임희웅	매주
호국 설악사	9사단 52포병대대	70명	송수진, 이순희, 정의근, 조현웅, 임희웅	월 2회(격주간)
호원 대원사	15보급대	50명	김금숙, 김동희, 김성현, 민병준, 백우현, 신효순, 이강범, 이명숙, 이승노, 이화인, 장관훈, 정병조	매주
호국사	5사단	50명	상 동	2, 4주
통일각	5사단	50명	상 동	2, 4주
연화사	52사단	40명	상 동	2, 4주
백호사	9200부대	50명	오중군, 최승문	2, 3주
취조사	1공수여단	50명	김국이	4주
불광사	30사단 신병교육대	100명	김영희, 이완영, 김정자, 황현정	월 1회
호국사	1사단 수색대대	50명	상 동	1주
승리사	1사단 12연대 3대대	70명	상 동	2주
호국 충절사	1사단 15연대 2대대	100명	이종하 강정기 이기성	월 3회
하나로 법당	25사단 71연대	50명	포교사단 서울경기 군4팀	매주
삼보정사	28사단 781연대	60명		1 3주
호국 연화사	54사단 210연대, 211연대, 수방사화학대	60명	김대수, 김성숙, 윤기중, 이정수, 전준근, 현영문	월 1~2회
용주사	5773부대	50명	상 동	월 1회
호국 비호사	30사단 90보병여단	200명	포교사단 서울경기 군8팀	매주
호국 신흥사	17전차대대	70명	상 동	2주
늘푸른법당	9사단 신병교육대	200명	상 동	2주
바라밀 법당	28사단 72연대 2대대	40명	김창영, 이명락	월 2회
일심정사	28사단 예하부대	10명	이명락	월 2회
용해사	25사단	70명	정진숙, 이명락	4주
통혜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0명	배효준, 이호진	1, 3주
상승사	9사단 28연대	100명	강원호, 황인보	1, 3주
호국 신남법당	76사단	200명	이재상	1주
용천사	76사단	80명	김대림	1주
	6916부대	40명	이춘필	월 2회
불심원	수기사 포병여단	100명	정갑선	1, 3주
호국 팔용사	9탄약창	100명	부산경남 보현팀	매주
흥국사	53사단 신병교육대	250명	부산경남 금샘팀	월 1회
천마사	포항 행병사단 전차대대	50명	대구경북 군포교1팀	1, 3주
동명사	501여단	40명	대구경북 군포교2팀	2, 3, 4주
창주사	제3탄약창	100명	대전충청 염불 포교팀	매주
호국 대원사	32사단 신병교육대	350명	대전충청 군포교1팀	월 1회
장영사	제6탄약창	120명	이성강	매주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용주사 외국인 무료 한글교실

"나-면이 아니라 라면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한글교실 강사로 나선 동탄중학교 강명숙 교사(사진 왼쪽 두번째)가 스리랑카인 우다야 씨에게 한글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오늘배운거 꼭 다시써오세요"

"여러분들 간식으로 가장 잘 먹는게 뭐지요" "나-면"

"나-면이 아니라 라면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라면" "라아면"

"자-아 오늘배운거 꼭 다시써오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합시다…."

"섹씨 손가락을 걸고 약속…." "하-하-하-"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7월 16일 오전 10시. 화성 용주사 효행교육관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니 한글을 배우고 있는 듯 했다. 분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닌데….

알고보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으로 시집온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시간이었다. 외국인들에게 어렵게만 여겨지는 한글을 가나다라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용주사 외국인 무료 한글교실의 수업 풍경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석한 학생은 어림잡아 10여명. 그러나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온 한국인 남편들이 있어 강의실은 북적거렸다.

그중에는 아이를 안은 채 분유를 먹이면서 한글을 배우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온지 한달밖에 안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근로자도 있었다. 하지만 한글을 마스터하겠다는 의지로 눈망울은 모두 초롱초롱 빛났다.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스리랑카, 태국, 중국 순이었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받아 한국으로 와서 화성 지역에 가정을 이루거나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의 젊은이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온지 2~4년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한국말은 귀에 익숙한데 그것을 읽고 쓰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포장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부셰만(30)씨는 "한글은 발음이 어렵고 비슷한 낱말도 많아 스리랑카어보다 정말 배우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하나를 배우면 금방 공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밝게 웃었다.



용주사 신도인 이종숙 강사가 'ㄱ ㄴ ㄷ ㄹ…' 한글 자음을 가르치고 있다.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등서 이주한 20~30대 노동자 · 주부 23명 참여

대학생 · 교사 11명 강사로 자원봉사 화성市 지원… 교육중에도 접수가능

한글을 배우면서 낯설기만 하던 대한민국이 이젠 조국이 되었다는 베트남 출신의 레티캄 로안(29)씨는 "지난주에 개강해 비록 한 번 밖에 수업을 안 받았지만 한두마디씩 배운 단어나 말이 남편과 얘기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한글교실이 열리는 매주 일요일이 무척 기다려진다"고 즐거워 했다.

곁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 김영관(38)씨도 "집에서 한글을 가끔 가르치지만 솔직히 체계적이지 못해 실력이 금방 늘지 않으며, 인근 대학교에 개설된 한글학교는 학기당 1백만원이 넘어 부담이 됐는데 이런 무료 교실이 생겨 용주사측에 감사한다"고 흐뭇해 했다.

지난 7월 9일 문을 연 용주사 외국인 한글교실은 화성 지역에 유독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부녀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화성시청의 지원으로 만들어 진 것.

대학생, 시청 공무원, 학원강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의 11명 강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요일마다 두 시간에 걸쳐 주부반, 하급반, 상급반 등 세 개 반으로 나눠 지도한다. 교재도 외국생활 경험이 풍부하며 현재 서울대에서 한국어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정경숙씨와 강사들이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연구해 수준별로 제작했다. 현재는 개강한지 1주일 밖에 안돼 수강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느라 공통된 교재로 한글 기초교육을 하고 있다.

interview 한글교실 기획 용주사 포교국장 **덕본 스님**

불교문화 체험 기회도 만들 것



"이번 한글교실은 화성시청의 지원아래 화성지역을 4개군으로 나눠 두개지역은 교회가, 한개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병점 지역은 용주사에서 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3년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용주사는 사찰로선 화성지역에서 처음이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용주사 외국인 한글교실을 총 기획한 포교국장 덕본 스님(사진)은 늦게 출발한 만큼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겠다고 타지역 한글교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제로 덕본 스님은 8월부터는 1시간 30분정도만 한글교육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다도 등 전통문화를 교육할 생각이다. 또한 문화프로그램도 처음에는 다도와 같은 실내교육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차츰 장소를 외부로 옮겨 지역내 사찰 답사 및 인근 성보박물관 탐방 등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시킬 복안도 강구중이다.

덕본 스님은 "시에서는 3개월정도의 한글교실 비용만을 지원하지만 용주사는 이와 상관없이 올해연말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한글교실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교재 3개월 걸쳐 수준별 자체 제작

한글교실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탄중학교 강명숙(44) 교사는 "어릴적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로 일했고, 현재 아들이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현지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문맹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한국생활은 정착을 힘들게 하고 특히 이주여성들에게는 자녀교육의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한글교실에는 현재 23명이 접수했다. 용주사는 교육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 접수 받는다. (031)234-0040

화성/글 =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눅눅한 장마철 PC관리 이렇게

장마철은 PC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키는 시즌이다. 여름철 눅눅한 습기로 인해 갑자기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찰 종무소나 불교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도 장마철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 습기 안 차도록
모든 가전제품이 그렇겠지만 컴퓨터도 습기에 민감하다. PC를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거나 조금 덥더라도 가끔 보일러를 가동해서 집안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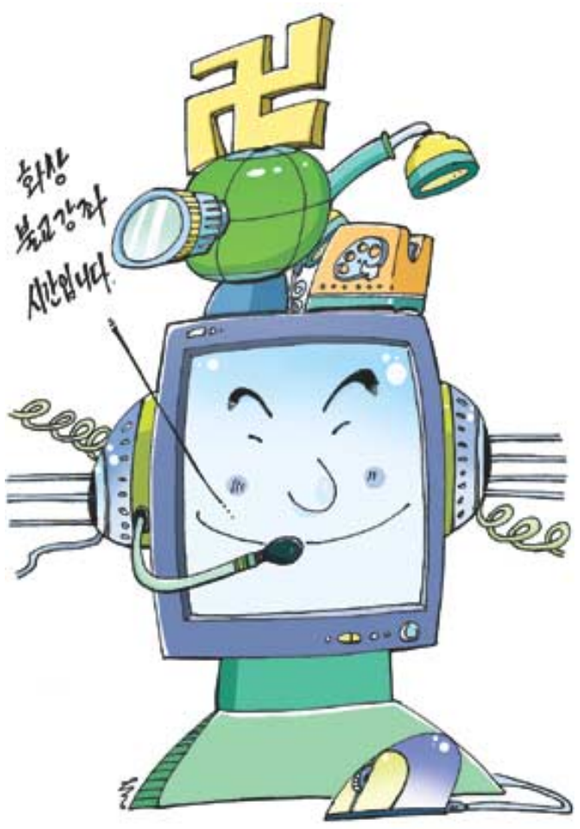
▷ 낙뢰 칠때
장마철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는 물론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아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전화선, 케이블 모뎀 등 컴퓨터와 연결된 모든 케이블도 뽑아두는 것이 낫다. 낙뢰가 치면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파워서플라이, VGA 카드, 메인보드 등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절전을 위해 전원 차단 장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 침수됐을때
컴퓨터가 물에 잠겼을 경우 물기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전원을 바로 켜서는 안된다.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깨끗한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늘진 곳에서 약 3~4일간 완전히 말린다. 그래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면 A/S를 받아야 한다.

▷ PC 및 주변기기 사용 요령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전압이 불규칙해 오작동의 빈도가 높다. 그러므로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도중에 저장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중간에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더라도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작업한 내용을 다시 불러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프린터는 열 발생이 높기 때문에 연속 출력 보다는 쉬엄쉬엄 출력하는 것이 좋다. 디스켓, CD/DVD 미디어, 휴대형 저장장치 등도 습기에 노출될 경우 누전이나 소중한 자료의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보관함에 방습제와 함께 보관한다.

사이버 무료 화상서비스

'오메가텐더' 서버없이 영상 주고 받는 기술 개발



개인 PC에 카메라 장착, 핸드폰 등과 연동
5명 동시 접속 법회 가능 사이버 신행 도구로
'불자 버전' 출시 예정 "포교에 큰 역할" 기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호국 백마사 정행 주지군법사는 틈틈이 청년 신도들과 화상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신행상담을 한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 마치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도들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아도 불교 궁금증과 사찰의 근황을 알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최근 동영상 압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 PC에서 화상 통화, 화상 회의 등이 가능해져 사이버 신행의 보조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에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카메라만 장착하면 누구나 무료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PDA, 휴대전화 등과 연동이 가능해 향후 폭발적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화상 시스템은 서버 등 장비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메가텐더(대표이사 김상용 www.omegatender.com)가 저용량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화상시스템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가정에서 개인 PC를 통해 화상 통화가 가능해졌다.

오메가텐더는 현재 장애우를 위한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고 향후 불자들을 위한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장애우 버전의 화상 시스템은 신체가 불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장애우와 학교 선생님을 직접 연결해 화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우를 둔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다.

화상 시스템은 스님과 신도 개인은 물론 최대 5명까지 동시에 화상을 통해 불교 교리 강좌, 법문, 신도회 임원간의 화상 회의 등이 가능하다. 또한 법회시에는 설법하는 스님 앞에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문을 생중계할 수 있어 향후 신행활동의 여러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장하용 교수는 "화상 시스템은 다자간 화상통화, 화상 회의, 신행 상담, 화상 교육, 실시간 방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화상 시스템을 통해 스님과 신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행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면 불교 포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문화콘텐츠교육센터' 9월 오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오는 문화콘텐츠 핵심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9월 서울 삼성동에 문화콘텐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설립한다.

교육센터는 개설 첫 과정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련 기업 근무자, 프리랜서, 시나리오 작가 등을 대상으로 '기획과정'과 '창작과정' 등을 열다. 교육은 삼성동 벽제아트센터에서 이뤄지며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전과정이 현장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문화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많은 실무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인력양성팀 박병호 대리(02-2016-4123, jackone@kocca.or.kr)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1

위치따라 감정 분위기 달라

조명

조명은 피사체에 빛을 비추는 행위를 말한다. 조명은 자연광과 인공광을 모두 포함하며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다. 인물 촬영시 감정 묘사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등 영상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명에 따라 공간감과 재질감, 원근감, 부피감, 입체감 등이 달라진다.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 실외와 달리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조명만 있으면 시간과 기후를 자유롭게 표한 할수 있으며 장시간 촬영도 가능하다.

조명등은 백열전구와 할로겐전구를 주로 사용한다. 백열전구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명이다.

백열전구는 색상이 고르게 나타나고 색온도가 일정해 작업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할로겐전구는 할로겐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응용한 텅스텐전구로 최근 많이 사용된다. 백열전구보다 비싸지만 수명이 길다.

조명의 종류로는 스포트(spot) 라이트와 무빙(moving) 라이트, 파(par) 라이트와 스트로브(strobe), 그리고 캠포더에 붙어 있는 일체형 라이트 등이 있다.

스포트 라이트는 무대 위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연기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조명이며 파 라이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명이다. 스트로브는 카메라 플래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이며 무빙 라이트는 360도 회전으로 율동을 줄 수도 있고 환상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일체형 라이트는 캠코더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조명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아 A/C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조명은 놓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서 귀신이 등장할때는 아래에서 위로 조명을 비추는데 이것은 귀신을 더욱 공포스럽게 보이기 위함이다.

피사체의 조도와 명도 분활에 의한 분위기나 느낌을 통(tone)이라고 한다. 화면 톤에 따른 조명의 위치는 크게 로우키(low key), 미디엄키(medium key), 플렛키(flat key), 하이키(high key), 소프트키(soft key), 하드키(hard key) 등이 있다.

로우키는 조도를 낮추어 밝은 부분이 조금 밖에 없는 상태로 극적인 장면과 등장인물의 내면을 심리를 느끼게 해 준다.

미디엄키는 밝은 부분과 중간부분, 어두운 부분의 면적을 비슷하게 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플렛키는 밝은부분과 어두운부분의 면적보다 중간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림자가 적어 정적인 느낌과 격조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하이키는 전반적으로 밝은 부분을 많이 사용하여 상쾌하고 밝은 표현을 하며 소프트키는 가장 어두운부분과 밝은부분을 가능한 적게하고 중간 부분을 많이 사용해 은근함, 온후함, 시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하드키는 붉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주로 사용하여 피사체의 배경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에 효과적이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천연 물방울 호박합장주



사은품 : 고급합장주 주머니 증정
알 크기 : 8~12mm
(천연호박인 관계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음)
사랑과 창조 그리고 지혜의 보석으로 예부터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던 것이 바로 호박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웃음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가격: 55,000원 → 35,000원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 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약사여래정화수약함

온갖질병의 고통을 소멸하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리라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 마치고 출시!

만수 실리 보살아.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통받는자가 있거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든자를 위해서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병자에게 약을 마시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것이며 죽을병은 구족해지고 병없이 오래살게 할 것이다. <약사경에서>

건강회복을기원하는선물로!
연꽃처럼다시피어나는건강!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하는 불광사에서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약함을 제작해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게 큰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정화수약함은 순금99.9% 금니로 제작하고 약함내부에는 온갖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장수하는 부처님 반장을 넣고 정화수약함 뚜껑에는 뱃속에 있는 악귀와잡귀를 물리치고 병고를 없애는 보발수진언을 넣었으며 뚜껑을 열면 정화수 잔이 들어있다.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영구히 사용할수있게 제작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현재 투병중인 분께는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일간 특별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선물로 인기다.

가격135,000원(현금 또는 신용카드 분할가)
규격 : 높이 20㎝×폭20㎝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49재, 천도재, 각종시식 접수 및 문의

산골암자 108분 나한 기도도량 전문의식으로 49재, 천도재, 각종시식을 여법하게 해드리는 도량 49재 및 천도재후 조상현몽과 모든 가피가 따른 천도재 전문도량입니다
접수 및 문의전화 011-486-1275

불교의식 일체를 봉행해 드립니다

낙성식, 점안식, 49재, 천도재,용왕재,방생,시달림, 작법, 천수바라 등등
염불당 011-527-543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	사십구재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점안식

1인스님 15만원
2인스님 25만원
3인스님 35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드립니다
부산경남지역만됨
010-7747-5222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氣치료사 수강생모집

한 선 원
(마음수련원)
011-9526-0596

권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연화사 대웅전 신축불사를 부처님 은덕과 사부대중 원력으로 벽돌1장 세멘트 1포대 불사로 회향하게될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국민은행 638102-04-034244 조명옥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화리1389-6 정진합장
017-297-4097

사무실 여직원 구함

PC사용 가능자
054)834-6934

백중제 지내주실 스님한분을 모십니다

▷일자 8월6일, 8월8일(2회)
019-9373-3535

기도정진할 비구 및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1-9803-6301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30-40세 비구니 스님)
055)271-5753
010-3193-6433

사찰(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3222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주 상계 2동 달마선원
02)952-8131

공양주보살님 사무직 여직원 구합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법사찰 중 염불스님이 필요한 大사찰은 전화주세요
054) 433-6315
010-4811-6787

평생 함께 하실 부전스님,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태고종스님 환영)
극락사 납골당 공원
018-427-2256

경북의성에 위치한 사찰을 맡아서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바리춤 전수)

30대 후반에서 40대
011-521-4233

조용한 토굴이나 암자 기도정진 할 수 있는곳 연락바랍니다

50대 비구
019-488-6968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 분당
010-7120-5266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55~60세)
▷강원도 양양 불탑사
010-4573-8316
033)671-7753

산사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 무량사)
011-363-9790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2)877-01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앞 강남구청역사거리
010-5541-6568
02)458-1108(주간만가능)

깊은산 명산에서 공양주모십니다

011-696-8500

대구시내사찰

▷ 부전스님구함
011-9372-2778

친환경 한지 영가 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 동일.
그을음, 냄새 전혀 없습니다.
도심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실용신안 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054)972-9933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윤달든 해 조상님 산소 처방 안내

산소이장, 잔듸소멸, 쥐, 뱀, 여우, 두더지, 벌레 구멍방지 물이 고였거나, 흙이 나쁜 산소를 명당터로 바꿔지는 책자가 필요하신분은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7324-511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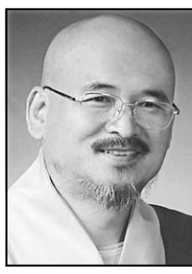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 /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탈종공고

- 사찰명 : 지장사
- 주 소 : 경북 영천시 문외동159-2
- 제2창건주 : 현주지-최돌자(법명 일행)
- 신도일동 대표 : 박관능심, 김법계심, 손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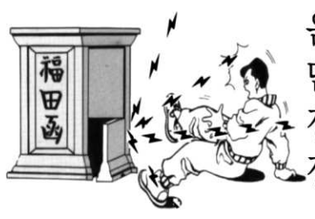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조상영가천도

시부모 영가 | 친정부모 영가 | 태아 영가 | 각종질병 사고로 인한 | 사별한 남편부인 | 조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가족법회 법사 · 거사 법회 자녀교육상담

체계있게 경전을 독송한 후 천도합니다. 가족에게는 삼재팔난 업장소멸하여 소원성취 됩니다. 대불정 능엄신주·우리말·천수경·지장경·영가천도책을 열심히 독송기도 하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체계있게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독송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마산 245-2662 안성 010-9242-035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위치 : 경기(경계)	• 위치 : 경기 화성
• 법당 :	• 법당 : 18평	• 건물 : 수십년된 기와집으로 즉시 개조 사찰사용 가능
• 요사 : 120평	• 요사 : 25평	
• 부지 : 50평	• 부지 : 26,000평	• 부지 : 370평
• 가액 : 7억8천	• 가액 : 15억	• 가액 : 3억7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불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강원도 산수 좋은 곳 사찰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17-420-2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인접서창 신도지
• 대지 : 60평
• 건물 1층 32평, 2층 29평 삼각 4평(단청필) 신축한지 3년(법당시설 A급)
• 가액: 2억 6천만원(대출 9천포함) 아파트 대단지 인구 10만 육박 주차시설편리
*꼭 필요하신 스님분만 전화바랍

011-868-599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정선, 소금강
• 화남8경,용마소,종유굴,화암신약수
• 빼어난 경관 명당1필지에 9470평 (임 5370평, 전 4100평) ※관리지역
※사찰,펜션,방가로,콘도, 휴양지로 최적지
※진입로 잘 되어 있음

017-331-15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 위치 : 서울 포교당
• 부지 : 650평	• 면적 : 36평
• 법당 : 15평	• 전세 : 5500만원
• 요사 : 30평	• 시설비 약간
• 가액 : 1억 6천	• 3층건물 중 3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가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10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절충가능)
• 주변 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이접 요충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위치	부지	가액
• 밀양	약1000평	2억8천
• 서울	약 90평	4억2천
• 남양주시	약1800평	17억
• 부산	4층건물 (뒷산,약수터 도심포교최적)	1억 5천 (1억5천 융자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전세)

• 위치 : 경북 구미시 소재	• 위치: 경북 포항시
• 부지 : 120평	• 부지 : 200평
• 법당 : 70평(3층), 산신각 70평(2층)	• 법당 : 40평(삼포,목조,단청)
• 종무소 : 70평 (1층) 공양간 ; 30평(지하)	• 요사 : 40평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 전세 1억	• 가액 : 전세 3억원
• 특징 : 도심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 사찰임	• 특징 : 신도시에 위치한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도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3천만원

011-511-2609
064)748-200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만리
• 법당16평, 요사채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동구 성내2동
• 평수 : 100평
• 법당, 방3, 창고1, 후원1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 월 150만원(관리비 별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292-1090

사찰(급)안내

• 영천-건천 IC에서 20분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 가액: 1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566-1번지외 6필지
• 총평수 : 1,346평, 법당 : 14평, 요사채 : 25명 농지전용허가필 (지적 : 400평, 대지 : 94평)
• 가액 : 2억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청동 삼존불 봉안
※ 경관이 수려하며 계곡인접

연락처 : 033)433-7256
010-4480-0507/011-349-1586

사찰 및 요양원, 양로원 최적지 (서울)

• 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대지 182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엘리베이터, 정자, 주차시설
※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정이전 관계로 안내함

02)3216-0572 / 3216-9011
011-441-19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8-543-09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700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3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73-5117

황금알땅 종교부지

• 5166평
• 최고명당, 화장터옆, 납골당터
•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사유지, 한필지
• 형질변경 완료, 토목공사중

경기도 광주 사찰

• 대지 290평 총사용 400평
• 대웅전, 요사채 110평 새건물
•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011-9109-3660/011-9228-2345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창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 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296평
• 가액 : 5억 왕단상,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최고의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구 범1동 진시장 앞
• 평수 20여평방1,법당,공양간 큰욕실 겸 화장실(실내)
• 약사여래불 소불 100불 봉안,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27만원 총1300만원(시설비포함)

018-293-70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863-6661

명당(부귀영화지지)터 사찰(납골당)적지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도로양호)
• 면적: 산 37,000평 전 1,000평 대지 200평
• 교통: 고령읍에서 15분거리 대구에서 40분
• 가액: 8억원

010-4573-7277(지산선생)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하천부지 20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4평(복재), 산신당10평 위패당 및 납골당 85평
• 가액:16억 5천만원

031)543-6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5일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시설하지 약 1년 된 주지실, 법당 지대방, 각 에어컨, 난방완비
• 보증금 :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5천 소유(2천 3백 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금남로5가 (충장로5가)
• 3층 중 2,3층 사용
• 평수: 총 40평
• 2, 3층 법당으로 이루어짐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163-474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평당 80만원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017-987-71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평리동 대로변
• 평수: 45평(3층건물 2층)
• 법당 25평,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 친견실, 침실, 공양간, 음향시설, 단청 에어컨, 기타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대작 불사후 이전한 포교원임

010-9511-496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시내 근교
• 대지 : 90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511-7705

구합니다

사찰 및 암자 구합니다 (전세나 월세)
▷지역관계없음

010-8828-30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을향, 냉,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9269-844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동 (구 늘봄공원 앞)
• 총평수 : 약35평(5층중4층)
• 삼존불,각단탱화,기타 포교 최적지(간선 도로변)
• 보증금 10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스님병환으로 급 양도,즉시법회 가능

011-871-00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산동
• 3층건물 1층
• 법당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4735-20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 건물 65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원불 108불, 신중탱화 (법당기본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별도

016-528-3736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120평. 2층 24평
• 슬라브 2층 24평 법당, 요사채1, 산신각
• 산세수려한 산자락아래 비구니기도터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사찰안내

• 위치: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600평
• 고건물 대웅전(25평)
• 요사채 약40평
• 가액: 4억 (절충可) (전세도 가능함)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30-1808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역에서 10분거리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16만원)
• 시설비-사는동안 무료

042)257-6733
011)428-280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성주읍
• 대지면적: 2300평 대용면적: 300평 황토주택건평: 35평
• 전원주택지나 사찰로 적합함
• 가액: 5억 2천만원

010-6307-3111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35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공양실, 선방, 삼성각, 석불, 석탑 총건물6동 기와단청
• 가액: 2억(절충가)

016-9660-13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전체 2천평 임법당(20평) 요사채 산신각(전통건축)
• 산세좋고, 전기, 수도, 주차시설 완비

016-9255-8090

시골촌집안내

• 위치 : 경남 거재군 일운면 거재대학 밑에 바닷가 바닷가 전망좋음
• 평수 : 117평
• 가액 : 1억 5백만원

011-594-1526

포교당안내

• 위치 : 전주시내 고급아파트 밀집지역 3층건물중 2층
• 평수: 35평
• 법당, 스님방, 공양간, 화장실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063)271-7688
010-3038-678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현대식 건물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 법당, 요사채, 용궁,전답, 기치료,경락, 지압, 민간요법, 양봉기술, 특기를 가진 스님, 보살님 신의와 믿음으로 인연바람 청정 수월 약사도량 임
• 전세 : 2,200만원

018-406-307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15분거리 큰도로변에서 5분 나주역까지 7분
• 대지: 400평
• 법당: 18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청주시내 충북대학교 약 200M 시장 약 200M 공단오거리 약 200M
• 대지 50평
1층 요사, 방4, 주방, 화장실, 거실
2층 요사, 방3, 주방, 화장실, 거실
3층 법당, 지하창고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 (상가 건물 2층)
• 총평 : 40평,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60 (큰방 1개, 거실, 화장실 보일러) 10년천통

사찰,암자,포교당,운영, 각종행사 상담합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010-6460-1316

영화에서 패션까지 불교로 다 통하네…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문화의 만남' 하계 워크숍

불교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얼마만큼의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까. 첨단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언뜻 생각하기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교로부터 연원한 문화현상은 일상어 · 민담 · 음식 · 의복 · 음악 · 무용 · 서도 · 건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이처럼 다양한 불교문화를 담론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불교와 문화의 만남' 을 주제로 제4회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을 7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하동 쌍계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쌍계사 강주 월호 스님의 '영화 속 불교 여행' 원광대 김수천 교수의 '사경과 서예'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현대불교와 禪조형예술' 한성대 이기향 교수의 '불교와 패션' 등을 포함해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주목을 받은 논문 3편을 소개한다.



윤양호 교수 현대불교와 선 조형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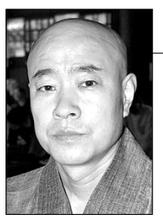
선 조형예술 붐 일으킨 이브 클라인
20세기초 유럽사회 계몽운동 이론적 근거 돼

원광대 윤양호 교수는 '현대불교와 禪(선)조형예술' 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교사상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해 낸 20세기 초 선조형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윤 교수는 '예술이 곧 수행이다'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 유럽의 선조형예술 붐을 일으킨 프랑스의 선조형예술의 대부 이브 클라인(1928~1962)의 불교적 예술관을 중심으로 선조형예술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클라인은 불교의 공사상을 '공간적 텅 빔' 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불교와 예술을 접목시켰으며 텅 빈 공간을 우주만물의 생명적 근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클라인의 사상은 이후 제2세대 선조형예술가 격인 요셉 보이스(1921~1986)와 안토니 따피에스(1923~현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세기 초 유럽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 계몽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월호 스님 '영화 속 불교 여행'

'달마야 놀자' 속 '밑빠진 독 채우기'
'참다운 지혜는 평상심에서 나와' 상징



쌍계사 강주 월호 스님은 '영화 속 불교 여행'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화의 소재와 내용을 불교적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산사에 피신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스님들 간의 해프닝을 다룬 영화 '달마야 놀자' . 월호 스님은 "조직폭력배를 감싸주는 큰스님과 그들을 산사에서 쫓아내려는 젊은 스님들 사이의 갈등적 구조는 '인간의 본래면목은 선한가 악한가' 를 유추해 볼 수는 대목"이라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천당과 지옥이 존재하며 나와 남이 갈라지고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밑 빠진 독을 연못에 던져 독에 물을 가득 채운 영화 속 큰스님의 지혜(발상의 전환)를 통해 참다운 지혜는 궁리분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라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천 교수 '사경과 서예'

서예 대중화 실패 원인은 '공모전'
사경 서사재료 · 표현의 다양성에 주목

'사경(寫經)과 서예(書藝)' 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원광대 김수천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서예의 대중화 방안을 사경에서 찾는데 주력했다.

김 교수는 △사경의 양식적 측면 △사경의 정신적 측면 △사경의 역사 등을 제시하며 사경문화 속에 담겨진 진정한 서예정신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예의 대중화 실패 원인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조선미술전람회로부터 출발된 각종 서예 공모전의 폐단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모전은 전문작가의 등용문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용 서예로만 치달은 나머지 서예의 진로를 축소시켜 서예인들의 의식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대중들을 등돌리 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경은 먹(黑)외에 금니(金泥), 은니(銀泥), 자혈(刺血) 등을 사용했고 종이와 비단에 쓴 사경 외에도 판경, 석경, 와경, 옥경 등이 전한다"며 "사경은 글씨와 더불어 문양과 변상도를 곁들인 장식경이 많으며 이들은 모두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경의 서사재료와 표현의 다양성은 서예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 쌍계사=노병철 기자

"삼국유사는 대안史書 결정판"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대회

中 섬서대 빠이건싱 교수 주장

"<삼국유사>는 7세기 무렵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교류에 대한 새로운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중국사서에 결여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일연학연구소(소장 상인) 주최로 7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를 주제로 열린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섬서사범대 빠이건싱(裴根興) 교수(사진)는 <삼국유사>에 기술된 나당관계를 고증을 통해 검토했다.

특히 빠이건싱 교수는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선덕왕지기삼사조(善德王知己三事條)를 중심으로 양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중층적 접근을 시도했다.

빠이건싱 교수는 <삼국유사>권2의 '표훈대덕조' 와 중국의 사서 <당대음다풍기(唐代飮茶風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7세기 무렵 신라에 차(茶)를 보급한 것은 도당 유학승이었다고 밝혔다.



빠이건싱 교수는 "선덕왕 시기에 신라는 차를 재빠이건싱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며 당나라 '안사의 난' 이 일어난 직후 도당 유학승들에 의해 신라에 차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며 "이때 신라에 보급된 차는 대부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한 것 이였다"고 말했다.

빠이건싱 교수는 또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내용 중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는 것은 당나라 왕이 내가 빠이건싱우자가 없는 것을 희롱한 것' 이라고 말한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만 실린 것은 훗날 당나라에 대한 반감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빠이건싱 교수는 "<삼국유사의>는 편년체나 기사본말체 등의 일반적인 역사서술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설화나 구전을 통해 상층 기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는 정통사서에서 내세운 원리를 대등한 수준이나 발전된 다른 원리로 바꾸고자한 대안사서의 결정판이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7>

홍수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전선의 상승작용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은 홍수와 산사태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나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자들의 보살행이 필요한 시기다.

낙하 운동이나 천체 운동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만 일기예보는 매우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공기의 분자 운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기분자의 운동이 압력, 온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지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전문가는 지구 곳곳에 설치된 기상측정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공기의 운동을 결정하는 미분 방정식을 푼다. 풀어야 하는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수퍼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기상 현상까지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는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일기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다. 태백산맥이 이어져 있는 강원도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와 동해의 해상 조건이 마주치는 곳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홍수라니…
자연 재앙은 인류 발전의 부산물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상력이 큰 시인들은 홍수에 관련된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또 인더스-갠지스 강, 황허-양자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강 유역이 모두 인류의 문화가 발상한 곳이므로 인류는 홍수와 싸우기도 하고, 적응도 해가며 살아왔다. 통치자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홍수를 예측하고 이를 물리칠 능력을 일반대중들에게 보여 줘야만 했을 것이다. 중국 주나라 역시 물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한 왕이 포진했던 고대국가다. 물을 다루는 솜씨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신화로 보충했다. 기독교의 천재들은 노아의 홍수 신화로부터 인류의 조상을 분류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한 자 만이 번성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냈다.

홍수는 인간의 재앙을 가져다 줬지만 토목공사라는 기술의 발전의 동기를 가져다 줬다. 댐과 같은 큰 공사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하학이 발전했다. 기하학의 발전은 17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뉴턴의 만유인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도 홍수를 역류시켜 사람을 구함으로써 우루벨라 캇사파를 무릎 꿇게 한 내용이 나온다. 세 가지 피하고 싶은 재난 즉 수재, 화재 그리고 풍재에서도 홍수는 피하고 싶은 재난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홍수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과 같은 재앙이 더 크다고 설하셨다.

과학기술이 자연을 지배하는 시대에 홍수 피해를 보면서 자연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 더욱이 자연 재앙조차도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부산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자연 기상을 바꾸고 인류가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자연 기상을 더욱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마음의 재앙을 제어하는 방법이 더 큰 재앙을 막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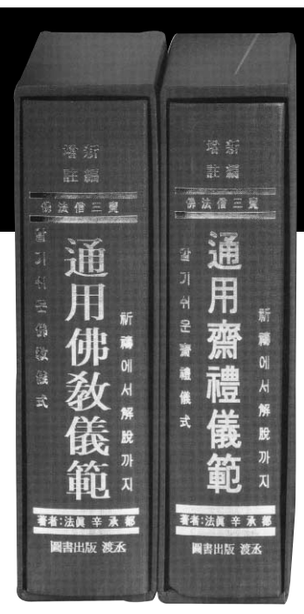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제2장	예 경 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 생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제9장	이 운 편	제10장	수 계 편	제11장	고 사 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제2장	장 의 편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일주문



청년여름마당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5일 남원 실상사와 지리산 등지에서 '청년여름마당-산내야 뭐하니'를 개최한다. (02)576-1886



'2006 피스로드' 개최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은 8월 7~12일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평화캠프인 '2006 피스로드(Peace Road)'를 개최한다.



효행상 시상식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경내에서 우란분절을 맞아 효자 효부를 대상으로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교의 대중화' 주제 법문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7월 29일 오후 6시 서울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32-1206



큰스님 초청 백중기도법회

성남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큰스님을 초청해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31)755-0329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 개원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장을 맡아 7월 22일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 개원식을 열었다.



'마이 리더스 클럽' 개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은 '53도 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라는 주제로 재가불자 지도자양성과정 마이 리더스 클럽을 개설했다.



2006 한국교수불자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용표 회장은 8월 17~19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200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연다.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회원들과 함께 중국 구화산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39-1080

인사

건국대학교 7월 20일 성태용 교수를 문과대학장으로, 서혜숙 교수를 인문과학대학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사회지도층 불자 네트워크 구성할 것"

불교인재개발원 초대 이사장 허경만씨



"너무 큰 직책을 맡게 돼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불교인재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설립대회에서 초대 이사장을 맡은 허경만 前 국회부의장(69·사진). 허경만 이사장은 불교인재개발이라는 중책에서 오는 무게감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직접 느꼈던 불교인재와 관련한 체감온도를 묻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각종 선거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불자들의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자 후보들이 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불자임을 숨기거나 불교를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허경만 이사장은 1963년 고시사법과에 합격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10~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상공위원회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불교인재 기근 현상을 목도한 것이다.

"이제 사회 전면에 노출되지 않은 불자들을 찾아 낼 생각입니다. 그들을 조직화한 뒤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응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재 발굴 못지않게 인재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드나들었던 허경만 이사장은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불교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에게 받은 허봉(虛峯).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 때문에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는 허경만 이사장은 "빚은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허경만 이사장은 현재 순천대 석좌교수이며, 저서로는 <밝은 내일> <민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노인전문병원 건립 불사 추진

선서화각전 개최한 우학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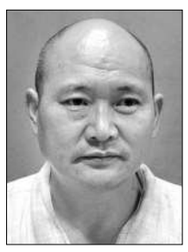
"작품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무의탁노인 요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KBS대구방송국 제2전시실에서 선서화각전을 개최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사진)은 14일 열린 개관식에서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의 마음을 이같이 밝혔다. 선서화각전을 통해 "인생은 연극"이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 우학 스님은 이번 선서화각전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한 선화와 전각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2005년 11월에 착공한 무의탁노인 요양전문병원 무량수전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00여 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 3층 연면적 2600여 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오는 9월 낙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가진것 모두 주기 운동 확산 앞장

부산생명나눔실천 본부장 원범 스님



"헌 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분이 써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 · 사진)은 장기기증서에 서명한 후 "도반과 지인들에게 서명운동 하느라 오늘에야 내 장기기증서에 서명을 마쳤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원범 스님은 "스님들과 달리 불자들은 사후 매장이라는 틀에 묶여 장기기증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자고 일어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옷이라 생각한다면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원범 스님은 "여러 사람의 피와 살, 무엇보다 마음이 함께하는 일이라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은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7월 20일 종로구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에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열고 개소식을 봉행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지난 6월 1일 종로구로부터 위탁받은 첫 센터다. 상담,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02)764-3524

청주청원불교련, 불자의원에 감사패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7월 19일 보현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청주시의회 남동우 의장을 비롯한 8명의 불자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9월 중 개최할 직지 찾기 유등문화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부산 공덕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7월 13일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사에서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공덕원 법당에 봉안하고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효선 스님은 "이 사리를 보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참 나를 찾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무료진료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석봉)은 7월 20일 의정부시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경기도 제2청사 경기의료봉사단과 연계한 이번 진료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 120여 명에게 건강진료, 약처방으로 진행됐다.



제2회 일연문학상 고형렬 시인 수상…청소년 문학공모전 송인환군 대상

군위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은 일연선사 탄신 800돌을 맞는 올해 제2회 일연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고형렬(52 · 사진)씨를 선정했다. 고형렬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밤 미시령>은 담백하게 읽히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수사로 우리문학의 본류라 할 수 있는 그리움의 정서를 개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이다.

신경림, 나태주, 이하석, 김수복 시인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7월 15일 본심에 오른 4명의 후보자(고형렬, 이경림, 이준관, 최동호)가 모두 뛰어난 감성으로 우리 문학의 한 기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고형렬씨의 최근 시 작업이 새롭게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가 모아져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형렬 시인은 1979년 '현대문학' 시 추천으로 등단해 계간지 <시평>편집을 맡고 있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청소년문학공모전에서 서울자양고등학교 3학년 송인환군이 대상을 차지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7시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대도무문 병술년 쌍춘쌍오 쌍88일 백중대제로 천년을 엮어갈 계룡도읍천하대명산 대운맞이
봉암산 봉암리 서출동유 비산비야 도량에서 도통건자 고천제 및 육경신도통 견우직녀 칠성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도인지망생들과 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날 법회에는 신선이 되는 운모란선식복용의식도봉행 운모단을 복용하시면 팔맥이 살아나고 환골탈퇴하여 검은 머리가 희여지고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 마장을 소멸하며 경신일 정오에 도인들은 서출동유로 흐르는 지장수로 복용하면 마장도 침범치 못하고 도통견성하여 신선에 길로 들어가는 비법인 것이다.

● 달마도법의 태식법이란
(달마를 구입하시어 일체고액을 소멸하시고 만사형통하소서)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업장을 벗기는 대제로 참회하여 업장소멸 하시여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혈압,당뇨,관절,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기공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빠른 비법 혈당법과 예단경만인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당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예단이란 상대방의 인연을 끊고 신랑집에 와서 정붙이고 살으라는 것이 예단인 것이다.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병술년 음 7월 6일 백중달에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도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야만이 도통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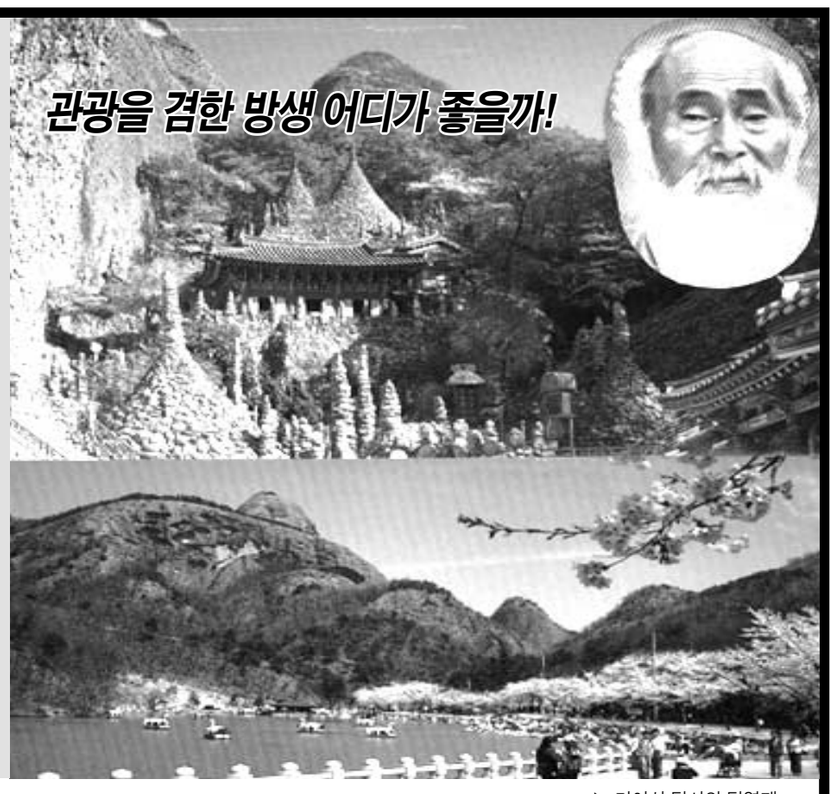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 양 7월 30일에 단 경신일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 입제 : 양력 2006년 7월 29일(음, 7월 5일 토)(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7월 30일(음, 7월 6일 일)
02)821-6622,821-7767,016-239-3110
● 동참비 :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 출발시간 : 7월 30일 오전 8시 30분 본회 앞에서 출발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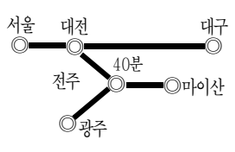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불자 세상보기

박 학 길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폭우도 잘 쓰면 에너지

농경지 반이 물에 잠겨 농작물이 죽어가고, 수많은 이재민과 수해로 온통 물난리다.

몇몇 전문가 들이 나와서 절개지 공사를 잘못했다느니 공무원이 공사 감리를 잘못했느니 난개발을 했느니 하면서 댐을 만들어라 감시감독을 잘하라 목청을 높이지만 이 또한 성급한 처방이 대부분이며 위험한 처방이 주를 이룬다.

최근의 처방을 보면 절개지 토목공사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고, 이들 공사를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비난하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정신 차린다고 이 일이 해결 되겠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 단체의 반발로 댐 건설을 미룬 것이 문제니 당장 댐건설을 하자고 한다. 어린아이 장난같은 소리 들이다. 큰 댐을 건설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하면 과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문제점이 해결될까. 땜질식의 졸속한 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우선 절개방식의 토목공사는 우리나라같이 작은 산이 수없이 구불구불 이어져 반복되는 지형지세에는 근본적이다. 때문에 물의 자연스러운 분산과 흐름에 저항하는 공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마지막 선택할 공법이지 아무데나 적용될 묘약이 아니다.

특히 강원도 산악 지대와 같은 곳에 도로 및 하천을 건설할 때 자연의 등고선에 저항하는 절개지 공법을 채택하는 자체가 재앙을 가져오는 일차적 원인이다. 절개지를 만들고 직선적 저항형 옹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흐르려는 물길 즉, 에너지의 통로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면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를 남길 뿐이다. 큰 댐을 만드는 경우도 작은 수로를 죽여 버리고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켜 계류에 의존해 온 생태계는 병들어 갈 것이다. 집중된 에너지가 잘못 경영될 때는 큰 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단편적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거시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이런 문제점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분 증발량의 증가와 국가 간 지역 간 열에너지 및 엔트로피 집중화 현상 탓이다. 흐르는 기류의 불균형 등 대립 형질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계면에서 공기가 순간적인 이동과 진공효과가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폭우 강풍이 수반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경인 지방에서 석유 화학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집중 폭우와 강우 관리에 대한 대책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소규모 댐이나 저수 공간을 많이 만들어 에너지를 분산하면 물도 관리될 뿐 아니라 국토를 냉각시켜 생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순기능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생태복원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이 경영하던 사형 하천을 복원시켜 자연수계를 가능한 복원시키자.

절개지 공법을 가능한 선택하지 말고 바람과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선형의 고속도로는 지양하자. 등고선을 따르는 작은 지방도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테라스 형이나 교량형의 공법을 선택하여 인위적 법면을 만들지 말자.

하늘이 준 가장 고귀한 자연 에너지 물을 투쟁의 대상이나 고통의 대상으로 보지말자.

이미 인류는 에너지 전쟁 시대에 들어왔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소규모 수력발전 및 열 교환 대체 에너지로 저수된 물을 활용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난리 대책을 세우면 폭우야 말로 하늘이 이 땅에 내린 가장 값진 영원한 자연 에너지라는 보물이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얼마전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사회국장직을 비구니스님에게 맡긴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약이 크게 진작된데 힘입어 종단에서도 몇 해 전 총무원의 문화부장과 국장 또는 상임감찰에 비구니스님이 기용된 적은 있었으나 교구본사의 국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변화다. 이는 불교계에서도 이제 비구니스님들의 능력과 활약상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실 정도였다. 포교 · 교육 · 환경수호 · 복지 · 방송 활동 등에서 비구스님들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엔 그들을 능가하는 구도심과 향학열 사찰운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개혁종단출범 이후 점점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본사 비구니국장 임명

그동안 출가자 절반을 구성하는 비구니스님들은 사실상 종단내에서 주눅이 들어 살았으며 발언권도 없다시피 했다. 아직도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무대는 여전히 좁다. 그것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팔경계법에 나타나 있는 '백세 비구니도 십세 비구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는 성차별적 대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쉽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성 특유의 여린 감수성을 경계한 것일 뿐, 결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한계이며 자연적 환경의 문제였을 뿐인 것이다. 만물평등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중요한 근본정신이 아니던가.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불교인답게 불교가 왜 사회적인 위상이나 호응도가 낮고 타종교에 밀리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불교의 근본정신을 회복해 교단내외에 뿌리박아야 한다. 왜곡되고 실속없는 일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불교가 사는 진정한 개혁의 길이다.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비구니스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펴도록 자리를 과감하게 더 넓혀야 한다. 차제에 동화사뿐 아니라 다른 본사에서도 비구니스님들에게 소임을 맡겼으면 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교육부총리의 자질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위정자는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취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7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어고 지원자의 지역 제한 방침에 대해 "외고 전체가 평준화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꼭 2008학년도부터 실시돼야 하는지는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고 지원 제한을 2010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6월 19일 발표한 정책의 잘못을 한 달 만에 사실상 시인했을 뿐 아니라, 김 내정자 스스로 7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외고 지원 제한방침은 유예할 일이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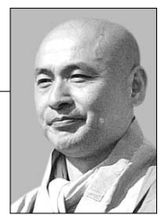
그런데도 김 내정자는 교육정책 대부분을 규제 위주로 일관한 전임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내정자는 대학입시에서의 3불(不)정책 유지,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확대 반대 등 여전히 세계의 추세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고수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병적기록표에 중졸 학력으로 기록된 사실, 두 딸의 외고 편입학 과정 등에 대한 의혹 등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불자회 회장을 역임한 불자답게 일각에서 도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명징하게 밝혀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 김주일(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자연이 살아있는 중국 명산 기행

깨끗한 산 · 물 가꾸기 본받아야



지난 6월24일부터 30일까지 환경산악모임 회원들 22명과 주자학의 발생지인 중국 무위산을 비롯해 황산 삼청산을 다녀왔다. 등산을 좋아하는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환경산악모임 결성 10주년을 겸한 실로 뜻 깊은 만행이었다.

상해는 서울의 기온과 다르지 않다고 하던데 습도가 많은 탓일까 끈적끈적한 느낌이었다. 수평지형으로 작은 언덕조차 보이지 않는 밋밋함을 가진, 산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산에 대한 그리움이 더한 것 같다.

무위산 명물 천유봉(750m). 한 개의 바위로 이뤄진 천유봉은 바위몸체에 돌을 쪼아 838개의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석공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9개의 골짜기 총길이가 9.5㎞나 되어 이름이 되어버린 9곡의 정상에서 출발해 맨 아래 1곡까지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6곡까지 내려오자 절벽 전면에 드문드문 관들이 얹혀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옛날 원주민들은 사람이 올라 갈 수 없는 수직 절벽에 나무기둥 두 개를 수평으로 끼워 넣고, 통나무 관을 그 위에 걸쳐 놓고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지금 그 종족은 없어 졌지만 바로 이곳이 당시의 장례풍습을 전하고 있었다.

이튿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렴도, 유향동 계곡과 대홍포 차 밭으로 이동하였다.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듯 어수선해 보이지 않는 기념품가게들. 이십여 분 넘게 올라가니 눈앞의 놀라운 절벽(?). 마치 큰 조개를 앞으로 조금 숙여서 세워 놓은 듯 한 동굴이 앞을 막고 나타났다. 계곡이 깊으니 이런 괴물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음날은 대왕봉을 올랐다. 밑에서 볼 때 윗부분이 서울의 정겨운 산과 닮아서 코스가 궁금했었던 명봉우리. 암벽의 갈라진 틈(침니chimney)을 이용해 기발하게 계단식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다. 70kg 이상 체격이라면 몸에 끼일 정도로 좁은 폭이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아래의 풍경은 숲이 아주 좋고 그 사이로 구불구불 물이 흐르는 집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마음이 차분해 진다.

복건성을 떠나 버스로 4시간을 타고 강서성 삼청산 밑에 다다랐다. 우리네 시골길 같은 느낌으로 흙벽돌집도 가끔 보였다. 산기운 때문인지 새벽녘 눈을 뜬 후라도 머릿속이 개운하다. 오늘은 하늘이 내려 앉아 128m의 직벽 바위의 어렴풋한 윤곽이 보일 뿐 밑에서 바라본 장엄한 느낌에 비하면, 구름이 끼어서 인지 능선을 돌아 내려오는 길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다.

옛 선인들의 수묵화에서만 볼 수 있는 산들을 이 작은 두 발로 겸허함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태가며, 자연의 웅장함과 경외로움에 감탄하며, 그리고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며 오른 산행! 그 자체로 뜻 깊은 배움이었지만, 환경을 지키려는 이 시대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큰 교훈이며 감동이었다. 특히 2년 전 개방했다는 삼청산은 산길이 깨끗하고 쓰레기의 흔적조차 없다. 제복을 입고 집게와 봉투를 든 사람들이 혹 누가 휴지조각을 흘리더라도 금방 오가며 치웠다.

우리들을 돌아보게 된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산계곡과 해수욕장 등의 피서지마다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지에서 각종 쓰레기 투기는 자연 오염의 주범이다. 바다의 경우 해양 사고를 유발하고 또 병조각 등으로 피서객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물론 각 지자체 등에서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만 지킬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각 지자체에서는 피서지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철안(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







땀 흘린 만큼 그들과 가까워졌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설립한 YBA(Young Buhhha Association)의 여름 봉사활동이 파키스탄 발라코트 인근 까와이 마을에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개됐다.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봉사단(단장 탄경)은 7월 8일 현지로 출발 10일부터 4일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까와이 마을은 지난해 10월 8일 진도 7.8의 강진으로 8만여 명이 사망한 발라코트에서 22㎞ 떨어진 오지마을. 이 마을도 지진 피해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해 YBA가 작년 겨울부터 구호활동을 전개 해 왔던 곳. YBA의 '글로벌 호프'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파키스탄 까와이 마을 여름 봉사활동은 올 봄 완성한 남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사업과 의료사업, 여자초등학교 건립 사업 등 3개 단위로 진행됐다.

지난해 지진 최대 피해지역서 4일간 봉사 '구슬땀'
여자초교 세우고 교육 · 의료활동… 폭우로 개교식 연기


김나연 의료팀장(왼쪽)이 까와이 마을 메디컬센터에서 상처입은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다.


▲ 손상미 교육팀장이 현지 어린이들에게 그림그리기를 지도하고 있다.


▲ 파키스탄 초등생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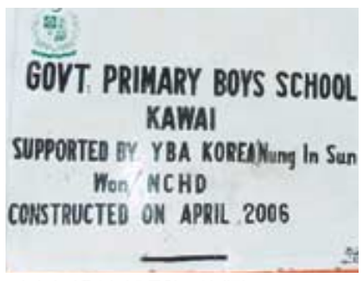
▼ 건설팀 봉사자들과 현지인들의 여자초교 건립 모습.



▼ 남자초교 물탱크 설치를 위한 돌쌓기 작업.



봉사단은 당초 7월 9일 까와이 마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곧바로 봉사활동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일 발라코트 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하루 늦은 10일 까와이 마을에 도착했다. 까와이에 도착한 봉사단은 신속하게 숙박용 텐트를 설치하고 부식을 정리하는 등 활동 준비를 하고 마을 현황을 점검했다.



까와이 마을 남자초등학교 안내판.

이대목동병원 김나연 전공의(가정의학과)를 팀장으로 하는 의료팀은 의약품을 챙기고 탄경스님을 팀장으로 한 건설팀은 남자초등학교와 신축 여자초등학교의 교사를 점검했으며 YBA 국제팀 손상미(학원 강사)씨가 팀장을 맡은 교육팀은 현지 교사들과 학생들을 접촉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11일, 봉사단은 아침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현장으로 투입됐다.

의료팀은 까와이 마을에 설치된 메디컬 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 검사와 의료 상담, 치료활동 등을 벌였다. 척박한 환경과 낙후된 생활 여건 속에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주민들은 메디컬 센터를 찾아와 각종 병증을 호소했다. 심각한 증세를 가진 환자는 없었으며 대부분 봉사팀이 지급하는 위생용품(수건 치약 칫솔 비누 등)과 의료교육(치과 질환 등)에 관심을 보였다.

건설팀이 찾은 여자 초등학교 건립 현장은 아침 일찍부터 현지 참여자들의 망치소리로 요란했다. 다져진 평지에 굵은 목재로 기둥과 지붕을 세우고 양철판으로 벽을 둘러치는 것이 전부인 학교 짓기였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이 마을에선 큰 공사였다. 여자 초등학교는 모두 3개의 건물로 구성했다. 교사 2개동과 교보재 창고 및 교무실 1개동. 이번 봉사활동에서 여자초등학교의 외부 공사와 마당 평탄작업이 마무리 됐다.

교육팀은 남자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를 먼저 실시했다. 교육연수에서는 아동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도로 이뤄졌다.

12일과 13일에도 봉사단은 쉴 틈 없이 현장을 누볐다.

의료팀은 오전과 오후를 나눠 인근 마을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했으며 교육팀은 방학중인 학생들을 소집해 그림 그리기와 학급 환경 미화 작업을 진행했다. 건설팀은 여자 초등학교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자 초등학교에 물탱크를 설치했다.

지난해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동생과 둘이 산다는 소년가장 아루프(10세)는 검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형 누나 들이 찾아와 학교를 말끔하게 단장해 주니 공부할 맛이 난다"고 좋아 했다. "나도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루프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수줍어했다.

메디컬 센터를 찾았던 대부분의 주민들도 "봉사단원들을 보기만 해도 아픈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까와이 마을에서 열린 YBA의 글로벌 호프 여름 봉사 활동은 13일 개교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지급하며 막을 내리기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12일 밤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발라코트까지의 22㎞ 구간 국도가 상당부분 유실되고 교량이 파손돼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의 방문이 무산되고 인근 마을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 8월로 연기됐다. 지광 스님은 개교식을 위해 발라코트지역까지 왔으니 까와이 마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4일간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 까와이 마을은 새로운 활기를 찾으며 한국 불자들과의 인연에 감사했다.

한편 봉사단원들은 12일 밤의 폭우로 15일까지의 활동계획 일정을 채우지 못했다. 13일 오후 작업을 마무리하고 발라코트까지 22㎞를 도보로 이동했다. 계속 머물경우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 · 사진/파키스탄 까와이=임연태 기자

interview

"봉사의 참맛 느꼈습니다"
YBA 여름캠프 첫 참가 박병호군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YBA 봉사활동에 참가한 능인선원 대학생부 박병호(한라대 1년 · 사진) 군은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집에서는 맏아들이지만 막상 해외 봉사활동을 나와 보니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것도 느끼게 됐다"는 박 군은 "이번 활동에서 사람은 혼자 사는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고 즐거워했다.

건설팀에 소속되어 삽질과 돌 쌓기를 하면서도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던 박 군.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활동에 더 참여해 보고 싶다고 했다. "봉사활동은 자신을 향해 많은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기회"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도 커서 남 돕고 싶어요"
까와이 마을 초등생 아씨아



새로 지은 여자 초등학교의 개교식은 연기됐지만 까와이 마을의 여자 초등생들은 신났다. 새 학기부터는 새 학교에서 새 교복을 입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단원들이 급작스런 철수를 결정하고 짐을 챙기는 와중에 찾아 온 아씨아(10세) 양은 자신들에게 지급할 교복 꾸러미를 힐끗 거렸다.

손상미 교육팀장이 교복 한 벌을 꺼내 입혀 주었다. 아씨아 양은 검은 눈을 빛내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가장 멋지거든요. 제 꿈을 이루려면 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즐거운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상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 에서 벌어지는 사건
선 방 일 기
'지허'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 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 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6,0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스님이야기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이 소개된다. 85명 스님들의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자체로 절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 불교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
448쪽 / 값 12,000원
지묵 지음 외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홰촬 정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법어사 설선대법회
문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10명의 대선사들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A5 / 449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



색소폰 연주가 유상호 씨

향기 도반의

재즈 연주하며 진리 전합니다

법당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

조금 낯선 풍경이지만, 광주 전남지역에선 그리 생경한 일만도 아니다. 색소폰 연주가 유상호(58)씨가 있기 때문이다. K · J재즈오케스트라 단장이자 한꽃예술봉사단 재즈오케스트라 단장, 색소폰 앙상블 라포르 지휘자를 맡아 지역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유씨. 그러나 유씨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10여년 가까이 펼쳐온 무료 자선공연과 색소폰 · 오카리나 등을 이용해 편곡한 '퓨전 찬불가'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사를 맡고 있는 유씨는 한 달에 두 세 차례 기금 마련 공연을 연다. 정기공연 외에도 자선공연 요청이 오면 종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든 찾아간다. 최근엔 소록도까지 다녀왔다. 포대화상의 천진한 미소를 닮은 유씨가 선 굵은 색소폰 선율을 토해내면 길 가던 사람까지도 모두 발길을 멈춘다.

"자선공연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달려오시죠. 심지어 공연 몇 시간을 앞두고 급히 연락을 드렸는데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기꺼이 참여하시더라고요."(윤예중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처음엔 '좋은 일 한 번 해보자'며 양로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양로원을 찾다 보니 어르신들이 진정 고마워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정(情)'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후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로 봉사대상을 확대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마음먹었다. 고아 · 장애아라는 편견을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마음을 터놓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심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마련이죠. 음악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연주하면 상대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짧은 음악공연만으로도 밝게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기금마련 공연과 매주 수요일 재가 화엄학림의 수업 전에 진행되는 찬불가 교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지난 4월에는 새로 창단한 한꽃예술봉사단(총괄진행 현장)의 5인조 재즈오케스트라 단장도 맡게 됐다. 한꽃예술봉사단은 광주지역 불자 예술인을 중심으로 꾸려진 예술봉사단. 이웃 종교에는 이미 색소폰 선교단이 있을 정도로 친숙하지만, 불교계에선 낯선 악기인 색소폰을 이용해 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처음엔 '예술'하시는 분이라 공연할 때 한두 번 정도만 참여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 이사님은 자선공연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행활동도 너무나 모범적이세요. 10여년 이어온 자비신행회 활동 외에도 매주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성실함은 후배들의 존경의 대상이죠."(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국장)

광주지역 자선공연의 선구자라 할 만 한 유씨가 공연을 다니는 것 외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찬불가 대중화다. '입으로 부는 악기는 모두 연주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악기를 섭렵한 유씨는 찬불가를 색다르게 편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찬불가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불자들은 염불을 많이 해서인지 찬불가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찬불가 교실 지도를 해 보면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찬불가는 그 자체가 법문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찬불가를 흥얼거리다보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도 자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찬불가를 부르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찬불가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싶어 법회 때 흙피리의 일종인 오카리나로 삼귀의 · 청법가를 연주하기도 한다. 흙피리에서 우러나오는 곱고 사색적인 음색이 불교의 가르침과 잘 어울리기 때문일까.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신심이 절로 우러난다'는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카리나로 연주한 찬불가 음반도 발매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찬불가 '홀로 피는 연꽃'을 재즈 형식으로 편곡해 선보였다. 유씨는 재즈와 찬불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 냈던 것일까?

"재즈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마저 벗어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곧 재즈지요. 그 자리에서 작곡하며 연주하는 재즈는 음악적 완성도가 나에게 달려있는 '즉설 법문'이라고나 할까요?"

대원사 미타회에 참가한 것도 찬불가를 통해 불자들에게 새로운 신행의 힘을 주기 위해서다. 신도들 중 누군가가 상(喪)을 당하면 회원들이 찾아가 찬불가를 부르고 장례 치르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 미타회의 주된 활동이다.

"가족이 죽음을 맞게 되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지게 마련이죠. 그때 이웃 종교에서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찬송가도 불러주고 상조회 등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가장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힘을 얻자는 뜻에서 미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색소폰 소리가 그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면, 불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저에겐 큰 가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음악적 재능은 써도 써도 끝이 없고, 오히려 음악적 깊이는 깊어집니다. 자선공연은 어려운 이들에게 조그만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내 음악의 깊이를 더하는 방편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후진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음악학원의 제자들도 직접 현장에 데리고 다니며 자선음악 공연의 감동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유상호 씨. 그의 손에 늘 들려 있는 색소폰 케이스에는 색소폰뿐만 아니라 불심(佛心)이 가득 담겨 있음이 틀림없으리라.

광주/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 · 지역 가리지 않고 10년 간 무료 자선공연

생명나눔 · 자비신행회 이사, 상조 모임 미타회서 활약

"찬불가 자체가 법문… 퓨전찬불가 대중화 앞장 설 것"



달마의 氣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고객상담전화 1588-3278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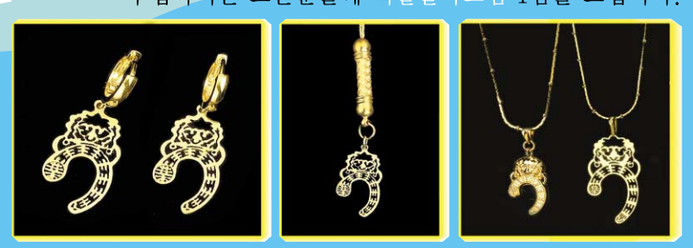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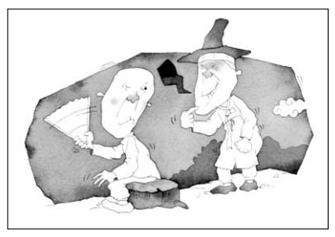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2> 부채

곧 장마가 끝날 것이다. 이후에는 불볕더위가 기다리고 있다.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노모처럼 비가 와도 걱정, 해가 이글거려도 걱정이다. 이래저래 중생계에선 근심이 끝날 날이 없다. 그 때문에 사바세계를 인토(忍土)라고 했나보다.

더위는 밀짚모자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긴 하다. 다만 두루막 차림의 평상복일 때에 한정된다. 가사장삼을 수했을 때는 맨머리이어야 제대로 어울린다. 그래서 방포원정(方袍圓頂)이라고 했다.

네모진 가사(方袍)와 둥근머리(圓頂)는 수행납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더욱이 공식 행사장이나 의전이 필요한 격식있는 자리의 태양아래에선 부채만이 사바세계의 열고(熱苦)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얼마 전 어느 교구본사 주지진산식에 갔더니 부채를 정말 많이 준비해 놓고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방(동남아)의 스님들은 거의 모자를 쓰지 않고 오직 부채에만 의존한 채 더위를 이겨내는 모양이다. 또 헝겊으로 만든 자줏빛 부채에는 지퍼가 달려있어 호주머니 역할까지 겸하는지라 이를 이용하여 보시를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를 지키면서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돋보였다.

하지만 북방의 스님들이 사용하는 종이부채에는 지퍼가 없다. 그래서 가끔 노상에서 봉투공양을 받고는 손에서 엉거주춤 호주머니로 옮겨 넣을 때 그 어색한 느낌은 설사 부채를 들고 있을지라도 감수해야 한다. 합죽선에 호주머니를 만들어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사들의 부채는 햇빛가리개나 보시를 받는 도구로만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꾼들의 부채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판을 장엄하기 위하여 소리와 추임새에 방점을 찍어주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분주무업(760~821)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푸른 비단부채에서 서늘한 바람이 풍족하느니라." 선사는 푸른 비단부채(靑絹扇子)라고 했다. 또 혜근선사는 붉은 비단부채(紅羅扇)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시절 선가에서는 지금처럼 종이부채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남방부채를 연상시킨다.

그건 그렇고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닛고' 라는 그 심각한 질문에도 부채의 바람은 여유롭기만 하다.

비슷한 시대 살았던 마곡보철 선사 역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다가와 물었다. "바람의 성품은 항상하여 두루하지 않는 곳 없거늘 선사께서는 어째서 부채를 흔들고 계십니까?"

부채질하는 선사에게 못마땅하다는 듯 따지자
"그대는 바람의 성품만 알고 쓰임은 모르는구나"

질을 해대는 꼴이 마뜩찮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할(喝)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한 답방(答棒)이 날아오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바람의 성품이 항상 있는 줄만 알았고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은 모르는구나."

공기라는 체(體)만 알았지 바람이라는 용(用)을 모르니, 한 쪽으로 치우친 견해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다. 당연히 물어야 할 말을 또 묻는다.

"무엇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는 도리입니까?"

이에 선사는 다시 부채를 흔들어 보였다. (키득키득) 그 답변을 보충하자면 불감혜근 선사의 '부채송'이 좋을 것 같다.

오색구름 그림자 속에 선인이 나타나(彩雲影裏仙人現) / 붉은 비단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는구나(手把紅羅扇遮面) / 얼른 눈을 뜨고 선인을 보아야지(急須着眼看仙人) / 선인의 손에 든 부채를 보지 말라(莫看仙人手中扇).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수행에 진전없네… 집중수행 해볼까



안거기간 동안 집중수행을 하고 있는 안국선원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수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별 진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침을 받을만한 기회도 별로 없고….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 수행지도자들은 이럴 때 집중수행을 해보라고 권한다. 단기간이지만 모든 것을 끊고 수행에만 집중하게 되면 평상시 수행에서는 느끼지 못한 집중력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인다' 는 집중수행. 집중수행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집중수행 해 보니…

제주 화북 1동에 사는 김한삼(31)씨. 7월 31일부터 제주 원명선원에서 시작된 일주일간의 집중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는 김 씨는 어느 누구보다도 집중수련의 '참맛'을 잘 알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병세에 차도가 없었지만 우연히 지난해 여름 집중수련에 참가한 뒤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스스로 일정을 정해 집중수련을 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먹어오던 약도 끊었을 정도로 나아졌다.

시공간 제약 이겨내며 집중력 · 힘 생겨
일상수행서 못 느꼈던 환희심 체험
주말~일주일 단위 진행…목표 명확해야

김 씨는 "집중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용맹정진하는 집중수행과 일상수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집중수행이 일상수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진척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 청담고 박주란(37) 교사는 위빠사나 수행처인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1년간 집중수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집중수행을 했다.

박 교사는 "공간이 제한되고 시간에 제약을 받고 묵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기 쉽고, 자기 자신을 너무 속속들이 보게 되면서 실망도 크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정확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이겨나가다 보면 집중력과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힘이 일상수행으로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게 된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 집중수행 하는 곳

참선 집중수행을 하는 곳으로는 서울 안국선원 · 금강선원 · 길상사 · 보림선원 · 현정선원, 대구 여래선원, 제주 원명선원 등이 있다.

금강선원(02-445-8484)은 봄 · 가을 학기로 두 차례 진행되는 4개월의 기초참선 과정에서 이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1주일동안 집중수행을 하며, 보림선원(02-914-6187)은 동계와 하계 두 차례 1주일 철야정진으로 집중수행을 한다. 또 현정선원(02-582-9371)도 7월 30일 집중수행에 들어가 8월 6일까지 진행한다. 대구 여래선원(053-744-9009)은 좌선과 경행 수련을 하는 7월 집중수행을 시작했다.

길상사는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선방을 운영하지만 매달 넷째 주 주말마다 '주말 선수련회'를 통해 집중수행을 한다. 그리고 동계와 하계로 나눠 '특별 선 수련회'를 초등부 · 중고등부 · 일반부로 나눠 3박4일간 진행한다.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7일간의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3~4차례씩 운영한다.

안국선원(02-732-0772)은 3개월의 안거기간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정진시간을 2시간 늘려 집중수행을 하며, 인천 용화선원(032-872-6061)과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은 산철에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안거 때는 보다 엄격하게 하면서 수행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하는 곳은 서울 보리수선원 · 연방죽선원, 천안 호두마을, 김해 반냐라마가 있다.

보리수선원(02-517-2841)은 매월 한 차례씩 8일간 집중수행을 한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집중수행 때에는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묵언을 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

반냐라마(055-331-2841)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중고생 ·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등 계층별로 5일간 일정으로 집중수행을 하며, 주말마다 '주말집중수행'도 한다.

호두마을(041-567-2841)도 월 1회 6일간의 집중수행과 연 2회 특별집중수행을 하며, 연방죽선원(02-3463-3480) 역시 여름과 겨울철에 10일간 일정으로 집중수행을 한다.

▶ 주의할 점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수행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집중수행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고 말한다.

대효 스님은 "1주일 정도의 단기간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 효과가 높고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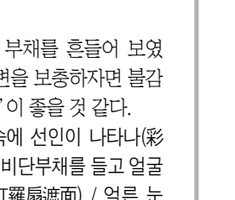
보리수선원 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은 "자기변화 과정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생활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긴장감이 수행욕구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집중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국선원 홍법운영팀장 은암거사는 "집중수행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신도들의 반응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성취감이 높아지면서 수행에 자신감이 붙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하는 집중수행이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집중수행에 임하면서 뚜렷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치열한 구도정신이 있어야 하며, 순간순간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또 집중수행은 말 그대로 평상시의 수행을 일정기간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수행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7. 30 (월 · 화 ·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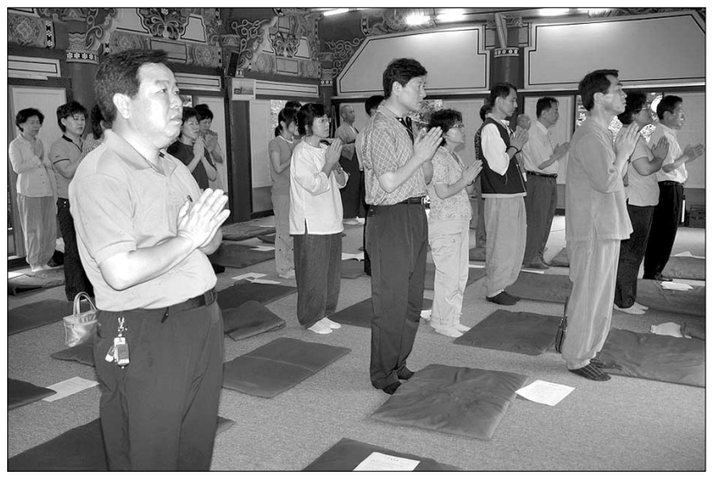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공무원의 자세’ 다시 새겨집니다

과천청사공무원불자 여름수련회 현장

갖가지 현안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면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과천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이다. 법부무,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자연히 이곳 공무원들 역시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는 야근에 집안 대소사까지 챙기노라면 ‘제 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 이럴 때면 휴식도 휴식이지만 진실된 ‘나’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7월 15일 경북 영천 은해사와 부귀사. 과천종부종합청사 공무원불자 20여 명이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이곳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벼르고 별러오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수련회 타이틀도 ‘나를 찾아, 나를 보는 시간 만들기’로 정했다.


과천종합청사 불자들이 은해사 보화루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생활과 신행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5일 밤 10시, 부귀사 주지 청암 스님과 공무원 불자들 간의 차담시간. 건교부 불자회 부회장 이형 과장이 차담 중간에 이렇게 질문했다. 개인신상과 이런저런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던 일부 공무원 불자들도 질문방향을 신행으로 돌렸다.

또 수행방법, 경전에 대한 궁금증, 또 무늬만 불자인 자신의 나태함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자정 넘도록 주지스님과 차담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청암 스님은 공무원 불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강조하며, 한치 흐트러짐없이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행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비행을 베푸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을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처님 말씀 한 마디씩을 외며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차담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언제 이렇게 스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던가.

보건복지부 홍성진 사무관은 “생활속에서 보는 나와 자연은 산사에서 보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활력도 얻게 돼 여러가지로 산사에서의 하룻밤은 의미가 크다”며 웃는다.

이날 정오 무렵 부귀사에 도착해 짐을 푼 과천종합청사 불자들은 거조암, 백흥암을 거쳐 은해사에서 공양을 하고 다시 부귀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예불을 모신 뒤 부귀사 극락전 해체복원불사기도에 동참한 후 108배 정진과 참선시간을 가졌다.

자기 낮추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발심

흐트러짐없이 직무에 충실하면 최고 신행

자유시간 아껴가며 금강경 독송

원래 안거기간에는 산문을 열지 않지만 이날 공무원 불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산문을 개방한 백흥암에서는 회주 육문 스님으로부터 귀한 법문도 들었다.

“부처님은 마음 하나 깨치라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음 하나 잘 깨치면 부처요, 마음하나 잘 못 쓰면 도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겠지요.”

5분 정도의 짧은 인사말로 법문을 대신하려 했던 육문 스님의 법문이 길어졌다.

으로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까지 이끌었던 과천청사 불자회지만 1, 2기 임원진들이 물러나고 3기 임원진이 들어서는 시점이라서 조직력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다.

“산사에서 보는 ‘나’ 달라요”

각 부처 불자회 임원진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불자회가 유명무실해질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기 시작했고, 결국 각 부처별 불자회 임원진만이라도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자 일반회원들이 너도나도 참가하겠다며 나섰고, 결국 일반 불자들과 가족까지 참석자 폭이 확대됐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강인준 사무관(보건복지부불자회 전 총무)이 중심이 돼 3개월 전부터 사전답사를 거쳐 수련회가 준비됐다.

공무원불자들의 애틋한 마음과 그 노고를 알기 때문이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도 지도자가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품성에 대해 예화를 들어가며 친근감있게 법문을 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 궂은 날씨였지만 공무원 불자들은 저녁예불시간을 앞두고 30분가량 주어진 짧은 자유시간에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시간을 아꼈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자신을 찾는 시간이라는 점 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97년 건교부 불자회 창립을 시작

하지만 수련회는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출발 당일인 15일 오전,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장맛비가 강원 경기 서울 등에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농림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초 30~40명이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20여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공무원들이 지방에서 1박을 하며 수련회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일로 늘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열게 된 것은 결국 공무원 불자들의 열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산사에서 사무실 직원들을 만나면 마음도 편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좋은데, 많은 회원들이 불참해서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비록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불자회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체감 확인한 것만으로 기뻐요”

건설교통부 기획홍보팀 김순조 팀장은 서로가 일체감을 확인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고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느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수련회 실무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불자회 총무 김미숙씨의 말에 곁에 있던 다른 공무원불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기관사 자리는 부처님 자리”

한국철도공사 구로승무사업소 정영을 법우회장

7월 18일 오전 7시 42분 한국철도공사 구로승무사업소로 출근한 정영을(48) 기관사는 수도권 전동열차 1호선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두 차례 운행하고 난 뒤 잠시 쉬었다가 병점에서 구로역까지 또다시 전동열차를 운행했다. 운행을 마친 시간은 저녁 7시 30분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빼면 꼬박 10시간을 운행한 셈이다.

하루 10시간 근무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정도. 하지만 기관사의 피로도는 일반 직장인의 몇 배다. 기관사의 사소한 부주의는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날처럼 비가 오고 승객이 많이 몰리는 날이면 피로는 더욱 가중된다. 전동열차도 미끄럽고, 승하차하는 홈도 미끄러워 사고가능성이 보통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경력 27년의 베테랑이지만 긴장하기는 초보 기관사와 다를 바 없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열차를 운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죠.”

정영을 기관사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늘 혼자서 하는 다짐이 있다. ‘기관사 자리는 부처님 자리다.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라고. 승객에게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사의 책무이고,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자비와 같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정 기관사는 믿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동차 운행이 지연될 때 승객들이 기관실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일이 잦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했지만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승객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니 제가 흥분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 기관사가 구로승무사업소 불교법우회 회장을 맡은 것은 올해 초. 2000년 철도공사 불교단체협의회 창립당시 재무부장을 맡은 이후 총무부장과 기획부장을 연이어 맡으면서 동분서주했던 정 기관사는 회장을 맡으면서 고민이 더 늘었다. 회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정 기관사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라고 외치며 대화를 이끈다.


정영을 기관사는 운행을 나가기전 반드시 옷 매무새를 만진다. 단정한 복장도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회 집사에서 신심깊은 불자가 된 정 기관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 한 것을 두 가지 꼽는다. 하나는 부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는 기관사가 된 것이다.

“매일 전동열차를 운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열차는 항상 움직입니다. 저도 승객들을 위해 항상 움직이는 게 행복합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61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7월 29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7월 30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결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경포 인월사 담마선원

여름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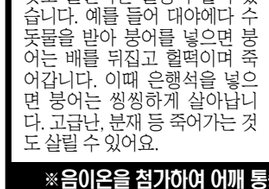
일 정	지 도
2006년 8월 12 – 18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통 역	정 원	대 상
수마테	20명(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법문과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8월 12일 오후 5시
8월 18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담마선원 033)644-1786
email : dhamma53@hanmail.net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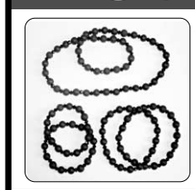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1> 이승(二乘)과 열반

시비분별이 남아 있다면 '이승'
팔만사천 법문 드러나야 '열반'

선가에서는 무명을 타파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무명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먹장구름과 같다. 무명에서 비롯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연기법 자체가 공성(空性)임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온갖 번뇌가 비롯되므로 무명을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 말하기도 한다.

번뇌란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모든 시비와 분별이다. 불교에서 마지막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깨달음'이요 '열반'인데, 이것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시비와 분별이 다 번뇌가 된다. 번뇌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생이 번뇌에 묶여 꼼짝 못한다는 뜻에서 '결박(結縛)'이라 부르고,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뜻으로 '더러운 티끌[垢塵]'이라 하기도 한다. 또 바깥에서 잠시 다녀가는 손님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객진(客塵)번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무명조차 번뇌라고 한다. 이런 번뇌들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열반임을 <선가귀감> 31장에서는 말한다.

斷煩惱 名二乘 煩惱不生 名大涅槃.

번뇌를 없애 나가는 것, 이것을 '이승'이라 하고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을 '큰 열반'이라고 한다.

번뇌의 근본인 이 무명을 뿌리뽑기 위해 간화선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화두와 하나가 되어 능소(能所)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이 깨달음이 '큰 열반'인데, 이것을 얻고자 번뇌를 없애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승(二乘)'이라고 한다.

이승(二乘)에서 승(乘)은 '사람을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탈것'을 말한다. '중생을 태워 생사의 바다를 건너 주게 하는 법'을 비유한 것인데, 이 내용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승이라고 한다. 이승은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을 말하기도 하고, 다시 소승을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으로 나눈 것을 말하기도 한다. <법화경>에서는 일승(一乘)과 삼승(三乘)으로 말한다.

부처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법을 '대승'과 '소승'으로 나눌 때, 성문과 연각을 위한 법이 소승이고 보살을 위한 법이 대승인데 이 대승을 보살승이라 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직접 듣고서 고 · 집 · 멸 · 도(苦 · 集 · 滅 · 道) 사제(四諦)의 이치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성문승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홀로 십이인연의 이치를 관찰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연각승이라 한다.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합쳐 삼승이라 하고, 법화회상에서 이 삼승을 한꺼번에 모아 바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승이라고 한다. <선가귀감> 31장에서 말하는 이승은 소승을 포함한 보살승까지이다.

열반의 본디 뜻은 '불을 혹 불어 끔' 또는 '타오르는 불이 꺼져 재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번뇌가 다 연소되어 사그라진 상태'의 뜻으로 바뀌어서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말로 쓰인다. 깨달음을 완성하여 더 이상 없앨 번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큰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최종적으로 실천되고 완성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열반은 불교의 영원한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삼법인(三法印)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삼법인은 무상(無常), 무아(無我), 열반을 말한다. 불교 이외의 다른 교파에서 열반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불교 자체 내에서도 대승과 소승에 따라서 열반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斷者 能所也 不生者 無能所也.

번뇌를 없애 나간다는 것은 경계가 능(能) 소(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킬 '나[能]'가 없으므로 내가 일으킬 '번뇌[所]'도 없기 때문이다.

선종에서는 시비와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시비와 분별이 바로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더라도 시비와 분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 '이승'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조사스님들은 이승의 분별을 바로 아시기에 단숨에 이를 뿌리 뽑으라 가르친다.

그래서 허상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그 근본 바탕을 바로 보라고 이른다. 그 근본 바탕에 마음을 맞추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 근본과 하나가 되어 '나[能]'가 사라지고 '마주 보는 경계인 근본[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능소(能所)가 사라져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법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 번뇌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 바탕에서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진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큰 열반'이니, 너와 내가 조사스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작업(作業)

일상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불교가 얼마나 생활 속에 녹아있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해 영화계를 술렁이게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업의 정석!'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 '작업'이 바로 불교용어입니다. 언뜻 보면 불교와 연관이 아주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설명하면 '업을 짓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잡아함경>에는 "내 출가의 제자와 재가의 제자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라도 근심하거나 울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작업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말합니다.

또 정토사상에서는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실천하는 방법을 일컫기도 하죠. 그리고 신행의 단계를 안심(安心), 기업(起業), 작업(作業)으로 나누고 있죠. 안심을 얻은 이후에 신(身), 구(口), 의(意) 삼업을 통해 오념문(五念門), 오정행(五正行)을 하는 것을 작업이라 합니다. 이 작업을 잘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이루는 셈이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욕망의 무쇠솥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2강 <금강경> 7장 "얻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무위법 안의 서로 다른 개성들

6장으로 설법은 다시 한 번 끝났다. 말했듯이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달리, 이야기가 반복되고 변주된다. 새로운 것은 없다. 지겨운 사람은 그만 책을 덮어도 좋다. 아직 의혹이 남은 사람들, 또 혹은 좀 더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7장이 이어진다.

진리는 어디 있는가

–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을까? 또 여래가 우리에게 무슨 설법이란 것을 해주었다 할까?"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뜻을 이해한 바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란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 여래께서 이것이다 싶게 설법해줄 만한 진리는 없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可說.

책들은 진리가 있는 곳을 그야말로 지시(指示), 가리켜 주는 것일 뿐,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니, 한사코 끌어안고 악착하거나, 남과 나를 구분하는 표지로 삼지 말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 그리고 <금강경>이 일러주는 뗏목의 비유를 화들짝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혜능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뇩다라, '더없는'이란 형용어는 밖에서 주워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찬사는 마음이 무아, 즉 차별의 찌꺼기가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대병설약(對病設藥), 붓다의 설법은 중생들이 부닥친 문제를 향해 내려준 처방일 뿐이다. 그런 임의적이고 상황적 처방에 무슨 '이것이다' 싶은 진리의 당체가 있겠는가.

"여래가 무상정법, 즉 '더없는 올바른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 마음에는 본시 얻은 바가 없다! 그렇다고 얻을 것이 없다고는 못한다! 다만 중생들의 각자 경험과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래가 그 근기와 성향을 감안하여 종종의 방편으로 깨우치고 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 집착을 떠나게 했다. 그는 일체중생의 망녕된 생각이 생멸(生滅)하는 메카니즘을, 그것이 경계를 따라 어떻게 추동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앞 생각이 일어날 때, 나중 생각이 이를 알아채야 한다. 알아챌 때 그는 그 생각에 머물거나 붙잡히지 않는다. 그때, 견해 혹은 고집은 존재치 않는다. 하니, 이것이다 싶은 '진리'란게 어디 있어서 여래가 설할 수 있겠느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아'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을 말하고, '뇩다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을, '삼'은 마음이 항상 내적 성채를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삼보리'는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이 공적(空寂)한 것을 가리킨다. 일념이 마음의 과정에서 돈제(頓除), 사라질 때, 그때 너는 불성을 본다."

六祖: 阿耨多羅, 非從外得. 但心無我所卽是也. 祇緣對病設藥, 隨宜爲說, 何有定法乎. 如來說 無上正法, 心本無得, 亦不言不得. 但爲衆生所見不同, 如來應彼根性, 種種方便開誘化導, 俾其離諸執著, 指示一切衆生妄心, 生滅不停, 逐境界動. 前念瞥起, 後念應覺, 覺旣不住, 見亦不存. 若爾豈有定法, 爲如來可說也. 阿耆心無妄念,耨多羅者心無驕慢, 三者心常在正定, 藐者心常在正慧, 三菩提者心常空寂. 一念凡心頓除卽見佛性也.

진정 법다운 일이란

– "왜냐, 여래가 말씀하시는 진리는 가질 수도 없고, 또 내보일 수도 없다. 진리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리 아니라 할 수도 없다."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진여(眞如) 혹은 대승(大乘)은 생각이나 말로 포획되지 않는, 생동하는 것이기에 법의 이름에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비법이다. 그렇지만 '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비법이라 해서도 안 된다.'

육조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사람들이 여래가 남긴 문자 장구에 집착할까 싶어, 그리고 무상(無相)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망녕되이 알음알이(知解)를 낼까 싶어, '불가취'라고 했다. 여래는 근기와 국량이 다른 종종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언설을 폈는데, 거기 무슨 '이것이다' 싶은 진리의 당체가 있겠는가. 쯧, 공부하는 학인들이 여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여래가 설한 언설만 돌돌 외고 있다. 본심을 깨달아 대면하지 못하면 종내 성불은 없다. 그래서 '불行, 卽非法. 口誦心行, 了無所得, 卽非非法.

첫부분은 위에 적은 취지와 같다. 그러나 후반부는 좀 다르다. 혜능이 경전을 원문맥 너머에서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례를 여럿 본 바 있는데, 여기서도 그 개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혜능은 '비법'을 위에서처럼 '진리는 언설로 할 수 없다!'로 고상(?)하게 읽지 않고, 시장바닥의 언어처럼, 즉 '법답지 않다!'로 읽는다. 그는 경전만 외는 것으로 불법을 이루려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럼 '비비법'은? 그거야 '법답지 않은 것이 아닌,' 즉 진정 법다운 일이지! "경전을 읽고 마음을 행하며, 그리고 결국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 아니겠는가. 독자들은 어느 해석을 좋아하시는가, 어느 해석에 따라 살려 하시는가. 철학적으로 학구적인 무착인가, 아니면 가슴이 뜨끔하도록 침을 찌르는 혜능인가.



무위법 안의 개성들

– "왜냐, 수많은 성자와 현인들은 바로 그 '무위법'으로 하여 '차별'이 있게 되었다."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法而有差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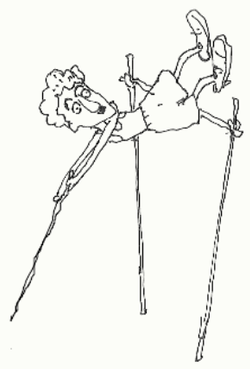
이 구절은 까다롭다. '차별'은 두 가지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성현들은 그들이 깨달은 무위법으로 하여 중생들과는 차별된다!" 그럴 경우, 무위법은 무아, 무상, 무념 등 자아의 분별에 추동되지 않는 완벽한 행동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실제 <오가해>에 인용된 위역(魏譯)이 그 길을 따르고 있다.

혜능의 해석은 좀 다르다. 그는 '차별'을 성현들 사이의 '개성'과 '급수'로 읽고 있다. "삼승(三乘)은 근기가 달라 이해한 바가 다르며, 깨달음에도 깊고 옅음이 있기에, 그래서 '차별'이라 했다." (三乘根性所解不同, 見有淺深故言差別.) 혜능의 해석에 따르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된다. "수많은 현자와 성현들은 무위법을 베이스로 하지만, 그들은 서로 차이가 있다." 대체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

분명한 것은 혜능이 무위법을 성현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중생들과 공유시켰다는 점이다. "누구나 무위법을 통달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六祖: 佛說無爲法者, 卽是無住, 無住卽是無相, 無相卽是無起, 無起卽是無滅, 蕩然空寂, 照用齊收. 鑒覺無?, 乃眞是解脫佛性. 佛卽是覺, 覺卽是觀照, 觀照卽是智慧, 智慧卽是般若波羅蜜多. 혜능은 이 돈교의 희망을 분명히 적어두어, 중생의 불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이 말에는 이런 함축이 들어있다. "부처와 중생은 없다. 다만 마음의 각성과 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오버액션은 경박하다 무조건 타인의 시선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승부에 약한 사람이다.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몇초인가 연속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1초이다. 그 이상 마주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젖은 눈동자를 조심하라 젖은 눈동자는 상대를 포로로 만든다.



관객은 교류하고 싶어한다 대화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화술 익힐까? 분위기 바꿔볼까?

여성의 거짓말을 간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소파의 틈새가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왜일까?
남자 화장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사람은 분위기가 90%
다케우치이치로 지음
수희재 | 8800원

이 모든 물음의 답은 바로 '분위기(외양, 겉모습)'라는 미묘한 요소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교육이 필요했을까 생각해본다.

그것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는 것 빼고는 말이다.

왜냐하면 겉모습 즉 분위기는 표정, 동작, 눈매, 색과 냄새, 온도, 거리 등등 우리를 둘러싼 언어 이외의 방대한 정보가 갖는 의미의 집약판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보다 분위기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고 말한다. 즉 말은 잘 하는데 신용할 수 없는 사람과 말이 없어도 설득력이 넘치는 사람의 차이가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겉모습(분위기)의 위력'은 강력하다. 이에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빗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첫 대면을 하는 상대일지라도, 인사를 하고 명함 교환을 할 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보인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상대의 성격이나 그 밖의 요소와는 하등의 상관없이 한눈에 미녀와 미남에게 반한다.

인간이 전달하는 정보 가운데 말로 하는 내용의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의 연구결과다. 나머지 93%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일본 규슈대학 교수를 지낸 다케우치이치로는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책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만화와 연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 걸쳐 사람의 분위기에 대한 흥미진진한 통찰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중 술집 여주인이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쳐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을 때, 그 여주인의 이야기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어쩌면 말에 많이 속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심리학 사회학 만화 연극 등 다방면으로 분석한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에 대한 흥미진진한 통찰
심리학 연구결과 "말로는 정보전달 7%밖에 안돼"

도금이 벗겨지게끔 되어 있는 '화술'을 공부하기보다 평생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닦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가르침이다.

책의 내용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수염은 콤플렉스의 표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상사' '젖은 눈동자를 조심하라' '그림으로 소리를 표현한다' '말하지 않는 문화' '색과 냄새도 말을 한다' '관객은 교류하고 싶어 한다' '적은 정면에 앉는다' '더울 때 사람은 흥분한다' '예의범절도 메시지다' 등이 소개된다.

지은이 다케우치이치로는 1956년 일본 후쿠오카 현 구루메 시에서 태어났으며, 요코하마 국립대학을 졸업했다. 비교사회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규슈대학 오오타니 단대 교수 등을 거쳐 지금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희곡, 별에 소원을>로 문화청 무대예술창작 장려상 가작,<마작의 제왕 테쯔야>로 고단샤 만화상 등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살인범을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샨티, 레이첼 킹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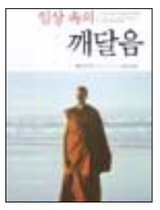
MVFR이라는 단체가 있다. 단체의 정식 이름은 '화해를 위한 살인피해자유족회(Murder Victim's Families for Reconciliation)'이다. 회원 자격은 가족 중에 살해된 사람이 있을 것, 사형제도에 반대할 것등이다.

이 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는 바로 MVFR 회원들의 이야기이다. 공황, 분노, 증오, 외면 등을 거쳐 '용서'에 도달한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내 가족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형은 또 다른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일뿐이다.

나는 MVFR 가입 자격을 얻게 되더라도, 살인범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책이 만들어지게 한 사람들처럼, 나 또한 남은 평생을 상처와 분노 속에서 허우적대기보다는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진정 '치유'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상처를 '덮어버리는 것'과 '치유하는 것'은, 다르니까. 무엇보다 복수 뒤에 얻는 것은 '마음의 평화'보다는 지독한 허무, 가 아닐는지.

참, 그런데 왜 아까운 세금 들여서 극악한 범죄자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냐고? 알고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형집행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이 새롭다. (多憂, aladdin.co.kr/blog/mypaper/879574)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



일상속의 깨달음 황매북스, 예셰 초드론 지음

예셰 초드론이 여행하며 만난 티베트인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한 해답을 얻는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 스물 세살의 나이로 티베트 불교의 비구니가 되어 2006년 현재 9년째 수행 중인 지은이가 깨달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버지와의 사별 후 방황하던 지은이가 진정한 귀의처를 찾기까지의 이야기에서 티베트 불교의 원리가 자연스레 묻어나온다.

고통 속에 빛이 있으며, 그 고통 또한 깨달음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는 메시지를 지은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게 강조한다.

완전한 고요함에 이르려는 현명한 이들은 노력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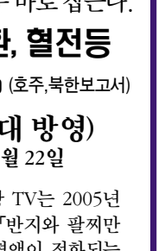
올바르고 정직하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노력할지어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소박한 생활과 침착한 태도와 신중함과 겸손을 지닐지어다.

지혜로운 이들이 나무랄 만한 아주 작은 허물도 없을지어다.

(sum2005, lifelog.blog.naver.com/sum2005)

책속의 밑줄긋기



○…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자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서로 언젠가 저세상에 가야 할 몸이라고 느낄 때, 선악이나 빈부 등 세상의 평가 기준을 뛰어넘어 짧은 삶을 함께할 친구에 대한 다정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깊은 우정은 종교적 감정에 가깝다.

아무것이나 던져도 되는 놀이라 해도 그것이 상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서로 가벼운 면박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사이라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우리는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발드르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우정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우정의 재발견(원숙한 삶을 위한 친구의 심리학)> 본문 35 · 132쪽에서, 동아시아, 가와이 히야오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술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어접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8권 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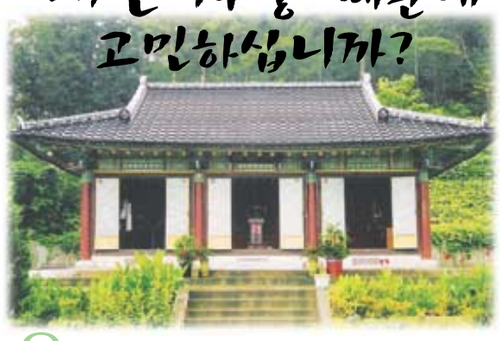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8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9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조립식 방기로 No-1210 7000×4000×3300(mm) 가격:6,800,000
◆이동창 이중벽 황토흙 방기로 No-2100 7200×4700×3300(mm) 가격:8,500,000
물,습속에서도 썩지 않는 기둥,들과루는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이
주말농장,휴양림,펜션,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함(원하는 사이즈 주문 생산가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흙 벽돌
◆물로 청소하는 원탁 No-1540 1800×1030×350(mm) 가격:190,000 ⇨ 할인가:150,000
◆물로 청소하는 벤치워지 6인용 No-1530 1500×1700×750(mm) 가격:450,000 ⇨ 할인가:380,000
쉽게 제품 이동할 수 있게 모든 설치가 간단한 형식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이 반 영구적이며 흑회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황토목,kr/황살.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 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대만 정공 스님 '건륭대장경' 한국에 보시

강원 · 대학 · 연구기관 등에 총 100질
청대 제작 … 불경 주해 · 논술도 포함돼

대만 화장정종학회 영구지도교사인 정공 스님이 한국에 청대 건륭(乾隆)판 대장경(大藏經) <龍藏(용장)> 100질(10억원 상당)을 법보시했다.

건륭판 대장경 <龍藏>은 순천 송광사, 김천 청암사등 주요사찰 승가교육기관 14곳, 남양주 봉인사등 불교도서관 및 연구기관 33곳, 기타 3곳, 동국대 원광대 등 종합대학 50여곳 등 총 100곳에 배포됐다.

<龍藏>은 중국 청나라때 건륭왕이 칙령으로 당시 불문(佛門)의 대덕 스님과 학자들에게 편찬케한 대장경이다. 1질은 121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장경은 불경을 포함하여 역대 고승대덕과 전문학자들의 불경에 대한 주해와 논술, 보고서등 당시 불교관련 자료를 집대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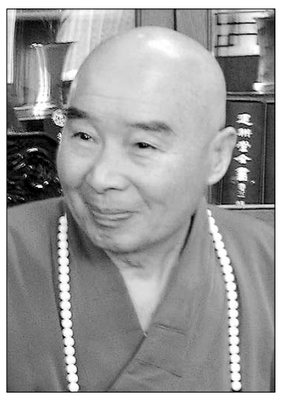
그런만큼 <龍藏>은 내용이 풍부하여 중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인류문화의 보배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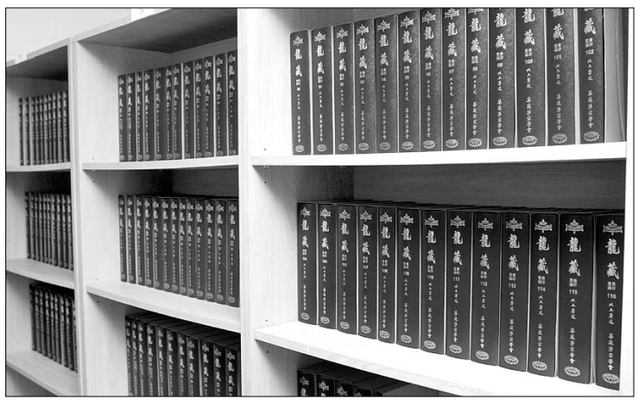
이번에 법보시된 <龍藏>은 황가에서 주관하여 인쇄한 궁정판(宮廷版) 대장경을 고본(古本)으로 복사하여 글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또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목록을 새로 재편하였다.

정공 스님은 기증서에서 "한중문화교류에 있어 불경의 학습이 중요한 부분이다.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보전을 한국의 사찰과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지혜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께 공양하는





정공 스님(사진 왼쪽)이 한국에 법보시한 청대 건륭판 대장경 <용장>의 모습.

것은 그 분들께서 연구와 교학의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를통해 세계다원문화와 평화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정공 스님은 또 <정공법사의 료범사훈 강술> 1만 3000부, 소형염불기 1만개, <염불공덕> 1만부도 함께 법공양 했다.

소형염불기와 <염불공덕> 소책자는 전국 불교병원법당, 사회복지관, 양로원, 유치원에 법공양할 예정이다. 법공양 신청은 팩스 (02)730-2646.

한편 정공 스님은 1927년 중국 안휘성 여강현에서 출생, 1949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1959년 임제사에서 득도했고, 이후 48년동안 윤리도덕 회복과 대승불교 자비정신 홍포를 기원하며 강경과 불교교육, 법보시에 전념하고 있다.

스님은 비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 TV등을 통해 포교하는가 하면 <십선업도경>등의 경전을 영어 불어 아랍어 스페인어 노어등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가산불교대사림 제8권 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림> 제8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가산불교대사림>제8권은 '바수개사(인도 유식학자)'로 시작, '범종(사찰 종루의 종)'까지 5000여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1999년 1 · 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권씩 출간되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 · 사찰 · 사지 · 문화재 · 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술어를 두루 포괄하는 불교대백과사전이다.

특히 <가산불교대사림>은 한자어 · 산스크리트어 · 빠알리어 · 티베트어 등 원어와 원문을 병기해 전문사전으로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불교대사전들이 어려운 용어해설로 인해 일반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을 감안해 용어설명을 쉽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2013년까지 총 15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림>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깨어있어 아름다운 삶

늘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혜학 지음 | 부다가야 | 9000원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깨어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다.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깨어 있는 삶이기 때문.

중생들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고있는 혜학 스님의 법문들을 모아 만든 <늘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는 어지러운 삶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다.

지은이 혜학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前 태고종 종정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득도 했다. 공군 군종법사로 근무했고, 현재 울산 망해사 주지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화경 일승사상 연구> <법화경 후분 육품의 연구> <법화경 불신관의 구조> 등이 있고, 역서로 <법화사상>이 있다.

김원우 기자



정혜결사문 강의
불일출판사 | 강건기 | 1만2000원

지눌 스님 '정혜결사' 지금 여기서 다시읽기

강건기 교수 강의 내용 엮어

'땅으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땅을 떠나 일어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음을 미(迷)하여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쳐서 끝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비록 미함과 깨침은 다르지만 요는 모두 한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고려불교가 옷과 밥만 허비하고 있다"고 통탄한 목우자 지눌 스님(1158~1210).

스님은 "넘어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답게 살려는 모든 사람은 중생놀음을 청산하고 부처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나자"고 말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읽다보면 800년전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날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든다.

12~13세기 불교가 타락하고, 선교가 극심하게 대립하자 지눌 스님은 고려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기 위하여 25세에 정혜결사를 결의한다. 그리고는 33세에 문자 그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는 한국불교역사상 최초의 체계적 결사인 정혜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때 그 취지문으로 발표한 것이 지눌 스님 최초의 저술인 <정혜결사문>이다. <정혜결사문>은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불교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전북대 철학과 강건기 교수가 2005년 1월 LA 고려사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정혜결사문 강의>는 불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눌 스님은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닦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정혜결사문>은 정혜결사의 동기와 과정, 수심결사의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게 하는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앎에 기초하여 선정과 지혜를 닦고, 이를 통하여 일체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함께 하며, 따라서 선과 정토, 선과 교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혜결사문>에 담긴 이러한 사상은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상실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자신을 회복하는 치유책이 될 것이다.



보조 지눌 스님 영정(양선희 作).

저자인 강건기 교수는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문>은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모든 이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야 할 인생의 지침"이라며 "오늘날 정혜결사에 동참하여 마음을 닦는 조용한 혁명에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읽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새로나온 책

■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간다**



(김재영 지음, 종이거울) = "수백만 석가족의 불교개종 운동. 붓다의 비폭력의 가르침이 허망하지 않구나. 살육자들은 흔적없이 사라졌는데 인도에 붓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 책은 인도를 아는데 세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불교와 히말라야 그리고 인도신화라고 설명한다. 이중에서 먼저 불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만큼 인도의 문화와 역사, 문명을 관통하고, 산맥과 초원과 사막을 가로질러 초고속으로 인도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 불교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준다. 특히 2600여 년 전 인도 대륙에 진리의 등불을 밝힌 붓다의 생애를 따라가며 생동적인 설명과 선미 가득한 사진으로 문화대국인 인도를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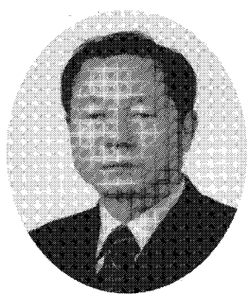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잡념이보배다** 생각하는백성, 김성수, 8000원
- **마음이란무엇인가** 씨앗을뿌리는사람, 달라이라마 외, 1만2800원
- **하늘로 열린 땅 티베트 타클라마칸 기행** 은행나무, 서화동, 1만3000원
-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조계종출판사, 양동효, 8000원
- **운명의변화** 불일출판사,정공법사,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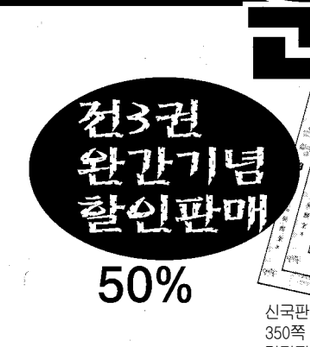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신국판/ 312쪽/ 9,500원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소만 적어가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접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에...





2001 만해축전은 고은 시인의 강의(위)와 학생들의 사물놀이 등이 열렸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세계평화시인대회(아래)로 2005 만해축전(위)은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2006 만해축전 세계 민족시에 흠뻑 젖는다

8월 11~13일 만해마을서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을 올 여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만나자. 만해 스님을 기리는 2006 만해축전이 8월 11~13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8번째인 축전의 하이라이트는 현대시조 100년을 기념해 열리는 세계민족시대회.

7월 21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시조의 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로 그 포문을 연 세계민족시대회는 8월 12일부터 만해마을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10시 현대시조 100년을 맞아 시조헌장을 낭독하며 현대시조 100년 고유제를 지낸다. 시조를 주제로 한 노래와 무용도 선보이는 등 만해마을은 시조축제의 한마당으로 변신한다.

오후 5시에는 본격적인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이병기 이은상 조운 김상옥 정완영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 현대시조시인들의 작품을 선별해 곡을 붙였다. '현대시조 작곡발표 음악회'는 시조와 음악이 만나 노래로 탄생하는 감동을 선사한다.

축전이 시작되기 하루 전부터 30일까지 만해마을은 현대시조 100년 기념 시조 시화전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현대시조 하면 떠오르는 이병기 정완영 등 대표시인 100인의 작품을 걸게시화로 작업해 전시한다.

13일 현대시조 100년 기념 세계민족시 심포지엄은 이어령 선생의 주제강연으로 포문을 연다. 이탈리아 몽고 일본 대만 등에서 교수 시인들이 참석해 국내 학자들과 함께 자국 민족시에 대한 소개와 민족시 사상과 정신에 대해 격렬히 토론할 계획이다.

세계민족시대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현대시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조의 날' 선포식이 7월 21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유자효(SBS 보도본부장), 조정래(소설가), 오세영(한국시인협회장), 김병익(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제현(현대시조 100주년 기념사업회 의장), 정완영(시조시인), 이근배(세계민족시대회 집행위원장), 한분순(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김남환(한국시조시인협회장), 이지엽(한국시조시학회장), 노현송(열린우리당 의원), 김용복(〈열린시학〉 발행인).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시조 100주년…21일 '시조의 날' 선포

시조헌장 낭독·고유제·무용 등 축제 한마당

시조 주제 노래·무용 선봬…시화展도

'만해사상과 문학' 주제 8개 심포지엄

시인학교선 문학강의·시낭송 대회

고교생 백일장 서예전·유심상 시상식

만해 사상과 문학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시사랑문화인협의회 등이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1~13일 만해마을은 뜨거운 학술 열기 속에 빠진다. 각각의 주제를 살펴보면 △만해의 사상과 자유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원장 △종교와 문학-(사)시사랑문화인협의회 최동호 회장 △한국문학심포지엄-(사)한국문인협회 신세훈 이사장 △현대시조 100년과 21세기 시조의 담론-한국시조시학회·열린시학회 이지엽 회장 △불교정신과 현대문학-현대불교문인협회장 수완 스님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한국시조학회 최동국 회장 △서울대 한국문학연구소-오세영 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정희성 이사장 등이다.

대통령상이 대상으로 준비된 전국고교생백일장(8월 12일 오전 12시)과 제4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도 열린다.

〈유심〉 작품상 및 신인문학상, 격외시단 시상식은 12일에 열린다. 유심작품상 시부문에는 이은봉 시인이, 시조부문은 오승철 시조시인이, 평론부문에는 평론가 권혁웅씨가 각각 수상한다. 유심신인문학상 시부문은 권영민 박미산 시인이, 시조부문은 윤경희 시조시인이, 격외시단에는 이정환 박유라 유용주 조연호 정혜정 김근 김신용 이종문 장철문 홍성운 유종인 강신애 시인이 포진됐다.

학생사생대회, 대동축구대회, 만해 주제 시서화전, 현대시조 100년 기념 시조시화전 등 한바탕 축전대동제와 창작21작가회가 주관하는 '창작21 통일시전'과 오세영 화백의 '오세영 초대전' 등 문예 전시 행사는 11~13일 마련된다.

만해시인학교도 같은 기간 열린다. 만해시인학교에서는 문학강의, 백담사 오세암 등 주먹밥 산행, 시인과 숲 속 대화,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 사찰체험, 시인학교 백일장, 시낭송대회, 학술 세미나 등이 준비됐다.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인학교는 선착순 100명 마감이다. 수강료는 5만원. 만해마을 홈페이지(www.manhae.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7월 31일까지.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만해축전과 만해대상은?

만해대상 10회 맞아…인류평화 공헌자 등 시상

1996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가 설립된 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과 그의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1999년 8월 제1회 만해축전이 열렸다.

이에 앞서 1997년 신설된 만해대상은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다. 만해대상은 평화부문·문학부문·학술부문·예술부문·실천부문·포교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한용운 스님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내내 자유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이 땅에 사랑의 철학과 생명사상, 평화사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시인이자 승려로 평생 이룬 업적에 기인한 것이다.

가톨릭 농민회 김승오 신부가 제1회 만해대상 실천상을 받은 이래, 숭산 스님(제1회 포교상), 고은 시인(제2회 시문학상), 조동일 서울대 교수(제3회 학술상), 인세반 린튼 유진벨재단 이사장(제4회 평화상), 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제5회 평화상), 강원룡 목사(제6회 평화상), 김대중 前 대통령(제7회 평화상), 넬슨 만델라 前 남아공대통령(제8회 평화상), 달라이라마(제9회 평화상) 등 종교와 국적을 가리지 않은 수상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0회 만해대상은 포교부문에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공화국 대통령이, 학술부문에 서울대 권영민 교수가, 문학부문에 로버트 핀스키 미국 계관시인·황동규 시인이, 평화부문에 김지하 시인이, 실천부문에 박원순 변호사가 각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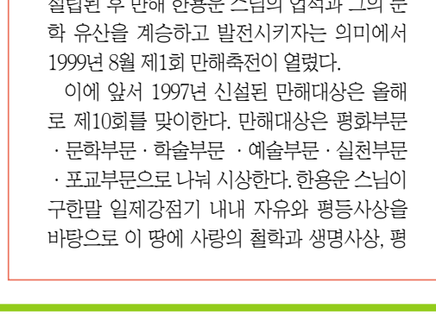
■ 만해축전 주요행사 일정

날짜	행사	장소
8월 11~13일	학술심포지엄 시인학교 창작21통일시전 축전대동제	만해마을
8월 12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5시	입재식,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 현대시조 100년 세계민족시대회 현대시조 100년 고유제 전국고교생 백일장 〈유심〉 작품상 및 신인문학상, 격외시단 시상식 제4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현대시조 작곡발표 음악회	
8월 13일	현대시조 100년 기념 세계민족시 심포지엄	
8월 23일 오후 7시30분	현대시조 100년 기념 현대시조 작곡발표 음악회	KBS홀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지족 스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장정근 기도를 한다.

매 순간 스스로 만족하면…

"상내는 것이 싫어요. 하긴 싫어하는 것도 다 상이지."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족 스님은 이 말씀부터 하신다. 오전부터 들이닥친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도 지면에 소개되는 것은 조금 불편해 하셨다. 중간 중간 불편함을 비치시면서도 스님은 불쑥 찾아간 기자를 위해 보이차를 진하게 우려주셨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던 지족 스님은 1980년 서울 길동에 정착했다. 이곳이 바로 백제불교 발상지였기 때문이다. 대흥사 뒷산은 성산봉(聖山峯)이라고 불려진다. "전국에 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몇 군데 없다"는 스님은 성산이 맘에 들어 맨몸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거기에 서울의 동쪽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에다가 길동(吉洞)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다. 길상사라고 이름지으려다가 대흥사로 지었다. 대가람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는 납자들이 도를 다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부처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은혜를 갚기 위해 절을 세웠어요. 강동에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절로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흥사는 한 번 불탔었다. 1995년 12월 동짓날 새벽 2시 50분. 방화였다. 법당이 불타고 있는 동안 스님은 일심으로 기도했다. "제발 주변 민가에 피해없이 법당만 타고 화마가 물러나라"고. 한겨울에 타오르는 불빛은 이상하게도 오색빛이 찬란했다. 그 불을 보면서 스님은 웃었다. "인연이 없어서 타는 것을 근심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불길은 지하 요사채에는 번지지 않은채 잡혔다. 스님은 수행도량을 세우겠다는 발심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다잡았다.

시멘트로 법당을 다시 지었다. 대가람 중창을 위해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 스님은 오늘도 기도 정진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실천으로 가르치셨듯 스님도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독경하면서 신도들에게 몸으로 일러주신다. 당신이 기도정진하듯 신도들도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 참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흥사 법당은 '대원보전(大願寶殿)'이다. 주존이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한 법당을 보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지장보살상은 명부전에나 모시던 때였기 때문. 그때 스님은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라도 안 모시면 밥도 못 얻어먹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모셨다.

법당에 들어서면 스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다. 각 불상과 불단마다 팻말이 붙어있는 것. '지장보살' '칠성단' '신중단' 등 처음 들어오는 이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눈 뜨면 일어나고 눈 감으면 자는거지. 난 밥벌레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스님은 매일 새벽 4시의 방과 거실에는 지장보살도, 달마도 등이 즐비하다. "우리 화엄 스님은 중년에 가서야 그림을 그리셨는데 우리 절 현판도 스님이 써주셨어요."

스님도 사실 글씨에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지 않았다. 글씨나 그림에 노예가 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스님은 그 흔한 유행가 한 곡도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방 한켠에는 육환장과 불진, 죽엽삿갓이 걸려 있었다. "스님이 삿갓을 쓰고 다니는 것은 깨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 하늘을 못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죄인 같았다.

스님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청했다. 스님은 당장 앨범을 들고 와 일일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다. 그 가운데 10여년 전 지유 스님(현재 범어사 조실)과 함께 편안하게 방에 앉아 찍은 사진이 있었다.

"지유 스님은 생불이야. 대한민국 수좌 중에 지유 스님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지유 스님에 대한 자랑이 넘쳐난다. 무소유로 살면서 장좌불와를 실천하는 스님이라는 것이 지족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관세음보살모다라니 주력을 8년 했다. 제방 선방을 다니며 화두선에도 정진했다. 그래서일까. 뭐든지 하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지족 스님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물었다.

"무식이 도를 깨친다고 하잖아요. 무식하면 집중하거든요. 물론 유식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행으로 실천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염불의 길도 깨달음의 길이요, 참선 화두 드는 것도 그 길입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 불자들도 열심히 근기에 맞게 수행 정진하면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성불합니다."

스님은 "나의 법명이 곧 화두"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큰 일을 이룬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1959년 소백산에서 정진하던 모습.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에 매진하던 시절이다.

관세음보살모다라니 8년 주력도 집착할까봐 서화 배울 기회 외면

"무식이 도 깨친다…근기 맞는 수행을"

30분이면 어김없이 아침예불을 드린다. 세수 일흔이 넘었어도 예불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예불 후 두어시간은 꼬박 참선을 한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은 곧 포교인 생활을 하고 있다.

문 앞에 '나무지장왕보살'이 붙어있는 스님 방은 매화 그림이 가득 차 있었다. 전면에는 매화 병풍이, 한쪽 벽면에는 금니매화도가 걸려있었다. 누구의 작품인지 물었다. 은사 화엄 스님의 작품이라는 대답이다.

"우리 은사스님에게 반해서 출가했다"는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내원암 등서 禪수행

지족 스님은 | 193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54년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한산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청봉 스님에게 사교를 마치고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문경 혜국사 주지 소임을 시작으로 구미 도리사, 포항 보경사, 울산 내원암 등 선원에서 수행했다. 태고종 원로의원으로 1980년 서울 대흥사를 창건해 현재까지 주석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지족 스님 (서울 대흥사 주지)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 (무료배송)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 비우면 극락 채우면 지옥

지족 스님의 가르침



물질시대는 이타사상이 이끌어야
제 그릇에 맞지 않는 욕심은 불행
이 세상 공짜 없어…"덕 쌓으세요"

마음을 비우면 바로 그곳이 극락이요, 번뇌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 하는 그곳을, 속세에서는 우주세계라 합니다. 우주세계는 3요소가 있어야 해요. 모양이 있어야 하고, 흡수(먹어야)해야 하고, 음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모양이 있고 수분을 흡수하고 암수의 음양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윤회합니다. 이생에서 선행을 많이 해 선업을 쌓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축생이나 아귀가 되는 거에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1초라도 더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윤회해서 태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못하고 집착에 붙들려 중음신(中陰身)이 돼서 떠돌아요. 내가 관에 들어가서 보면 떠돌아다니는 중음신들도 먹어야 하거든. 중음신은 1년이 하루예요. 1년에 한 끼 먹고도 사는 겁니다. 중음신은 3요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 닿는 곳 가족 등에게 붙어서 대신 먹고 사는 거죠.

그 중음신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물체를 짊어진 것처럼 짐이 돼서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는데 병원 가봐야 병명도 나오지 않아요. 또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도 떨어져 다른 병도 쉽게 생기죠.

말법시대에 오면 스님이나 사찰에서도 점을 보고 그런다잖아요. 지금이 말법시대에요. 그래서 점치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요.

내 마음이 공(空) 상태에 들어가 화두를 잡고 관하면 중음신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붙지 못하지. 내가 잡념이 들었을 때 생에 대한 집착만이 남아 있는 중음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말법시대라도 정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정도로 가느냐. 하심하고 공부해서 오로지 정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각박할수록 점 · 사주 등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입니다. 점 봐서 나쁘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주고 재지내고 부적 사서 붙이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덕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말법시대에는 이기주의와 사기가 판을 쳐요. 우리 불교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 윤리 도덕을 살려야 해요. 지장보살 이타사상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지옥에 중생이 없어야 성불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이타사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국토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왜 지장보살일까요. 관음보살은 산 사람을 제도합니다. 지장보살은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제도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이타사상으로 중생을 제도해야하죠.

사람이 지나치게 돈만 따르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중생은 내 그릇이 작은데,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탐심을 내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거죠. 내 그릇에 맞지 않게 욕심내서 남의 것 빼앗아 큰 집 지니면 뭐 합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돈만 긁어대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물론 탐심이 없으면 이 세상 못삽니다. 다만 분에 넘치는 탐심을 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닦아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에게도 한달은 <금강경>을, 또 한달은 <지장경>을 독송하도록 합니다. 신도들에게도 법문만 듣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절에 오는 목적은 성불이에요. 팔만대장경에서 설한 법은 부처님께서 불자들을 성불로 이끌기 위해 각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방편인 겁니다.

요즘 불서도 많잖아요. 그것 뿐입니까. 불교방송 불교TV 등 방송도 있고, 불교계 신문들도 많잖아요. 사경공덕을 말하는데 사실 옛날에 사경했던 이유는 책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경만 죽어라 한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 참된 인생을 살아야, 사람 노릇 제대로 해야 성불하는 겁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돼요. 속이지 않고 참되게 살기 위해 불도를 닦는 거에요. 부처님께 귀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정진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덕을 쌓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자기 마음만 바로 세우면 주위에서 저절로 추앙해줍니다. 그것이 불도에요. 사람을 참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부터 모범이 돼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해봅시다. 부모는 거짓말하고 잘못하면서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제대로 하면서 자식한테도 말해야죠. 그래야 통합니다. 사회가 혼탁한 이유는 모두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스님도 시주를 받으면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서 신도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보시 역시 내가 빌려주는 거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 스님이라도 업장을 많이 짓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시주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빈하게 똑바로 불도를 닦아 신도를 이끌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대로 쌓입니다.

열차가 탈선하면 철로에 다시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렇듯 신도들이, 불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스님이 나서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의 의무에요.

어려운 이에게 보시를 하면 아무리 무주상 보시라 해도 어느 때인가 나한테 그 복덕이 돌아옵니다.

제가 관(觀)에 들어보니까 인연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게 참 힘들어요. 부부가 죽어서 내생에 다시 만나자 하지만 개개인의 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몇겁생에 가다가 한 번 만날까 말까 한거죠.

우리 은사스님이 내 법명을 참 잘 지어주셨어요. 지족(知足)만 하면 바로 극락이고 부처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 진리가 모두 다 내꺼에요. 그래서 중이 가장 큰 도둑놈이지. 작은 것 아닌 큰 것, 우주를 탐을 내잖아요. 허허허.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6>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식당에서 단골손님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자 식당 주인은 난감해졌습니다. 손님의 아이를 야단칠 수 없고 다른 테이블 손님 눈치는 보이고 해서 말입니다. 음식 값을 치르고 나오는 나에게 그 식당 주인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신들 손자더러,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다' 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내 심정이 그래요."

돈을 벌어주니 고맙지만 얼른 먹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솔직한 식당주인의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를 어쩌면 그리도 정확하게 표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손자들은 모처럼 찾은 할아버지 집에서 편히 머물지 못하고 어서 '우리 집에 가자' 며 졸라대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조부모의 손도 한 번 잡아보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해서 징그럽다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는 냄새 난다며 외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용돈 몇 푼 쥐어주면 억지로나마 곁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손자의 부산스러움을 성가시게 느끼는 조부모들도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적적한 집안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심심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지만 딱히 공통의 이야깃거리도 없으니 서먹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빨리 제 집으로 가버리면 홀가분해지니 더 고맙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여유 양보하는 조부모들
지혜와 자비의 양분과 물을 주며
튼튼한 보리수 자라게 할 '정원사'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란 적이 있는 나는 지금도 기억의 상당한 부분을 외할머니가 차지하고 있음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의 그 곱고 정갈한 맵시, 함부로 남의 말을 옮기지 않는 과묵함,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힘, 눈부신 햇빛 아래서 꽃을 돌보고 새 모이를 주시던 그 아름다운 뒷모습,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박또박 써내려가시던 가계부….

참으로 묘한 일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내 이야기 속에는 항상 외할머니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외할머니는 이러셨다"라든지, "외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말을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외손녀인 나에게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 한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최근 은퇴 후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거사님 한 분이 외손녀를 돌봐야 한다며 바깥활동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운 보살님 한 분은 내년부터 손자를 봐줘야 한다면서 마음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은 절대로 손자 맡지 말라며 온통 반대라고 합니다. 기껏 길러봐야 은혜도 모르고 제 부모만 찾으니 아무 공도 없을 뿐더러 힘에 부치고 자칫 원망만 살 뿐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예쁘지만 며느리가 혹은 사위가 하는 짓이 영 마땅치 않아서 돌봐주기 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손자를 봐주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말리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정답이 없어요. 내가 정답을 만들어야지요."

정작 젊은 부모는 낳았으니 길러야 한다는 의무감, 남들보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자식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유를 빼앗겼다는 서운함 등등이 얽혀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느라 잔정이나 재미를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숨 가쁜 삶을 어느 정도 거쳐 오고 난 뒤에야 새삼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절이 손자손녀를 보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는 엄격하기 이를 데 없던 사람들도 손자손녀에겐 한없이 다정다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황금같은 노년의 여유를 손자에게 양보하는 두 분에게는 손자들이란 '오면 고맙고 가면 더 고마운 애물단지' 가 아니라 당신의 무르익은 연륜과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더욱 알차게 삶을 가꾸어갈 '희망과 생명의 싹' 일 것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라고 합니다. 이 둘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촉촉하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어야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납니다. 당신의 품을 열어주고 수고를 자청하시는 조부모, 외조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튼튼한 보리수를 자라나게 할 세상에서 가장 솜씨 좋은 정원사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宣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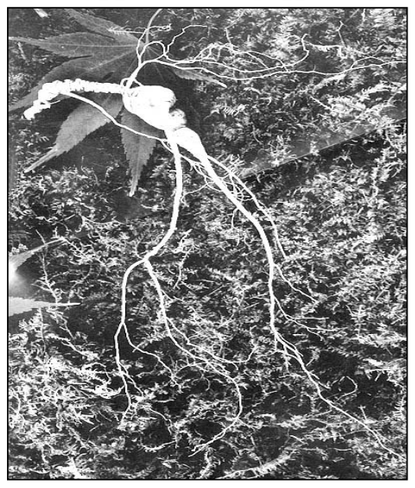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元 · 氣 · 回 · 復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방학 · 휴가, 다(茶) 배워보자



김포 다도박물관은 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예명원 손민영 이사장이 진행하는 다도교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에서는 **▲7월 28~31일 제13차 '한국차문화연수'**가 개최된다. '조선시대 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차문화연수에서는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용운 스님이 제다법과 다구, 다례, 다악(茶樂) 등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차문화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초의선사 탄생지에서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차문화 강좌가 열린다. '중국차 행다법(7월)' '명청시대 행다법(8월)' '소수민족의 행다법(9월)'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행사 당일 오전 7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참가비는 차비 포함 5만원. (061)285-030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김포다도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도 체험 행사를 연다. 7월 29일에는 차의 성분과 효능을 비롯한 차 이론 강좌와 차 우리는 법, 마시는 법 등을 익히는 다도체험이 진행되고, 30일에는 친인척간의 바른 호칭법과 큰 절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8월엔 5일 발효차 체험하기와 동양 3국 다례법 비교, 6일 전화예절 · 공공장소 에티켓 배우기, 12일 꽃차 종류 체험, 13일 생활예절 · 전통예절 교육 등이 마련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031)998-1000

'새벽숲길'로 유명한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이 전통차(茶)와 불교문화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다도 아카데미는 8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8일간 진행된다. 차 마시는 법을 비롯해 차의 역사와 종류를 배울 수 있고 직접 찻잎을 따고 만들어보는 제다 체험도 할 수 있다. 일지암 등 대흥사 주변 차 문화유적지도 탐방하고 참선과 생활예절 지도도 이뤄진다. 다도아카데미 지도법사 법원 스님(대흥사 성보박물관장)은 "어렵게만 느끼던 차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차에 대한 흥미를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61)534-5502

온 가족 참여 행사 풍성
주변 사찰 탐방 참선도

다구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청주시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다기대전'과 갤러리 루브의 '청대 차도자 명품전'을 눈 여겨 보자.

▲'대한민국 다기대전'은 7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흥덕구 운천동 한국공예관에서 개최된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한국공예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천년의 혼, 숨쉬는 다기'란 주제로 펼쳐진다. 천한봉 도예명장을 비롯해 도예가 이학천, 한완수, 서광수, 김세용씨 등의 작품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역대 초대작가 작품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도자 다기 외에도 유리다기, 옻칠다기, 차실 목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온 가족이 미술관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웰빙썸머페스티벌'도 열린다. 다기대전 참여 작가들이 릴레이 워크숍을 열어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기 제작과정과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차 · 연잎차 시연과 도자물레체험도 마련된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다도와 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다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전시는 우리 다기의 가치와 도공의 열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cheongjubiennale.or.kr

'유물 차도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청대 차도자 명품전'** 전시장을 찾아보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갤러리 루브가 7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의 소장품인 청대 자사 작품 100여 점이 소개된다. 특히 청대 초의 유명한 자사 작가인 혜맹신(惠孟臣, 1598~1684)의 자사호도 공개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27일 오후 3시에는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도 열린다. 시음회에서는 자사호와 보이차에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다. (02)3478-081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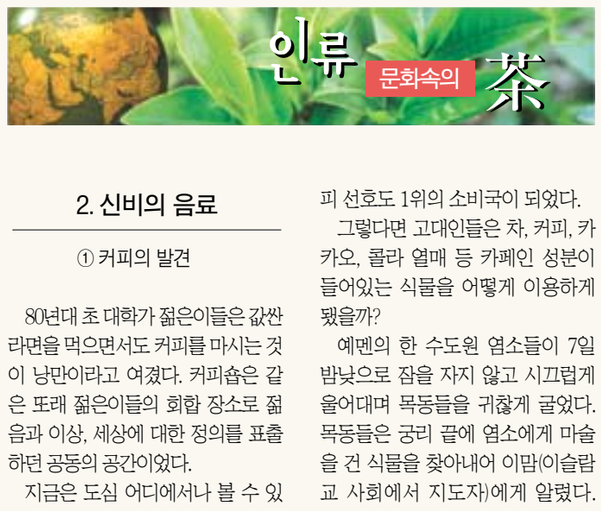


갤러리 루브가 7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청대 다도구 명품전'에 선보이는 찻잔(위)과 자사호.



청주시가 8월 27일까지 개최하는 '대한민국 다기대전'과 갤러리 루브의 '청대 차도구 명품전'은 다구 전시와 강연회가 함께 마련돼 다도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2. 신비의 음료

① 커피의 발견

80년대 초 대학가 젊은이들은 값싼 라면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낭만이라고 여겼다. 커피숍은 같은 또래 젊은이들의 회합 장소로 젊음과 이상, 세상에 대한 정의를 표출하던 공동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외국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은 다양한 마케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커피는 아직도 서구의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가 전해진 것은 1890년대 초, 외국 사신과 선교사들에 의해서다. 고종은 아관파천 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 여사의 권유로 처음 커피를 마신 후 이것에 매료되어 덕수궁에 서양식 집을 짓고 커피와 서양음악을 즐겼다. 이후 왕실에서 커피가 애용되었으며 조선 상류층의 사교와 국빈 접대에 자주 커피가 이용됐다.

산업화만큼 빠르게 일상 음료로 자리매김
외국에선 음식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커피나무 코페아 아라비카의 가지. 윤기 나는 초록색 잎을 가진 소관목으로 10m 높이 까지 자란다.

손탁 여사는 고종이 손탁 여사에게 하사한 정동 '손탁 호텔'에 처음 문을 연 커피숍은 당시 상류사회의 사교장소이자 외교의 중심지요,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찻집이었다.

역관 김홍륙이 유배를 당하게 되자 고종과 세자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어 고종을 독살하려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커피를 마시는 다방이 명동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화가, 문학가, 영화인 등 예술가들이 인생과 자유를 토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던 지식인들의 문예 살롱이 바로 다방이었다.

이렇게 커피는 근대화와 함께 다가온 서양문물이었다. 지금은 우리의 산업화만큼이나 빠르고 다양하게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았다. 커피 소비 또한 인스턴트커피 중 믹스 커피 선호도 1위의 소비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차, 커피, 카카오, 콜라 열매 등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을 어떻게 이용하게 됐을까?

예멘의 한 수도원 염소들이 7일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며 목동들을 귀찮게 굴었다. 목동들은 궁리 끝에 염소에게 마술을 건 식물을 찾아내어 이맘(이슬람교 사회에서 지도자)에게 알렸다. 이맘은 이 식물의 잎과 열매를 냄비에 넣고 짓이기고 가열하여 물을 부어 마셔보았다. 희미했던 기억들이 또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았으며, 천상의 음식을 먹은 듯 힘이 샘솟는 기분이었다. 이후 밤마다 수도승과 이맘들은 이 카와(k'hawah: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커피의 옛 이름)의 씨앗으로 활기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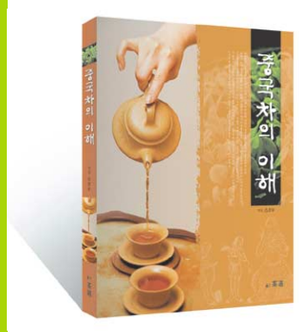
이 커피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 최초의 커피 이용자는 수도승이었다. 차(茶)가 불가에서 잠을 쫓기 위해 마셨던 수행 음료이며, 도가의 양생에 차가 응용되었듯이 커피 또한 이슬람교의 수도승들이 밤에 종교 행사를 치루기 위한 각성제로 이용됐다.

한때는 커피를 제대로 끓이는 것이 새신부의 중요한 덕목이 될 만큼 생활의 중요한 일과이기도 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대의 음료인 와인을 금지하고 인간의 정신을 각성시키는 커피를 합법적인 이슬람의 음료로 삼았다.

한편 에티오피아 갈라족은 커피 원두를 끓여서 버터와 함께 으깬 다음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었으며, 환을 만들어 음식이나 약용으로 이용했다.

1511년 종교지도자들은 커피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하여 피고석에 커피를 담아 놓고 토론을 벌여 커피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커피를 압수해 거리에서 태웠고 소비하는 사람을 매질하기도 했다.

■ 이창숙 연구원(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중국차의 이해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우리 가족 피서 절로 갑니다

방학과 휴가의 계절 여름이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이즈음, 가족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세속의 번잡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사찰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최근 템플스테이도 가족 참가자들을 겨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명상·참선 등의 수행프로그램이나 선무도·생태체험·차 만들기·트레킹 등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가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 전국 사찰 여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역	사찰	기간	특징	참가비	연락처
서울	묘각사	8월 19~20	가족 템플스테이	3만원	(02)763-3109
인천	강화 전등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3만원	(032)937-0125
경기	파주 보광사	8월 19~20일	휴식형	3만원	(031)948-7700~1
	양평 용문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3만원	(031)234-0040
	화성 용주사	8월 12~13일	체험형	3만원	(031)771-4792
	고양 흥국사	8월 5~6일 29~20일	체험형	3만원	(02)381-7970
	용인 행복선원	7월 28~30일	가족 자비명상	1인 5만원 /가족 10만원	(031)286-0265
강원	원주 구룡사	7월 28~30일 8월 4~6일 12~13일 19~20일 26~27일	체험형	3만원	(033)732-4800~5
	평창 월정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3만원	(033)332-6664
부산	금정 홍법사	8월 5~6일 26~27일	체험형	2만원	(051)508-0345
경남	양산 통도사	7월 29~31일	가족 템플스테이	가족 12만원	(055)382-7182
	밀양 표충사	7월 28~30일 8월 5~6일 19~20일 26~27일	체험형	3만원/6만원	(055)352-1150
	합천 해인사	8월 5~6일 12~13일 19~20일 26~27	수행형(광명기도)	1만원	(055)934-3022
경북	경주 골굴사	7월 29~30일 8월 5~6일 12~13일 19~20일 26~27일	가족 선무도 체험	4만원	(054)746-0172
	경주 기림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3만원	(054)744-2292
	문경 대승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보시	(054)552-7105
	안동 봉정사	8월 5~6일 12~13일 19~20일	체험형	3만원	(054)853-4181
대전	유성 자광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보시	(042)822-9220
충남	공주 갑사	8월 12~13일 19~20일 26~27일	휴식형	3만원	(041)857-8921~2
	공주 마곡사	8월 18~20일	가족 템플스테이	가족 10만원	(041)841-6227
	서산 부석사	8월 4~6일 12~13일 19~20일 26~27일	가족 생태체험	3만원	(041)664-0690
	예산 수덕사	상시1박2일	휴식형	3만원	(041)337-6565
	공주 영평사	상시 1박2일	백련꽃차 체험	4만원	(041)857-1854
	논산 지장암	8월 12~13일 26~27일	체험형	3만원	(041)732-5629
전남	보성 대원사	7월 29~30 8월 26~27일	차훈체험	3만원	(061)852-1755
		8월 4~6일 11~13일	인도문화체험	5만원	(061)852-1755
	강진 백련사	상시1박2일	휴식형	3만원	(061)432-0837
	나주 불회사	상시 1박2일	아니짜(anicca, 무상)명상 녹차만들기	3만원	(061)337-9400
전북	해남 대흥사	상시 1박2일	휴식형	3만원	(061)535-5775
	김제 금산사	8월 18~20일 25~27일	체험형	6만원	(063)548-4441~2
	부안 내소사	8월 5~6일 12~13일 19~20일 26~27일	체험형	5만원	(063)583-3035
제주	서귀포 광명사	상시 1박2일	오름 트래킹과 하이킹 체험	4만원	(064)738-2452
	제주 법화사	8월 8~9	가족 자비명상	10만원	(064)738-5222

추천! 휴가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 가족이 함께 수행해요

매일 얼굴 마주치며 사는 가족이지만, 그만큼 상처주기 쉬운 것도 가족이다. 평소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마가 스님과 함께 하는 가족 자비명상을 찾아보자. 가족 자비명상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장점 찾아보기, '나 긍정명상' '가족 긍정명상'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로서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 용인 용현사 행복선원은 7월 28~30일, 제주 법화사는 8월 8~9, 공주 마곡사는 8월 18~20일 각각 가족 자비명상을 개최한다.

자비명상·생태체험·차 만들기 등 다양

가족사랑 확인·자연과 교감 '일거양득'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기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해인사 보경당에서 진행되는 광명기도 템플스테이는 평일은 1일 4회(새벽 3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천수경>과 <보현행원품> 등을 독송하며 금~일요일에는 철야기도를 한다.

나주 불회사의 '아니짜(anicca, 무상) 명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바르게 알아차림으로서 '무상(無常)'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수행법. 매주 토~일요일 1박 2일간 진행된다.

▷ 이 절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

가족이 무언가를 함께 만들거나 체험해 보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좀 더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를 원한다면 이곳을 찾아보자.

공주 영평사는 백련이 피는 여름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백련꽃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서산 부석사 템플스테이는 매주 주말 야생꽃 관찰, 불교와 자연사상 강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주 골굴사에서는 불교 전통 무예인 선무도를 체험해볼 수 있고 보성 대원사에서는 차훈명상과 인도문화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다. 서귀포 광명사는 산행과 오름 트래킹, 하이킹 등을 통해 제주의 여름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했다.

양산 통도사의 가족수련법회에서는 선체조와 태극기공도 함께 하고 염주도 만들어 본다. 자장암 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추억의 미니 운동회도 색다른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안한 휴식과 함께

이것저것 필요 없이 '무조건 휴식'을 원하는 사람도 환영이다. 산사의 고즈넉한 새벽숲길을 거닐어볼 수 있는 해남 대흥사나 감포 앞바다를 시원스레 내려다볼 수 있는 경주 기림사, 폭포와 계곡이 시원스레 쏟아지는 공주 갑사 등을 찾아보자. 자연의 넉넉한 품에 안겨 일상의 무게를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나' 돌아보고 가족의 장점 발견하는 시간

interview

가족자비명상 지도하는 마가 스님



"흔히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하잖아요? 일 뿐만 아니라 수행도 먼저 내 가정이 편안해야 잘 이뤄지는 법입니다."

자비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마가 스님(사진)이 올 여름 '가족'이라는 주제를 들고 대중 곁으로 찾아온다. 용인 행복선원과 공주 마곡사, 제주 법화사에서 잇따라 '가족 자비명상'을 지도하는 것이다. 스님은 "가정이란 울타리가 '개개인의 집합소'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가족 자비명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한다.

가족자비명상은 집단상담기법을 통해 자기 안의 근본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이를 치유함으로써 자비로 가족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자기긍정 명상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가족 긍정명상'을 통해 가족의 장점을 찾아봄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은 "자비명상을 통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7>

애호박 냉국과 무 지지미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건물이나 주택가에서 '00사(寺)'란 팻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상가를 개조한 포교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포교당들을 보다보니 갑자기 옛날 절과 요즈음 절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해도 절에 가면 스님들이 텃밭을 일구어 호박이며 가지, 고추, 상추 등을 키워 식재료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절에서는 고즈넉함과 여유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절이 신도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시내에 자리 잡다보니 스님들이 직접 농사짓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상가나 주택 옥상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상추며 고추 모종을 심어 키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요. 직접 키운 애호박을 따와서 나물을 무치고 전도 부쳐주시고, 가지로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는 것입니다. 스님의 정성이 듬뿍 담긴 깨끗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찰음식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직접 키운 제철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지금도 큰절에 가면 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농사를 짓는 스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찰음식을 공부하는 제게 그 모습은 식재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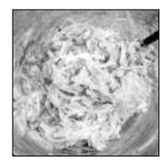
채소를 가꾸는 스님들의 모습을 볼 기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님의 부드러운 미소와 공양주 보살님의 맛있는 음식솜씨 그리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법당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절을 찾아 삼배를 올립니다.

■ 만드는 법



<애호박 냉국> 재료: 애호박 1/2개, 홍고추 2개, 녹말가루 1컵, 양념장(국간장 1큰술, 다진 대파 흰 부분 약간, 참기름 약간, 통깨 약간, 소금 약간) 냉국 국물(채수 4컵, 국간장 1큰술, 감식초 1큰 술, 소금 약간)

① 애호박은 반달모양으로 자라 녹말가루를 묻혀준다. ② 고추는 반으로 잘라 송송 썬다. ③ 녹말가루를 묻힌 애호박을 뜨거운 물에 데쳐 물기를 완전히 빼준다. ④ 양념장에 살짝 버무려준다. ⑤ 냉국물을 만들어 냉장고에 식힌 다음 먹기 전에 양념한 호박을 넣고 고추로 장식해 완성한다.



<무 지지미> 재료: 무 1/5쪽(약 300g), 무청 2줌, 찹쌀가루 1컵, 밀가루 2큰술, 들기름·식용유 약간, 죽염 약간

① 무는 곱게 채 썰어 찜기에 20분 정도 찐다. ② 무청은 죽염을 넣어 삶아 데쳐서 잘게 썰어 둔다. ③ 찐 무와 무청에 찹쌀가루와 밀가루 물 적당량, 죽염을 넣고 되직하게 반죽한다. ④ 팬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조금 두툼하게 올려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다음 주에는 여름철 사찰 보양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주몽' 이끄는 불자스타들

시청률 상승의 '공신'



'해모수' 역 허준호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남성들 시선 사로잡아



'부영' 역 임소영

당당히 종교 밝히는 신인
원작 읽을 정도로 준비 철저



'금와왕' 역 전광렬

곤지암서 면벽수도 경험
기도 후 '허준' 등서 성공

시청률 40%가 넘으며 인기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MBC 월화드라마 '주몽'. 주몽에는 인기견인차 역할을 해온 '해모수' 허준호, '부영' 임소영 등 불자배우들이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강한 카리스마와 그 이면의 부드러운 아버지 역할로 인기를 끌었던 '해모수' 역의 허준호. 극 초반 주몽의 아버지 역을 맡아 열연했다.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허준호는 시청률 상승의 일등공신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다.

영웅으로서의 당당함과 사랑앞에서 애틋해하는 인간적인 면모, 아들 주몽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 없이 통곡하던 허준호의 열연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쏙 뺐다. 허준호는 구룡사가 운영하는 극단 '신시'에서 활동했었다.

'허셀 크로'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열연한 허준호는 7월 3일 방송분에서 금와왕의 큰 아들 대소의 군사에 의해 장렬히 전사했다.

뮤지컬 '아이다' 영화 '강력3반' 등으로 끊임없이 연기의 폭을 넓혀온 허준호는 SBS '사랑과 야망'에서 정자(추상미 분)의 두 번째 남편으로 악역 연기를 선보일 전망이다.

주몽의 부인 '부영'역을 맡은 임소영은 드라마에 첫 출연하는 신인답지 않은 연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당히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밝히는 임소영은 촬영에 들어가기전 원작 <삼한지>를 다 읽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금와왕, 해모수, 유화부인의 삼각관계에서 주몽과 소서노, 부영의 삼각 관계가 내용의 한 축이 돼 무게중심이 '부영'에게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금와왕' 전광렬은 불자는 아니지만 최근 면벽수도했던 과거를 털어놓아 화제다. 10여년 무명생활 시절 절망감에 빠져있던 전광렬은 곤지암의 산사로 들어가 6개월간 면벽수도하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 기도를 계기로 다시 연예계에 복귀한 전광렬은 '허준' 등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흥행에 성공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제공=MBC



채시라 마곡사서 '삼천배' 촬영

KBS 2TV 수목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의 여주인공 채시라(오소영 역)가 7월 19일 공주 마곡사에서 3000배 촬영을 했다. 극중 남편 최장수(유오성 분)와 이혼한 후 울적한 심정을 다스리기 위해 절을 찾은 채시라가 3000배를 하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장면을 담았다. 이날 촬영분은 8월 2일 방송될 예정이다.

'투명인간 최장수'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열혈 형사 최장수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기 전까지 아내 오소영과 자식들을 위해 사랑을 남기고자 하는 유산 프로젝트를 그린 드라마다.

강지연 기자
사진제공=KBS

Nam June Paik

백남준 그는 누구인가?

'TV부처' 등 대표작 50점

코리아나미술관 백남준 소장展, 9월 9일까지

코리아나미술관이 7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백남준 소장전을 개최하고 있다.

코리아나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故 백남준 화백의 비디오 조각, 로봇 시리즈, 드로잉, 판화 등 총 50점의 작품이 나온다. 주요 비디오 작품과 퍼포먼스, 작가 인터뷰 등을 편집한 영상자료도 상영된다.

전시작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TV부처'(2001년 作). 코끼리 상위에 불상을 비추고 있는 텔레비전이 올려 있고 그 위에 붉은 우산을 쓴 불상이 뒤돌아 있다. 백남준 화백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TV부처'는 1968년 보니노화랑에서 가진 네 번째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출품된 작품이다. 불교와 명상의 상징인 부처님과 테크놀로지의 상징인 텔레비전이 마주하며 서로의 이질적 요소와 조우하는 'TV부처'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 · 재구성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2001년에 제작된 신작이다.

인도 사원을 연상케 하는 '코끼리 문'(1996년 作), 채색된 캔버스 위에 보석들과 리모콘을 붙여 제작한 '부처'(1994년 作), 나무결이 살아있는 나무 위에 유화로 그려진 좌선하는 '부처'(2001년 作), 초등학생의 낙서 같은 드로잉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

석판화 작품도 눈길을 끈다. 불두의 모습, 한자로 쓰인 윤회(輪廻), 좌선하는 모습 크로키, 샬롯 무어맨과의 비디오 퍼포먼스 광경 등 비디오 꼴라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들의 조합이 평면적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 (02)547-9177

강지연 기자


TV 부처-2001

능화 스님 '현충재' 책 펴내



매년 현충일이 되면 (사)범패와작법무보존회(이사장 능화)는 인천 수봉산 현충탑, 국립극장 등에서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 공연을 한다. '현충재'는 애국선열과 충의 장졸들의 충정을 기리면서 그간의 고통과 일체의 악업이 소멸되고 극락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재이다. 2003년 처음 시작한 공연은 매해 불교문화재의 꽃인 작법무와 음악, 육법 공양을 곁들여 이어지고 있다.

능화 스님은 최근 사진작가 최용백씨와 함께 현충재의 모든 것을 수록한 <현충재>를 펴냈다. 책에서는 도량석 등 여는 의식에서부터 모시는 의식, 섬기는 의식, 깨달아 펼치는 의식, 봉송의식, 승무 살풀이 등 전통 민속무에 이르기까지 현충재 의식 전반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능화 스님은 "21세기의 경쟁력은 문화"라며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무형문화재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고달사지 달오름음악회 연기

문화복지연대가 7월 22일 개최하기로 했던 여주 고달사지 달오름음악회를 8월 19일로 연기했다.

현지의 상황이 음악회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수해복구를 하는데 음악회를 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에 모두 공감한 것.

조경희 간사(문화복지연대)는 "음악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연대는 음악회가 열리는 8월 19일까지 여주군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계좌번호는 농협 024-01-110722, 예금주는 문화복지연대다.

문화복지연대는 한달동안 연기된 음악회와 성금 모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금이 모금되는대로 달오름음악회에서 여주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展

되찾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특별전이 7월 26일~10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 2층 전시실 '제왕기록실'에서 열린다. '다시 찾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성종대왕실록, 중종대왕실록, 선조소경대왕실록 등 오대산사고본 47책을 전시한다.(02)3701-7500 강지연 기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588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26일(음력 7월 2일) 수요일

사람이라면 모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백분지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이 자립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 보시고 했지만 자식을 길러 보시면 부모의 그 은혜를 천분지일, 백분지일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너무도 크나큰 은공을 이렇게 해서 다 갚을 수 있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생도 하는가 하면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해서 병이 나면 개구리를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닭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개를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는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생을 해서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건강하게 길러야만 하겠기에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길러졌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딸자식은 또 출가하면 그 시집을 섬기되 그 시부모도 역시 그 친정 부모와 똑같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백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칠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칠석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밝게 마음을 해서, 백종에 그 모든 영령들의 조상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듯이, 땅이 없으면 인간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지렁이나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다리가 찢기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이래도 달려드는 그런 걸 봤습니다.

> 칠석에
> 마음을 밝게 해서
> 백종에
> 모든 조상을 위해서
> 마음을 가다듬으라


그림 · 최주현

사람이라면 모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일도 잘 풀리고 또 모든 곡식들에게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수화풍을 진짜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만, 또 만물만생이 다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비가 좀 안 왔다고 해서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죽게 되고 이 야단들을 하는 걸 보십시오.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공기가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한 뜻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누구를 예뻐하고 극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으면 어저께요, 한 발 떼어 놓으면 내일이요, 한 발 떼어 놓으면 오늘도 공해서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우리가 캠핑 나와서 더불어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는 장소에서 떠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가 이런 인생을 길다고 하기 이전에 짧습니다. 짧은 이 기간에 우리는 모든 점에 의해서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부모들이, 또 현재의 자식들이 나중에 또 부모가 되고 늙어서 죽게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하면 태어났다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죽어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죽었다는 신고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위로 상승세계로 갈 사람은 가고 또는 중진세계 즉, 우리 중천세계, 이 세계에 그냥 태어나게 되려면 태어나고 또 아주 그냥 그 짐승으로나 하의 동물로 태어나려도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무죄는 무죄대로 풀려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도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법정에 서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단 생사천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경찰서라고 하겠습니다.

생사천이란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무죄든 유죄든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생사천이라고 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아주 죽어 있는 처소도 아닌 그런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생사천을 거쳐서 우리가, 즉 말하자면 부처님 법에서 무명천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공부 하시는 거는 무명천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모든 살아나가는 이 잎새 가지 나무, 이것이 전부 다 뿌리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살아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뿌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복으로 만날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끄달리면 그 생사천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생사천을, 아니 무명천을 헤매다가 그냥 허공에 혼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무명천이란, 항상 얘기해 드리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먼지 앉을 곳이 어딨는가. 그러나 무명천이 있다고 말을 걸어 놓으니까 무명천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죽어서도 무명천을 찾느라고 앨 쓰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무명천은 없다고, 공해서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무명천은 얼른 쉽게 말해서 모두가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무명천이라는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천이 '하, 무명천이 어딨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관하는 도리에 의해서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고 자기 싹이 진짜로 한다면 무명천이 그 가운데 있을 리가 없죠. 무명천이 가로막을 이유가 없어요.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는 그 사이에 무명천이 어디 붙어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 흙에 가려 있듯이 흙에 가려 있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흙에 가려 있는 것이 무명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바로 업식에 덮여서 그 자기의 싹과 뿌리가 한데 맞붙고 그 사이에 누구도 거기에 거론 못하리만큼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게 되면 그냥 그대로 맞붙은 겁니다. 뿌리와 싹이 맞붙었지 그 사이에 뭐가 낀 게 없습니다. 그렇듯이 무명은 없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명천도 이름이요 방편이지 그것은 없는 것이고, 생사천도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그 도리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생사천도 없을 것이요, 이름인 것이요, 또는 법천을 거쳐서 불사천을 거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에 의해서 모두 법천을 넘어서고 불사천을 넘어서고 도리천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란 마음 자체가 이렇게 탈피를 하려면 우리가 관하는 그 도리가 얼마만큼 뭐, 치열해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진정코 믿는 것, 진정코 믿는 겁니다.

어떻게 싹이 자기 뿌리로 인해서 다 살고 있으면서 '몽땅 싹은 뿌리에 의해서 있으니 뿌리, 너만이 싹을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뚱이는 배와 같습니다. 허허바다에 띄워 놓은 배 말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허허바다에다가 배 한 척을 띄워 놓은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억수장마가 들어서 물결이 심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배가 일렁거리고 뒤집힐 듯 뒤집힐 듯한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밟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허허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 한 척 속에 많은 중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배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몸뚱이가 지금 허허바다에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고 배 한 척 속에 많은 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다면 잔뜩 들어 있는 중생들을 이끌어 가면서 제도하려면, 마음의 선장이 그게 노를 젓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어떠한 업식에 의해서 생각들이 나느냐 하면 파도가 치거나 하면 안으로다가 침착하게 두고, 몸을 가만히 두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한마음의 선장이여! 당신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손짓 발짓 하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배가 안 뒤집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리고 마음의 선장이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어떠한 모습으로나 형성시킨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대로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형성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죠. 그런 장본인이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그 뱃사공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딴 놈이냐 하면 그게 딴 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의 가운데 이 집 가운데 바로 선장이 서 있는 거와 같고 이 집 가운데 바로 심봉이 서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켜 가지고 그 모든 인연에 따른 업식들을 다 거기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 그 가운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본다면 이 형체 속에 있는 나, 참나, 지금 형체를 가지고 그 형체가 있으니깐 내가 마음이 있고 나쁜 것 좋은 것을 알게 돼 있고 모든 것이 그 선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 부모의 은혜 생각하며
> 지극한 마음을 담아
> 정성을 올린다면
>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
> 온 천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누구를 믿나.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 자기! 모두 한마음으로 모아져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자기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모두 이렇게 한데 모아서 뿌리가 된 그 뿌리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자기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고 지수화풍의 은혜고 모든 만물의 은혜고, 허공의 은혜고…, 뭐 만물이라면 헤아릴 수가 없겠죠. 나라의 국왕의 은혜도, 중생들이 만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살아서 앉아 계신 것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옷을 짜는 회사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죠. 모두 이거는 어떠한 걸 연구해서 음식을 가공해서 모두 먹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 자체가 탈피를 하려면 진정코 믿어야!

☞29면에서 계속

생 공용 공체 공심 공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런 겁니다. 다섯 가지의 문제를 총동원해서 한마음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래이며 부처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대로 한 종자에 한 종류니까 살아서 모습만이 하나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종날 이렇게 봉투에다 지극히 내 마음을, 자식의 도리로서의 마음을 어머니 할아버지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생각을 통틀어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제 마음과 같이 둘 아니게 한자리를 하소서!' 하는 마음, 그게 그 치열한 부모의 사랑, 아리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허허.

고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봉투에 단 몇 만 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고, 맛있는 것 한번 제대로 못 사 드렸고, 공양 한번 따뜻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치다 보니깐 이렇고 철몰라서 그랬고, 철 알아서는 그랬고 또 나이 먹어서는 부모가 안 계시니 그렇고…. 이것을, 이 불효를 어떡합니까?' 하고 요렇게 착 담아서 이렇게 그냥 그 놓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서 온 천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령들의 마음이 '아이고,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에서까지 향기가 퍼지는구나.' 하고 그 퍼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와서 친견을 합니다. 친견을 할 때 모습이 없으면 친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놓거나 위패를 놓습니다. 거기에 응접하시라고 그래서 꽃잎마다 응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접을 해서 '장하구나, 장하구나! 내 아들 장하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그 조상이 알게 되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 자식의 마음, 공부한 자식의 마음속으로 탁 들어가 보면 '아하, 내 자식이 따로 없구나. 돌아가면서 부모 자식 노릇 하기에 얼마나 모두가 더불어 같이, 이 치열한 자비가 아니라면 어찌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참 눈물 겨운 마음입니다. 저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직접적인 몸으로다가 내가 잘못해 가지고 부모의 속을 썩인 거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추우면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여름이면 데어서 죽지나 않았는지, 하하하, 그냥 웃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굶어 죽지나 않았는지, 또 뭐 조회하러 가면 이거 죽어서 어디서 송장이 나와서 조회하러 왔나 이럭해서 허우단심을 해서 뛰어왔고 뛰어오다가 엎드러지면 각혈을 그냥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이 장본인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더 속을 썩였으면 썩였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생각만 하면, 그 우거지를 끓여 놓고도 "나는 배가 부르니까 너희들 먹어라." 하고 열무청 우거지를 삶아서 그거라도 간장에다가 찌그러뜨려서 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생각, 그 모두를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서 대동강이 된들 어찌 다 하리까. 그럴 때, 그 생각을 할 땐 봉투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열심히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놓을 때 진짜 이것은 눈물겨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해도 그 부모의 은혜는 정말이지 그 뜨거운 부모의 정은 못될 겁니다. 우리는 그 정의 젖줄을 먹고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3개월이 되면 벌써 이게 젖줄을 잡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남녀를 막론해 놓고 우리가 마음을 깊이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그대로 스님도, 해 드리는 스님까지도, 이렇게 영령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벌써 위패에 먼저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위패에서 또 그 스님한테로 옮겨집니다, 찰나찰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손들이 계시면 자손들에게 응접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정결해지고 아주 따뜻해지고 지혜롭고 이 오온이 다 내 자리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그 영령들도 '아! 이렇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한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진화돼서 다시 천도가 될 때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냥 남자가 또 한 여자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여자도 보통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그만큼 해 놔야 아래위가,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아래 위를 다 제도하면서 내가 꿋꿋하게 나갈 수 있고 온 천하에 내가 아니 있는 데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뿐이 아니라 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만 개가 간다 하더라도, 만 개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나, 자기의 차원이 어딘가, 또 부모의 차원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까지도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부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길을 보면 앞으로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종날 여러분이 마음을 온갖 뿌리에다가, 한 고장에 두시고 아주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어떻게 말을 다 하리까.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대로 나도 커질 거고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나도 작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지금 신문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이렇게 거론했느냐 하면 몇 해 전서부터, 십 년 전서부터 한 것입니다. 십 년 전서부터 어떠한 생각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서 앉아서 설법을 한다 하면 세계로 보일 수 있고 세계로 들릴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자료로 해 놓으면 세계에서 어느 방방곡곡에서도 다 그 재료를 빼다가 공부할 수 있고 말도 서로 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바탕을 세워야 할 텐데, 바탕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그 바탕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방송시설이라든가 그 바탕을 세워서 전체, 딴 것도 딴 사람 것도 전부 어떠한 데서 요구해도 다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는 그 통신시설도 그렇게 해서 세계로 이렇게 오고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목탁치고 염불하고 여러분한테 기복으로 전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 중입니까? 왜냐하면 과거 미래 없는 우리 현재에 공해서 그 공한 가운데서 나오는 불빛과 같은 것을 앞장서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중입니다, 중. 가운데 중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서 앞으로 내가 살아 있든 내가 지금 나, 대리인 자식이 내가 못한 거를 자식이 할 수 있게끔 정열을 쏟고, 자비를 베풀고 모두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릅시다.

그럼으로써 일 년에 4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 신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회사나 직장이나 또는 가게나 이런 데서 그 신문을 보게끔 모두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봐서 아무 쓸모 없다면 그렇게 인권하라고 내가 말도 못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봐서 이익이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보고 급하면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급할 때 '아,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써 있으면 아, 그렇게 급하면 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인권을 해서 우리가 잘 앞으로 모두 범위가 커지고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발판을 세우게끔 만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위 법문은 1994년 8월 21일 특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상봉터미널 서울 금란교회 재일은행 원커힐호텔 망우고개 중구능 덕소 팔당 도농삼거리 양평 마치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가 2006년 7월호부터
월간지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ww.buddhistculture.co.kr

구독 문의 : 월간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02-706-1570, 1571 / 1년 구독료 : 30,000원(12권)

내가 변해야… (상)

원혜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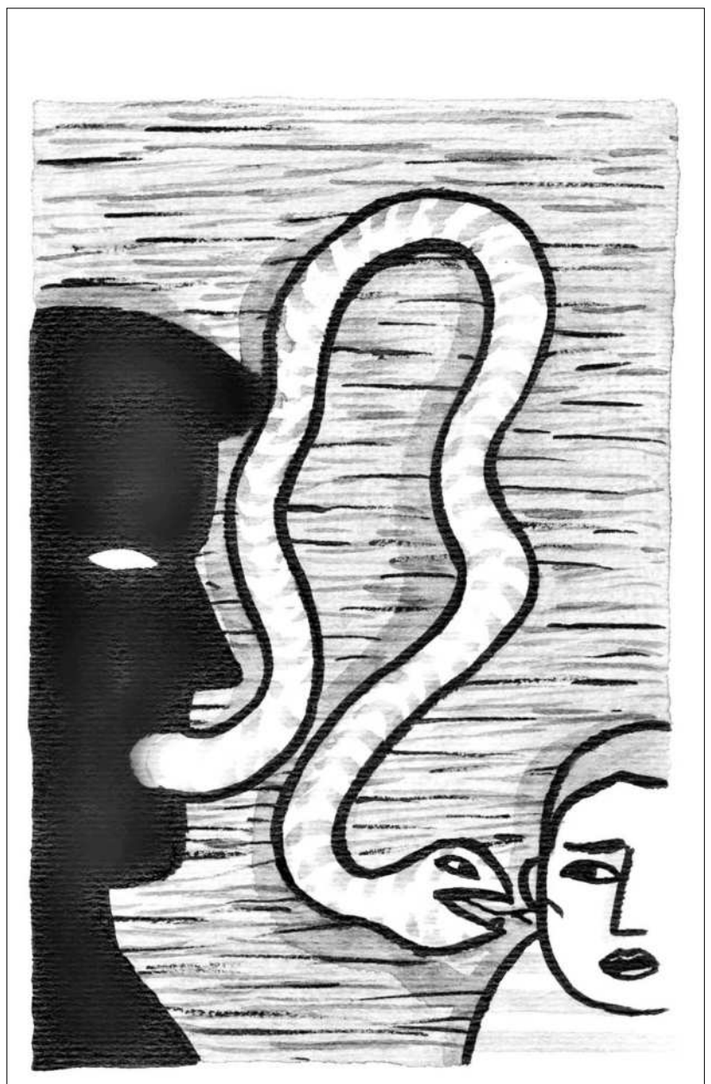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난 어려서부터 성격이 여리고 예민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눈치를 보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먼저 겁먹는 정말 스스로를 무던히도 괴롭히는 성격인 것이다.

커서 사회인이 되어 현재의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나를 버려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 대놓고 반항을 해본 적도, 말대꾸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표나게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가끔 감정을 표출해보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레 겁먹고 수그러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성격이 좋다고 칭찬해 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나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그런데 작년에 부서를 옮기면서 가정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보다 많은 경험을 위해 형사부에 지원한 것이다.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내 위치가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중고참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부라는 특수한 상황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내 여리고 조용한 성격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거뜬히 일을 해낼 자질이 있어야 진정한 경찰인데, 이런 내 성격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

처음 이 부서에 와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여러 사람에게 융화시키고자 했고 잘 되어간다는 생각도 했는데 오판이었다.

경찰근성이 있는 동료들은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 동료들이 내성적인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자꾸 들으니 기분이 언짢아지고 오기가 생겼다.

이와 때를 같이해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내 엄마는 때로는 어떤 상처도 보듬어 주는 비단 폭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변하는 그런 분이다.

그날도 그랬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의 사정으로 엄마가 며칠 간 오후에 우리 집에 와 계실 때였는데, 퇴근 무렵 작은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는 전화를 하셨다. 서둘러 도착해보니 아직은 쌀쌀한 날씨인데 베란다 문이 열려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 문을 먼저 닫고, 엄마에게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라고 물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현관문을 박차가 나가버렸다. 몇 차례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집 안팎으로 시달리며 지쳐가기 시작

문제의 원인이 내 언행에 있음 알게 돼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영문이나 알자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가기도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난 결혼 이후 처음으로 과거의 철옹성 앞에 대책없이 서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좌절감에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불편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집 안팎으로 시달린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에 기대야 했고, 발길이 자연히 시경 경승실로 향하게 됐다.

지금도 시경 소속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아서인지 모처럼의 방문이 낯설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죄의식도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만(예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찾아와 기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감출 수는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경승실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부처님을 바로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오늘은 부처님께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 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을 보고 '에이, 조금 오버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은 그렇게 근엄해보일 수가 없었다.

청사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경승실에서 유리창 밖 경치를 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지만 근엄함은 여전했다. 부처님에게서 아무리 미소를 보려고 해도 미소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처님 미소를 찾다가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정어(正語)와 망어(妄語)>라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가 쓴 책이었다.

불교에서는 유달리 말에 대한 금계조항이 많다며 서두를 시작한 책에서는 "입으로 불이(不二)를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동체대비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묵언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어가 되어야 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악어(惡語)만이라도 피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 무작정 경승실을 찾았을 때는 '무작정 절이라도 하다보면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뜻밖에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됐다.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찾아내 참회하며 잘못된 길을 고쳐 나가는 노력이 行(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래! 묵언 수행은 형편상 어렵지만 정언(正言)과 정행(正行)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다짐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바른 말을 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해보았지만 거친 말투의 버릇이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바르게 행동하자고 되새기고 또 되새겼지만 어느 순간 평상시 관성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승실에서의 다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경승실에서 다짐을 한 직후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는 순간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 아무런 문제는 없는가' 하고 자주 되묻곤 했는데, 어느덧 그런 되물음도 생활 속에 파묻혀버린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직원들이 내가 한 말로 나를 공격한다면 그건 내가 한 말의 내용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동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다.

비록 경승실에서의 다짐이 생활 속에 묻혀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사실 정어와 정행을 하겠다고 실천에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말을 하기 전 '바른 말'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옳았다고 판단한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말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 말이 때에 따라서는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죽장사
- 주 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 주 지 : 명효(한소연)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직인무효공고

- 사찰명 : 죽장사
- 주 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 주 지 : 명효 (한소연)

대한불교 조계종 죽장사 주지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6년 7월20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공 고

- 성명 및 법명 : 배 정환(혜인) • 생년월일 : 1955년 2월 20일(만51세)
-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95-5번지 까르띠움 오피스텔 720호
- 사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상리(대한불교 정수사) • 승적번호 : 대한불교 조계종 0183-48호
- 득 도 : 1982년 9월 8일 해인사에서 원범 스님을 은사로 득도.
- 사미계 : 1983년 10월 15일 범어사 단일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비구계 : 1989년 9월 18일 범어사 단일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혜암 스님을 법사로 비구계 수지.
- 법 계 : 1995년 9월 24일 통도사에서 중등법계 품수.
- 안 거 : 1988년 8월 26일 범어사에서 수선 하안거 이래 3안거 성만.

대한불교 원효종은 상기인이 본종에 제출한 승적 서류를 대한불교 조계종에 의뢰한 바 , 2006년 7월 10일 승적 없음을 통보받았고, 상기인이 본종에 제출한 각서와 입종 서류 또한 모두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본종은 2006년 7월 15일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해 규정원법 제 4장 18조에 의거 그 직책(규정원장)을 해임하고, 또한 종법(상벌위원회) 제 4장 10조 1항, 2항, 3항, 4항, 5항, 7항에 의거 해종 행위 및 가짜 승려임을 공고한다. 향후 각 종단 및 사부대중께서는 위 자의 거짓 승려 행세에 현혹 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불기 2550년 7월 15일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종회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 · 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 몇 스님들의 노고로,(2005비합278) 2005년 12월 14일자로 김대관(벽송)스님을 임시 종정으로 정함에 따라 종단에 안정을 되찾았다. 또한 종헌 · 종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4월 4일 종회를 구성하여 향운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준하였고, 2006년 6월 12일 임시종회에서 종정추대위가 구성 되었으므로,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는 날 까지 종법(종정의 추대조례) 제8조에 의거 총무원장이 종정서리로서 직무대행을 공고 함

불기 2550(2006)년 7월 15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추대위원 일동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3) 순천 조계산 송광사

팔백살 천자암 쌍향수 승천하는 용처럼 생동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자랐다는 송광사 천자암 앞의 곱향나무(쌍향수).

해양성 기후 영향 받아 수종 다양

조계산이라는 지명의 시원은 육조 혜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조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인을 받은 후, 소주 조후촌(曹喉村)으로 내려오자 조숙량(曹叔良)이 육조를 위해 대계(大溪)에다 병화로 사라진 보림사를 복원해 주었다. 육조가 그에 보은하여 '조후촌 대계(曹喉村 大溪)'에서 한 자 씩 따서 '曹溪山'이라고 불렀다. 조계산은 해발 884미터로 호남정맥의 대표적인 육산이다. 산세는 웅장하지는 않으나, 높이에 비해 산역이 비교적 넓어서 후덕한 느낌을 준다.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수종이 비교적 다양하고, 송광사와 선암사라는 대찰이 자리하고 있어서 1979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송광사 들머리인 신평에 이르면 조계산 연산봉에서 발원한 신평천이 내려온다. 얼마 전에 송광사가 2천 평의 부지를 제공하여 이 신평천에 인공습지를 마련했다. 연꽃과 수련 등의 부엽식물과 물억새와 달뿌리풀 등 정수식물을 심어 주암호로 유입되는 신평천의 수질을 크게 정화시켜주고 있다. 주차장에서 송광사까지는 자동차길과 사람길이 따로 있어서 좋다. 사람 다니는 길은 황토길이라 숲과 어울려 운치를 더해준다.

계류 위에 걸쳐진 청량각 내부 부재들은 불구처럼 구불구불 휘어져있다. 특히 충량(衝樑)의 두 마리 용은 살아있는 양 천연덕스럽다. 곧은 나무만 쓸모가 있는 게 아니다. 흘륭한 목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쓸모'를 본다. 그것이 자연을 사랑하는 눈이다. 물고기들은 수질과 주변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신평천 상류인 송광사 계류에는 버들치와 갈겨니가 우점으로 나타나고, 중류에는 돌고기와 긴몰개 등이 나타나고, 하류에는 3급수 어종인 붕어와 미꾸리 등이 나타난다.

하루살이는 송광사 생태계 지표종

송광사 계류에는 하루살이 등 1급수 수서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하루살이는 송광사 계류의 1차 소비자로서, 생태계에 중요한 지표종으로 존재한다. 하루살이는 애벌레[幼蟲] 시절을 물속에서 보내는 수서곤충이다. 애벌레는 물속의 환경에 적응된 다양한 몸 구조를 갖고 있는데, 4~7쌍의 기관아가미(氣管, tracheal gills)도 그 중 하나이다. 하루살이는 이름과는 달리 물 밖으로 나와 날개를 단 뒤에도 사흘은 거뜬히 산다. 다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짝짓기만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송광사의 비림에서는 상제(上霽)선사비가 눈길을 끈다. 비좌에는 연꽃을 비롯해 수중의 물고기와 지상의 거북과 하늘을 나는 새 등 삼라만상이 드러나 있다. 영겁으로 돌 속에 묻혀 있던 자연을 찾아낸 석수의 칼끝이 놀랍다.

비림 앞에 갈졸참나무 한 그루가 우람하게 서 있다. 참나무 종류는 크게 여섯 종류가 있으나, 근친끼리 만나서 변종과 잡종을 잘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갈참나무와 졸참나무가 만나 갈졸참나무를,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만나서 물참나무를 만들어 낸다.

일주문을 지나면 높이 10여 미터의 고향수(古香樹)가 전봇대처럼 높이 서 있다. 이 향나무는 보조국사가 입적하기 전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아둔 것이라고 한다. 보조국사가 훗날 환생하면 잎이 다시 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송광사의 가람배치는 두 개의 큰 석축을 중심으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계류를 끼고 있는 계류 영역, 가운데 자리한 대웅보전 영역, 그리고 큰 석축 위쪽의 수선(修禪)영역이 그것이다. 처음 만나는 계류 영역에 자리한 우화각(羽化閣) 무지개로 걸려있는 능허교 위에 날렵하게 앉은 누각이다.

우화(羽化)라는 말은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에서 따온 말이다. 우화는 곤충이 번데기에서 나와 성충이 되는 과정을 뜻하는 생태학적 용어이지만, 소동파는 이를 빗대어 탈속하여 신선이 되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소리를 내며 내려온 물은 능허교 아래 잠시 정중동(靜中動)에 든다. 수면은 일시에 거울이 되어 주변의 풍광을 담아낸다. 계류를 끼고 앉은 당우의 이름이 달리 임경당(臨鏡堂)이 아니다.

능허교 천정 용머리에는 엽전 석 냥이 철사줄에 꿰어져 있다. 이 돈은 우화각을 불사할 때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한다. 이 아름다운 유물은 나중에 우화각을 다시 고치거나 지을 때 쓴다는 것이다.

천왕문과 종고루를 지나면 경내에 이른다.

경내에 심은 조경수로는, 해청당 큰방 바깥 문 앞에 자리한 이팝나무, 보조국사 감로탑 좌우와 지장전 앞의 배롱나무, 종고루 앞의 매실나무, 성보각 옆 박태기나무, 도성당과 무념문 주변 화단의 실측백과 금송 등이 손꼽힌다. 특히 관음전 앞은 관세음보살의 여성적 이미지에 걸맞게 잔디를 깔고 동백나무, 석류나무, 종가시나무, 배롱나무, 후박나무, 목련, 골담초, 장미, 호랑가시나무, 유카, 참나리, 작약, 비비추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다.

해우소 앞 연못 조성 혐오감 없애

송광사 해우소는 선암사 해우소와 함께 절집의 대표적인 전통해우소이다. 가람 중심축에서 벗어난 외곽의 비탈진 개울가에 북향하고 있다. 정(丁)자형이 건물 앞으로 연못을 조성해 혐오감을 불식시켜주고, 연못에 연꽃과 어리연 등이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있다.

송광사 주변은 관광객들의 영향인지, 서식하는 조류상이 다양하지 않다. 박새, 곤줄박이, 굴뚝새, 어치 등 텃새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조계산 일대의 여름 곤충상에 나타나는 딱정벌레 종류는 사슴벌레과, 풍뎅이과, 하늘소과 등 82종이 보고되어 있다. 새벽에 울력을 하다보면 간밤에 불빛을 찾아왔다가 숲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서성이는 애사슴벌레 등을 만난다. 큰절 아래 쪽에 불일암-감로암-부도암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있다. 두 사람이 겨우 비켜 지나갈 너비의 호젓한 흙길이다. 길은 그 길을 오가는 이들의 심성을 닮는다.

송광사 일대에는 삼나무와 편백들이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1970년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재된 것이다. 삼나무는 낙우송과에 속하는 유일한 상록침엽수로, 키가 30미터까지 자란다. 고온다습한 지역의 저지대나 계곡을 좋아해서 다른 나무에 비해 생장이 빠르다. 원산지인 일본에서는 사찰 건축용재로 많이 쓰인다. 고창 선운사, 해남 대흥사 등 남쪽 절집에 잘 자란 삼나무들이 많다.

조계산은 소나무가 많아서 일찍이 '솔개이메(솔강이메)'로 불렸는데, 그 말을 한자로 옮긴 것이 '송광산(松廣山)'이다. 옛 전설을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이 곳곳에 노송들이 서 있다.

송광사 뒷산은 소나무와 활엽수의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참나무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활엽수들이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어서 얼마 가지 않아 소나무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로암 마당에 때마침 꽃망울을 터뜨린 태산목은 북미 원산의 조경수이다. 추위에 약해서 남부지방에서만 귀하게 볼 수 있다. 높이는 20미터까지 자라고, 줄기는 암갈색이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다른 상록수처럼 윤기가 흐르고, 좀 두꺼운 편이다.

일사량 많아 여러종의 나비 서식

구산선사 부도 주변에 피어 있는 왕달맞이꽃은 일반 달맞이꽃보다 2배나 꽃이 크다. 돌연변이로 나왔지만, 후손에서도 계속 왕달맞이꽃이 나온다. 외래종답지 않게 환경 적응력이 떨어져서, 조계산을 비롯해 지리산과 영광군 섬지방, 강원 북부지방 해변 등 일부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일사량이 많아서 양명한 이곳에는 여러 종류들의 나비들이 나타난다. 근래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조계산의 나비들은 6과 42종이며, 중부지방에 비해 열대성 나비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높은산세줄나비는 다른 세줄나비와 비슷하지만, 앞날개 중실 속에 있는 흰 줄무늬가 두 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는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중부지방과 강원도에만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계산에서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산은 도립공원이지만, 비교적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송광사에서 천자암 구간에는 소나무, 편백, 생강나무, 소사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쪽동백나무, 단풍나무, 함박꽃나무, 굴피나무, 나도밤나무, 조릿대, 청미래덩굴 등등이 보인다.

천자암에는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짚고 다니다 꽂아둔 지팡이가 자랐다는 두 그루의 곱향나무가 있다. 쌍향수(雙香樹)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나무는 향나무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백두산 지역에서 자라는 향나무속에 속하는 향나무의 일종이다. 함경북도 명천군 사리(沙里) 지역에는 곱향나무가 군락을 이뤄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곱향나무는 잎의 길이가 다른 향나무에 비해 짧은 특징이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일반 향나무와 같다. 수령 8백 미터로 추정하고 있는 곱향나무 높이는 12미터 남짓하고, 둘레는 각각 3.9미터와 3.2미터이다. 나무의 줄기는 두 마리의 용이 나무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다. 줄기 일부는 부후(腐朽) 현상으로 썩어서 현재 충전물로 메워놓은 상태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송광사 해우소 매질.


하루살이는 송광사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종이다.


왕달맞이꽃.


높이산세줄나비.


태산목.

『마음의 거울을 꺼내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살며 생각하며"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김사인 시인의 온화하고 다감한 말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향기롭게 합니다.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이 보이는 창 <살며 생각하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97.7 Mhz / 포항 105.5 Mhz